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연결어미와 조사 '은/는'의 결합에 대한 연구

2022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장 윤 예

연결어미와 조사 '은/는'의 결합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문 숙 영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장 윤 예

장윤예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연결어미와 조사 ‘은/는’의 결합에 대한 연구

장 윤 예

본고는 조사 ‘은/는’이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들을 목록화하고, 왜 이들 어미에서만 ‘은/는’의 결합이 가능해지는 것인지를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기존의 논의들은 대체로 ‘은/는’이 명사구에 결합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은/는’은 명사구 외에도 다양한 단위에 결합하는데, 특히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은/는’은 명사구에 결합할 때와 다르게 설명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은/는’이 연결어미에 결합할 때 ‘틀 화제 표지’와 ‘대조 표지’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각 기능에 따라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의 기능 또한 나뉘는데, 틀 표지가 결합한 연결어미 절은 대체로 종속접속절의 지위를, 대조 표지가 결합한 연결어미 절은 대체로 부사절의 지위를 갖는다.

틀 표지로 기능하는 ‘은/는’은 대개 문장 첫머리에서 사용되어 주절의 해석 영역을 한정한다. 틀 표지 ‘은/는’의 쓰임을 살펴보면 ‘은/는’은 시간적 관계 혹은 조건적 관계를 갖는 연결어미에 주로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 연결어미를 통해 표지되는 절과 절 사이의 관계, 즉 ‘연결, 대조, 비교, 대안, 원인, 양보’ 등의 여러 관계 중 해석 영역 한정이라는 기능과 어울릴 수 있는 관계가 시간 혹은 조건뿐이기 때문이다. 시간적 관계를 표시하는 연결어미는 후행절이 성립하는 시간 영역을 한정하며, 조건절 또한 주절이 참이 되는 영역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이 둘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시간절과 조건절은 해석 영역을 한정하는 ‘은/는’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된다.

대조 표지로 기능하는 ‘은/는’은 대개 주절 서술어 바로 앞에서 사용되어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방법절 혹은 일부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절에 주로 결합하는데, 특히 목적절이나 결과절은 필수적 부사절로 실현될 때만 ‘은/는’이 결합 가능하다. ‘은/는’이 결합 가능한 방법절 혹은 일부 목적·결과절은, 모두 주절 동사를 수식하여 동사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모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여타 연결어미가 이끄는 절들과 달리 주절과 별개의 사태·명제를 나타내지 않고, 동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내용을 나타낸다.

연결어미와 ‘은/는’이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경우도 존재한다.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은 후행절이 언제나 부정적인 내용만을 나타내고, ‘은/는’을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하나의 단위로 굳어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을 함축의 관습화를 거치며 형성된 결과물로 본다. 이들 구성은 청자가 이미 습관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곧 수행하기로 마음먹은 행위, 혹은 현재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함으로써 청자의 행위·상태를 변화시키는 데에 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 구성의 특수한 의미는 발화 전체의 정보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함축이 빈번히 발생하다가 그것이 의미 자체로 굳어지면서 생겨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주요어 : '은/는', 연결어미, 틀 화제, 대조, 종속접속절, 부사절, 함축의 관습화
학 번 : 2020-23546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및 대상 ····· 1
1.2. 선행 연구 ····· 4
1.3. 논의의 구성 ····· 7

2. 기본 논의 ····· 8
2.1. 연결어미의 특징과 의미 유형 ····· 8
2.1.1. 부동사와 연결어미 ····· 8
2.1.2. '은/는'이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의 추출과 분류 ····· 16
2.2. 보조사 '은/는'의 기능 ····· 22
2.2.1. 화제와 대조를 나타내는 '은/는' ····· 22
2.2.2. 틀 화제 표지로서의 '은/는' ····· 27
2.2.2. 대조 표지로서의 '은/는' ····· 35

3. 연결어미와 '은/는'의 공시적 결합 ····· 42
3.1. 틀 표지 '은/는'이 결합 가능한 경우 ····· 42
3.1.1. 틀 표지가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의 특징 ····· 42
3.1.2. 시간절을 이끄는 연결어미 ····· 51
3.1.3. 조건절을 이끄는 연결어미 ····· 59
3.2. 대조 표지 '은/는'이 결합 가능한 경우 ····· 63
3.2.1. 대조 표지가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의 특징 ····· 63
3.2.2. 목적절을 이끄는 연결어미 ····· 69
3.2.3. 연결어미 '-게' ····· 77

4.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연결어미+은/는' ····· 84
4.1.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의 특징 ····· 84
4.2.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의 형성 ····· 95
4.2.1. 함축의 관습화와 시간 관계 표지들 ····· 95
4.2.2. 행위·상태와 결과를 연결하는 조건문의 유형 ····· 99

4.2.3. 각 유형의 조건문에서 쓰이는 표현 ····· 104

5. 결론 ····· 110

참고문헌

<ABSTRACT>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본고는 보조사 ‘은/는’이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경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은/는’이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의 목록을 정리하고, ‘은/는’과 연결어미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 그들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보조사 ‘은/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은/는’이 명사구에 결합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특히 ‘은/는’은 정보구조적 관점에서 화제 혹은 대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는’이 절 단위에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 충분히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명사구에 결합하여 화제나 대조를 나타내는 것이 ‘은/는’의 지배적인 용법임은 분명하지만, ‘은/는’이 연결어미에 활발히 결합하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문은 모두 말뭉치에서 실제 사용된 예를 추출한 것이다.[1)]

(1) ㄱ.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고서는 그게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ㄴ. 할머니의 꾸중에도 혜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뒤돌아서서는 입을 가리고 키득키득 웃기만 했다.
ㄷ. 푸른 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문득 맑고 고와 보이던 그녀의 모습을 자신도 모르게 그려 보다가는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ㄹ. 만일 이 사람이 정치적인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아버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다.

1) 본고에서는 모두 <모두의 말뭉치>에서 제공하는 말뭉치를 활용하였다. 말뭉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해 두었다.

그런데 이러한 예들은 명사구에 결합하는 '은/는'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먼저 (1)의 '은/는'이 명사구에 결합할 때와 동일한 의미에서의 화제 표지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화제는 일반적으로 관계적 구정보에 해당하고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대하여성(aboutness)을 지니는 요소로 설명된다. 그러나 (1)에서의 '은/는'이 결합한 선행절이 구정보이고 대하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심스럽다. 해당 예문들에서 '은/는'이 결합한 선행절들은 맥락상 처음 제시되는 정보이므로 구정보로 처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은/는'이 대조 표지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적어도 (1)의 예문들에서는 '은/는'을 대조 표지로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은/는'이 결합한 선행절이 어떤 대상과 대조되는 것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은/는'과 연결어미의 결합에 대해서는 명사구에 결합할 때와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더해 '은/는'이 대조 표지로 사용될 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은/는'이 대조 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에 명사구뿐 아니라 동사구, 부사어 등 다양한 단위에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논의에서 언급되어 왔지만, 절 단위 결합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2)와 (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대조 표지 '은/는'은 (2)처럼 절 단위에 결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3)처럼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고, 과연 어떤 조건에서 대조 표지 '은/는'이 결합 가능해지는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ㄱ. 영민이는 일찍 일어나려고는 노력했다.
ㄴ. 다은이는 밥을 맛있게는 먹었지만 배부르게 먹지는 못했다.

(3) ㄱ. *영민이는 일찍 자려고는 일찍 일어났다.
ㄴ. *다은이가 밥 좀 먹게는 내버려 둬.

또한 연결어미와 '은/는'의 결합이 공시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즉 연결어미와 '은/는'이 결합할 때 이들 의미의 합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특

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4)와 같은 문장에서 '은/는'이 삭제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연결어미+은/는' 구성 자체가 특수한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들을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단위로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성 또한 논의 대상에 포함하여 구성의 특징과 형성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4) ㄱ. 웬만한 천재가 아니고(서)는 자신감을 잃게 된다.
ㄴ. 내가 그런 거라고 말했다가는 분위기 장난 아니겠는데?
ㄷ. 한두 번 봐서는 금방 잊어버려.

다만 본고에서는 보조적 연결어미를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조적 연결어미에 '은/는'이 결합하는 현상은 임동훈(2012)를 비롯하여 여러 논의에서 해명된 바 있기 때문이다. 즉 '은/는'은 대조 표지로 쓰일 때 자리를 옮겨 실현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므로 (5)와 같은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5) ㄱ. [먹고 싶]기는 했다. → 먹고는 싶었다.
ㄴ. [먹지 않]기는 했다. → 먹지는 않았다.
ㄷ. [먹어 보]기는 했다. → 먹어는 보았다.
ㄹ. [먹게 하]기는 했다. → 먹게는 했다.

위와 같은 표현은 보조적 연결어미에 결합한 '은/는'은 연결어미에 직접 결합해 있다기보다, 동사구 전체에 결합해 있던 것이 내부 영역으로 자리를 옮겨 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 글에서는 연결어미와 '은/는'의 직접적인 결합만을 다룰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에 더해 또 하나 미리 밝혀둘 것은, 본고는 간접인용을 나타내는 표지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본고는 '-다고, -냐고, -라고, -자고'와 같은 표지들은 논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표지들은 대체로 '말하다, 듣다'류 동사의 보절로 사용되는데, 이들을 다루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을 모두 연결어미로 처

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는 인용 표지 '-다고, -냐고, -라고, -자고'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은/는'이 결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기로 한다. "나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는 말했어."와 같은 문장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표지에 '은/는'이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들 지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므로 본고 외에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연결어미와 '은/는'이 결합하여 사용된 실제 사례에 관심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임을 언급해 둔다. 이에 따라 예문을 제시할 때는 말뭉치 자료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였다. 본고에서 활용한 말뭉치는 모두 <모두의 말뭉치>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사용한 말뭉치의 종류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 3> 연구 대상 말뭉치

자료명	내용
국립국어원 형태 분석 말뭉치(버전 1.0)	총 300만 어절 규모의 형태 분석 말뭉치
국립국어원 문어 말뭉치(버전 1.0)	책, 잡지, 보고서 등 저작물 20,188종의 문어 원시 말뭉치
국립국어원 구어 말뭉치(버전 1.1)	방송, 강연 등의 공적 구어 자료, 드라마 대본 등의 준구어 자료로 구성한 말뭉치

1.2. 선행 연구

앞서 언급하였듯이 보조사 '은/는'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그 대부분은 '은/는'이 명사구에 결합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부사어 혹은 부사절에 결합하는 '은/는'을 다룬 연구들도 있다. 이 절에서는 '은/는'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두루 검토하기보다, 명사구가 아닌 단위에 '은/는'이 결합한 사례를 다룬 연구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함병호(2018)에서는 '은/는'이 시간 혹은 공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에 결합하는 경우들을 다룬다. 그는 이때의 '은/는'이 '틀(frame) 화제' 표지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틀'이라는 개념은 Chafe(1976)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틀이란 주절의 서술이 적용되는 시간적·공간적 영역을 한정하는 요소로 정의된다. 한국어에서는 특히 아래의 (6)처럼 문두 부사어에 결합한 '은/는'이 틀 표지로 처리될 수 있는데, 그러한 '은/는'은 문장의 시공간적 영역을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6) ㄱ. 이번 방학에는 여행을 가기로 했다.
ㄴ. 서울에는 사람들이 많다.

다음으로 백인영(2019)에서는 '은/는'의 틀 표지 기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연결어미 '-어서'에 결합한 '은/는'을 틀 표지로 파악하고 있다. 가령 아래 (7)과 같은 문장에서 '은/는'은 일반적인 화제와 대조를 나타낸다기보다, 후행절의 시간 영역을 한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7) 뭍에 대어 있는 배 앞에 가서는 우뚝 서더니, 기침을 한 번 하고는 뒤를 휙 돌아보고, (...) (백인영 2019:279에서 재인용)

이 연구에 따르면, 위의 예문은 먼저 '배 앞에 가서 우뚝 선' 사건이 일어난 시간으로 영역이 한정되고, 그러한 시간 영역 내에서 '우뚝 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때의 '은/는'은 시간 영역이 한정됨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틀 표지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김태인(2019)에서도 마찬가지로 틀 개념을 도입하여 '은/는'을 설명하고 있다. 즉 앞선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부사어에 결합한 '은/는'은 주절의 시공간적 배경을 한정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연구는 특히 '은/는'이 결합한 부사·

부사어의 정보구조적 지위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이에 따르면 아래 (8ㄱ)처럼 시위치 부사어나 장소 부사어는 '은/는'이 결합하여 정보구조적 측면에서의 화제로 실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때의 부사어는 관계적 구정보인 동시에 대하여성의 자질을 지녀야 한다. 그런데 부사어가 대하여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부사어가 나타내는 시간 혹은 공간이 인지적 구상성(concreteness)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 (8ㄴ)처럼 인지적 구상성을 지니지 않는 방식이나 빈도 부사어는 정보구조적 화제로 실현되기 어렵다.

(8) ㄱ. Q : 우리 화요일에 어디 갈까?
A : [화요일에는$_T$] 바다에 가자. [시위치 부사어]
ㄴ. Q : 도현이는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다니?
A : *[열심히는$_T$] 도현이가 공부했어요. [방식 부사어]

요컨대 위의 논의들에서는 명사구가 아닌 요소에 결합하는 '은/는'을 틀 표지로 파악하고, 주절의 시공간적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사어나 연결어미에 결합한 '은/는'을 틀 화제 표지가 아니라 대조 표지로 파악한 연구도 있다. 이금희(2012)에서는 아래 (9)와 같은 문장에서 연결어미와 '은/는'의 결합형이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며, 이때의 조건 의미가 '은/는'의 대조 기능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

(9) ㄱ. 범죄를 저지르지 <u>않고서는</u> 그 많은 돈을 한 달 안에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ㄴ. 모두 <u>잘못하다가는</u>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위험들을 안고 시작하는 일일세.
ㄷ. 당신들은 이 선을 <u>넘어서는</u> 안 됩니다.

이에 따르면 대조 표지 '은/는'은 실제 문장에서 실현된 요소 외에 다른 대안적인 요

소들은 배제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은/는'의 기능은, 어떤 조건이 제시되면 다른 대안들은 주절이 나타내는 결과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조건의 의미와 닮아 있다고 한다. 즉 '은/는'의 대조 기능과 조건의 기능적 유사성으로 인해 연결어미와 '은/는'의 결합형이 조건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고는 조사 '은/는'과 연결어미의 결합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2장에서는 한국어 연결어미와 '은/는'의 특성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2.1절에서는 연결어미의 의미 및 기능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은/는'이 결합하는 연결어미의 목록을 제시할 것이다. 이때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은/는'은 크게 틀 화제 기능과 대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뉘므로, 2.2절에서는 그러한 '은/는'의 두 가지 기능을 자세히 정리할 것이다.

3장에서는 연결어미에 '은/는'이 공시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공시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연결어미와 '은/는'의 결합이 통사 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절은 '은/는'의 기능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절로 구성하였다. 먼저 3.1절에서는 연결어미와 틀 표지 '은/는'이 결합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그러한 결합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를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3.2절에서는 대조 표지 '은/는'이 사용된 사례들 및 특징을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연결어미와 '은/는'의 결합이 공시적인 규칙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경우를 다룰 것이다. 특히 조건을 나타내는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이들 구성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의미와 통사적 특징까지 획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하나의 굳어진 단위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4.1절에서는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의 의미적·통사적 특징을 확인하고, 4.2절에서는 이들이 형성된 원인을 탐색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전체적인 논의를 요약하고 본고의 한계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그러한 한계점은 추후의 논의를 기약하기 위해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2. 기본 논의

이 장에서는 본고의 주된 논의 대상인 연결어미와 '은/는'이 각각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2.1절에서는 한국어의 연결어미가 어떠한 의미 부류를 나타내고, 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다만 본고의 주된 관심은 '은/는'이 결합할 수 있는 연결어미에 있으므로, 이 절에서 모든 연결어미의 의미나 기능을 상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2.2절에서는 '은/는'이 틀 표지로 기능하는 경우와 대조 표지로 기능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특히 이 절에서는 '은/는'이 연결어미와 결합하는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틀 화제'라는 개념이 중요히 다루어져야 함을 보일 것이다.

2.1. 연결어미의 특징과 의미 유형

2.1.1. 부동사와 연결어미

연결어미가 결합한 동사형은 언어 유형적으로 '부동사(converb)'라는 술어를 통해 기술되어 왔다(문숙영 2016:337). 즉 '먹어서, 먹다가, 먹도록, 먹게, 먹으러'와 같은 동사의 활용형을 통틀어 '부동사'라는 하나의 술어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사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지만, Nedjalkov(1998:421)에서 논한 바와 같이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자질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 첫 번째 자질은 비정형성(non-finiteness)으로, 부동사는 시제·상·일치 표지가 없든 혹은 그 외의 어떤 이유 때문이든 간에 단독으로 완전한 문장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자질은 부사성(adverbiality)으로, 부동사는 부사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는 형식으로 논의된다.

Haspelmath(1995:3-7)에서 제시한 부동사의 정의에도 Nedjalkov가 논한 두 가지 자질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사는 '부사적 종속(혹은 내포)를 표지하

기 위한 비정형 동사형'[2]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서 사용된 여러 개념에 대해 Haspelmath는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ㄱ. **비정형(nonfinite)**

부동사에는 시제, 상, 양태 혹은 일치 등의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정형성을 드러내는 표지는 언어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라틴어에서는 부동사에 시제·상·양태·일치 표지가 모두 나타나지 않지만, 포르투갈어에서는 부동사에 시제·양태 표지가 없는 반면 일치 표지는 나타난다.

ㄴ. **부사적(adverbial)**

부동사 구성은 논항이 아니라 수식어로 기능하며, 일반적으로 명사나 명사구가 아닌 동사, 절, 문장을 수식한다.

ㄷ. **종속 혹은 내포(subordination)**

부동사 구성은 다른 절에 대등하게 접속되지 않고, 상위절에 '내포되어 있는' 혹은 '통합되어 있는' 구성이다.

그렇다면 Haspelmath가 제시한 정의는 한국어에서의 '부동사', 즉 연결어미가 결합한 동사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3] 이에 답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1)에서 제시된 개념들을 한국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비정형성

먼저 (1ㄱ) '비정형성'에 대해 살펴보자. 부동사가 시제·상·양태·일치 등의 표지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주절 동사라면 표시되었을 만한 통사적 자질들이 부동사에

2) 원문은 다음과 같다. : "a nonfinite verb form whose main function is to mark adverbial subordination."

3) Haspelmath(1995)에서는 부동사를 '동사형', 즉 동사의 활용형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동사뿐 아니라 형용사 및 계사도 어미를 취하는 활용을 한다. 한국어에서는 형용사가 동사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Dixon 2010b:65). 따라서 '먹게, 먹도록, 먹으며'와 같은 활용형뿐 아니라, '귀엽게, 귀엽도록, 귀여우며'와 같은 활용형 또한 가능하다. 그러므로 형용사나 계사에 연결어미가 결합해 있는 형식 또한 부동사라는 술어로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서는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문숙영 2019ㄴ:499-500). 이러한 통사적 자질들을 취하지 못하는 부동사는 단독으로 완전한 문장을 이끌 수 없고 주절 동사에 의존해야만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의존성이라는 자질을 지니게 된다.[4)]

이와 유사하게 Bisang(1998)에서도 거의 모든 동사는 독립적(주절 동사)으로 쓰일 때와 의존적(부동사)으로 쓰일 때 형식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차이를 해당 연구에서는 '비대칭 원리(Asymmetry Principle)'를 통해 설명하는데, 이 비대칭 원리는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2) ㄱ. **삭제 기반 비대칭**
주절의 동사형에서 표현되는 몇몇 정보(시제, 인칭 등)를 제거함으로써 부동사형을 형성하는 것
ㄴ. **추가 기반 비대칭**
몇몇 정보(종속 표지, 격, 인칭 등)를 추가함으로써 부동사형을 형성하는 것

Bisang(2007:129)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비대칭을 드러내기 위해 위의 두 유형 중 삭제 기반 비대칭의 유형이 쓰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화수반력 및 공손성을 삭제하는 방식이 사용된다는 것이다(Bisang 2007:129). 발화수반력 및 공손성은 한국어에서 종결어미를 통해 표지되는 자질인데, 부동사에서는 종결어미가 삭제되는 대신 연결어미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발화수반력 및 공손성이 제거된 동사형은 단독으로 완전한 문장을 이끌지 못하고 의존성을 띤다. 예를 들어 "철수는 밥을 먹었다."와 같은 문장은 가능하지만, "*철수는 밥을 먹으러."에서와 같이 '먹으러'만으로는 온전한 문장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존적인 형식으로 실현되는 연결어미 결합형은 그것이 어떤 의미 유형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정형적인 정도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Hengeveld(1998)의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Nedjalkov(1998)에서 본 것처럼 부동사는 부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이때 부사절이 어떤 실체 유형(entity type)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네 단계의 실체 유형으로

4) 비정형성을 나타내는 범주의 종류에 대해서는 문숙영(2019ㄴ:499)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나뉜다고 본 것이 Hengeveld의 논의이다.[5] 실체 유형이란 Lyons(1977:422-447)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언어적 단위가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대상의 유형을 속성 혹은 관계, 개체, 사태, 명제적 내용으로 분류한 체계이다.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2>인데, 이에 따르면 실체 유형 중 1차 실체는 언제나 명사구로만 실현되므로 부사절로는 실현될 수 없고, 나머지 실체 유형들은 모두 부사절로 실현될 수 있다.

<표 4> 실체 유형에 따른 부사절 (Hengeveld 1998:345-353)

실체 유형	표현 대상	부사절
0차 실체 (zero order)	속성 혹은 관계	'방식' 부사절이 이를 표상 예 They escaped by sliding down a rope.
1차 실체 (first order)	개체	부사절로 실현되지 않음 (명사절로만 실현됨)
2차 실체 (second order)	사태	'원인, 동시성, 전후 시간 관계, 추가, 목적' 등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이를 표상 예 The fuse blew because of our over-loading the circuit.
3차 실체 (third order)	명제적 내용	'이유, 양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이를 표상 예 Jenny went home because her sister would visit her.

5) 다만 여기서 '부사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 Hengeveld(1998)의 논의에서는 모두 '부사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체 유형에 따라 부사절의 통사적 실현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문숙영(2019ㄴ)을 따라 부사절과 종속접속절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적어도 한국어에서는 Hengeveld(1998)에서 '부사절'로 제시된 모든 사례를 '부사절'로 똑같이 처리할 수 없고, 그중에는 종속접속절의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영어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부사절과 종속접속절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부사절'로 내포(subordinate)되는 것으로 기술한다. 본고에서는 Hengeveld(1998)의 논의를 소개할 때는 '부사절'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실제 논의에서는 문숙영(2019ㄴ)을 따라 부사절과 종속접속절을 구별할 것임을 언급해 둔다.

4차 실체 (fourth order)	화행	‘설명’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이를 표상 예 Jenny isn’t here, for I don’t see her.

그런데 Hengeveld에 따르면, 부사절에 사용된 동사형은 그것이 어떤 실체 유형을 표상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정도의 정형성을 보인다. 즉 아래 (3)에 제시된 실체 유형의 위계에 따라 동사형의 의존적인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계에서 왼쪽에 위치한 실체 유형일수록 의존적인(혹은 비정형적인) 동사 형식으로 실현되고, 오른쪽에 위치한 실체 유형일수록 독립적인(혹은 정형적인) 동사 형식으로 실현된다.

(3) 실체 유형의 위계와 동사 형식 (Hengeveld 1998:359)

0차 실체	>	2차 실체	>	3차 실체	>	4차 실체
의존적 동사 형식			>			독립적 동사 형식

이러한 위계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의미적 의존성이 통사적 의존성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6] 예를 들어 주절 동사의 ‘방식’(0차 실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주절과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의존적인 동사 형식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유’(3차 실체) 절은 주절이 표상하는 명제와는 별개의 명제를 나타내므로, 방식절에 비해 주절로부터 독립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유절은 방식절보다 독립적인 동사 형식, 즉 주절 동사에 가까운 동사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성은 한국어에서도 발견된다. 앞에서 발화수반력 및 공손성 표지인 종결어미를 제거하고 그 대신 연결어미를 사용함하는 것이 한국어에서 부동사의 의존성을 드러내는 방식임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시제 표지 또한 의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Hengeveld가 제시한 바와 같이, 의미적으로 주절에 의존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절일수록 과거시제 표지 ‘-았/

6) 이러한 사실은 문숙영(2019ㄴ:500)에서도 설명된 바 있다.

었-' 결합이 어려워지는 경향성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결어미 '-게'가 이끄는 절이 '방식'(0차 실체)을 표상하는 경우, 그 의미적 의존성으로 인해 과거시제 표지 '-았/었-'의 결합이 어려워진다. 연결어미 '-고' 또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이가 주절의 사태와 시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태(2차 실체)를 연결할 때에는 '-았/었-'이 결합할 수 없지만, 주절과 별개인 명제(3차 실체)를 연결할 때에는 '-았/었-'의 결합이 가능해진다. 요컨대 시제 표지의 부재가 의미적 의존성을 드러내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ㄱ. [방식] -게
㉠ 영민이는 밥을 맛있게 먹었다.
*영민이는 밥을 맛있었게 먹었다.
ㄴ. [전후 시간 관계] -고
㉠ 승연이는 밥을 먹고 차를 마셨다.
*승연이는 밥을 먹었고 차를 마셨다.
ㄴ′. [명제] -고
㉠ 승연이는 밥을 먹었고 영민이는 차를 마셨다.

이러한 경향성으로부터 기억해야 할 것은 연결어미가 이끄는 절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특징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같은 연결어미가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연결어미가 이끄는 절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의미가 주절에 의존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연결어미 절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연결어미 절이 방식을 나타내는지, 원인을 나타내는지, 조건을 나타내는지 등에 따라 절의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결어미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연결어미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를 고려하면서 그 의미들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부사적 종속(혹은 내포)

다음으로 (1ㄴ)과 (1ㄷ), 즉 '부사적'과 '종속 혹은 내포'라는 자질에 대하여 검토해 보자. Haspelmath(1995) 등 부동사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부동사는 대체로 동사·절·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적 기능을 수행하며, 따라서 전경이 아닌 배경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또한 부동사 절은 주절에 안긴 형식으로, 즉 내포절로 실현된다는 것도 지배적인 인식이었다. 한국어의 예를 들어 보면, "지영이는 손을 깨끗하게 씻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깨끗하게' 절은 전형적으로 (1ㄴ), (1ㄷ)의 기준에 부합할 것이다. '깨끗하게' 절은 '씻다'라는 후행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고, 배경적인 정보를 나타내며, 주절에 완전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숙영(2019ㄴ)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어도 한국어에서는 연결어미가 이끄는 모든 절을 '부사절'로 통칭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즉 한국어에서 모든 연결어미 절이 부사절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며 '종속접속절'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근거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접속절을 모두 부사절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종속접속절이 주절에 내포된 성분이어야 하는데, 이가 무엇을 수식하고 무엇에 내포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둘째, 종속접속절은 주절을 수식하지 않으며 의미상 주절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셋째, 종속접속절은 담화 상에서 볼 때 배경적인 정보가 아닌, 오히려 주절보다 중요한 정보를 나타낼 때가 많다.[7)]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부사절과 종속접속절이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종속접속절이 부사절과 동일하게 수식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없다면, 종속접속절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문숙영(2019ㄴ:514)에 따르면 종속접속절은 '담화의 수사적 구조가 문법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말하자면 여러 담화 단위들 사이에 나타나는 구조적 관계는 곧 절들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 유형과 동일하므로, 담화 단위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가 절과 절

7) 박진호(2009)에서는 연결어미 '-면서'가 배경적 정보를 나타낼 수도 있고, 초점이 되는 새로운 정보를 나타낼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래 (ㄴ)의 문장에서 '-면서$_2$'는 주절보다 중요한 정보를 나타내므로, 이는 연결어미 절이 언제나 '배경적 정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ㄱ. [배경] 철수는 잠을 자면서$_1$ 잠꼬대를 하지 않는다.
ㄴ. [초점] 철수는 잠꼬대를 하면서$_2$ 잠을 자지 않는다. (박진호 2009:177에서 인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 문숙영(2019ㄴ)에서 제시된 예를 가져오면 아래와 같다.

(5) ㄱ. ①같이 뉴스를 보는 중이었다. ②무언가 궁금했다. ③물어보았다. ④좀 조용히 하라고 했다. ⑤뉴스를 못 본다고 했다.
ㄴ. ①같이 뉴스를 보는 중이었다. ②무언가 궁금했다. [배경(Background)]]
ㄷ. ②무언가 궁금했다. ③물어보았다. [이유(Reason)/연쇄(Sequence)]
ㄹ. ③물어보았다. ④좀 조용히 하라고 했다. [연쇄(Sequence)/조건(Condition)]
ㅁ. ④좀 조용히 하라고 했다. ⑤뉴스를 못 본다고 했다. [이유(Reason)]
(문숙영 2019ㄴ:515에서 인용)

위의 (5ㄴ~ㅁ)에서 나타나는 문장들 간의 여러 관계, 즉 '배경, 이유, 연쇄, 조건' 등의 관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이지 문장 자체의 의미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문숙영(2019ㄴ)에서는 Mann&Thompson(1986:70-71)을 인용하면서, 문장과 문장(혹은 다른 담화 단위) 간의 관계가 접속사 등의 특정 장치를 통해 표지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개별 언어마다 다르지만, '배경, 이유, 연쇄, 조건' 등 문장 간 관계 자체는 표지 유무와 상관없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여러 논의에서 제시된 문장 간 관계는, 한국어에서 연결어미가 표지하는 절과 절 사이의 관계와도 그 의미 영역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한다. 즉 한국어에서는 '이유, 조건' 혹은 시간적 '배경'이나 '연쇄' 등의 관계가 모두 연결어미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5ㄴ)에서 '배경'의 관계는 연결어미 '-는데'를 통해 나타낼 수 있고, (5ㄷ)에서 '이유/연쇄'의 관계는 연결어미 '-어서'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결어미들을 사용하면 "같이 뉴스를 보는 중이었<u>는데</u> 무언가 궁금<u>해서</u> 물어보았다."와 같이 ①~③의 문장들을 특정한 관계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연결어미가 결합한 동사형은 크게 '부동사'라는 술어 하에 묶일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연결어미의 의미와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연결어미는 다양한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데, '방법, 원인, 조건' 등의

관계 중에서 어떤 의미를 표상하느냐에 따라 통사적인 실현 양상(대표적인 예로, 과거시제 표지 '-았/었-'의 결합 양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다음으로 연결어미는 상황에 따라 서로 구별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연결어미는 (ㄱ) 동사·절·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절을 이끌 수도, (ㄴ) 담화의 수사적 구조에 따라 절과 절을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결어미는 그것의 의미나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보이므로 연결어미 목록을 보다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여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은/는'이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들을 그 의미와 기능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2.1.2. '은/는'이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의 추출과 분류

'은/는'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것일까?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를 정리한 바가 없었으므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은/는'이 결합하는 연결어미 목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연결어미 목록을 다음의 두 과정을 거쳐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는 <모두의 말뭉치>에서 제공하는 형태분석 말뭉치를 활용하여 연결어미와 '은/는'이 함께 나타난 사례들을 모두 추출하였다.[8] 두 번째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연결어미로 등재된 219개의 표제어를 하나씩 검토하면서 '은/는'이 결합하는 연결어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때 말뭉치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연결어미 가운데 '은/는'이 충분히 결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결어미 목록에 추가하였다.

그 결과 추출된 연결어미의 목록은 아래 <표3>으로 제시하였다. 연결어미들은 자모순으로 나열하였으며, 어깨번호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대로 표시하였다.

8)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연결어미는 'EC', 보조사는 'JX'로 태깅되어 있으므로, 'EC' 뒤에 '는/JX' 혹은 'ㄴ/JX'가 등장하는 경우를 모두 추출하면 필요한 연결어미들의 목록을 얻어낼 수 있다.

<표 3> ‘은/는’이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

연결어미 목록
-고[25], -고서[3], -고자[11], -게[8], -게끔, -ㄴ다면/-는다면, -다가[3], -다면[2], -도록[5], -라면[2], -러/-으러, -려/-으려, -려고/-으려고, -려면/-으려면, -면[10]/-으면, -면서/-으면서, -아서[2]/-어서[3], -자마자

이하에서는 <표3>에 제시된 연결어미들을 의미와 기능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해 보기로 한다. 그러한 분류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는 ‘은/는’과 연결어미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경향성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1 연결어미의 의미 유형에 따른 분류

먼저 연결어미의 의미 유형에 따라 연결어미를 분류해 보기로 한다. 복수의 절이 맺는 의미 관계를 유형화하는 기준은 연구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Dixon(2009)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을 참고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절과 절이 연결될 때 나타나는 의미는 크게 여덟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아래 <표4>는 절 연결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의미 유형과 함께 영어에서 사용되는 접속 표지를 대표적인 예로 제시한 것이다.

<표 4> 절 연결의 의미 유형(Dixon 2009:43)

의미 분류		영어의 접속사/표지
시간적 관계 Temporal	순차적 관계 Succession	and, then, and then
	상대적 관계 Relative time	after, before, when, since, until, while

조건적 관계 Conditional		if, unless, (then)
결과적 관계 Consequence	원인 Cause	because, since
	결과 Result	therefore, so, and so, for, thus, accordingly, consequently, as a result/consequence
	목적 Purpose	in order that, so that, (in order) to/for, so as
가능한 결과 Possible consequence		in case, lest, because, or, for fear that, otherwise
추가적 관계 Addition	단순 추가 Unordered addition	and
	동일 사건 추가 Same-event addition	and, besides, moreover, in addition
	상술 Elaboration	(영어에는 별도의 표지가 없음)
대조적 관계 Contrast		although, even though, however, nevertheless, still, yet, but, despite, in spite of
대안적 관계 Alternatives	선택적 관계 Disjunction	either, or
	배타적 관계 Rejection	instead of

	제안 Suggestion	rather than
방식 Manner	실제 방식 Real manner	like, in the way that
	가설적 방식 Hypothetical manner	as if, like

주의할 것은, 위의 <표4>가 범언어적으로 발견되는 절 연결의 의미 유형을 나타낸 것이어서 이 여덟 가지의 의미 유형만으로 한국어의 모든 연결어미를 분류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달리 말해 한국어에는 위의 의미 유형 중 어떤 것에도 들어갈 수 없는 연결어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연결어미 '-는데'를 들 수 있다. 이 연결어미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아래 (6)과 같이 등재되어 있는데, 뜻풀이에서 '상관되는 상황'이라는 의미는 <표4>에 제시된 여덟 가지 의미 유형 중 어떤 유형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6) 【-는데, -ㄴ데】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 눈이 **오는데** 차를 몰고 나가도 될까?

한국어는 연결어미가 매우 많고 각각의 연결어미마다 특수한 의미가 있는 만큼,[9] 연결어미들이 나타내는 의미 유형을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9) 문숙영(2016:337)에 따르면, 유형론적 논의에서 한국어는 부동사 표지의 종류가 많은 언어로 거론되어 왔다고 한다. 이는 즉 한국어에 연결어미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이다. 더욱이 König(1995:58)에서는 한국어를 '특화형 부동사'를 가진 언어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연결어미가 이끄는 절이 맥락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 혹은 두 개 정도의 해석을 갖기 때문이라 한다. 종합해보면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그 수가 매우 많고, 각각이 한두 개 정도의 특화된 의미를 나타낸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보조사 '은/는'이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모든 연결어미에 대해 의미 분류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행히도 '은/는'이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는 대체로 Dixon(2009)(혹은 <표4>)에서 제시된 분류를 통해 아우를 수 있다. '은/는'은 대체로 '시간적 관계, 조건적 관계, 결과적 관계, 방식'이라는 네 가지 유형의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아래 <표5>로 제시된 의미 유형과 그에 속한 연결어미만을 다루게 될 것이다.

<표 5> '은/는'이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의 의미 유형

의미 분류		연결어미
시간적 관계 Temporal		-고[25], -고서[3], -다가[3], -아서[2]/-어서[3], -으면서/-면서, -자마자
조건적 관계 Conditional		-다면[2], -ㄴ다면/-는다면, -라면[2], -려면/-으려면, -으면/-면[10]
결과적 관계 Consequence	목적 Purpose	-고자[11], -도록[5], -으러/-러, -으려/-려, -려고/-으려고
	결과 Result	-도록[5], -게[8], -게끔
방식 Manner	실제 방식 Real manner	-게[8]

② 연결어미의 기능에 따른 분류

다음으로 연결어미의 기능과 그에 따른 '은/는'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자. 앞에서 연결어미가 이끄는 절은 (ㄱ) 부사절로서 주절에 내포된 성분으로 쓰일 수도 있

고, (ㄴ) 종속접속절로서 담화의 수사 구조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연결어미의 기능을 이와 같이 파악하는 것은 본고의 논의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미리 말하자면 본고의 주 논제인 '은/는'의 쓰임이 연결어미의 이 두 기능에 따라 갈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결어미와 '은/는'의 결합형이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경우를 제외하면, 연결어미와 함께 쓰인 '은/는'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은/는'이 틀 표지로서 기능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은/는'이 대조 표지로서 기능하는 경우이다. 특히 각 기능마다 어울릴 수 있는 연결어미의 의미 유형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 6> '은/는'의 기능에 따른 분류

'은/는'의 기능	의미 분류		연결어미
(1) 틀 표지	시간적 관계 Temporal		-고[25], -고서[3], -다가[3], -으면서/-면서, -아서[2]/-어서[3], -자마자
	조건적 관계 Conditional		-다면[2], -ㄴ다면/-는다면, -라면[2], -려면/-으려면, -으면/-면[10]
(2) 대조 표지	결과적 관계 Consequence	목적 Purpose	-고자[11], -도록[5], -으러/-러, -으려/-려, -려고/-으려고
		결과 Result	-도록[5], -게[8], -게끔
	방식 Manner	실제 방식 Real manner	-게[8]

그런데 이러한 '은/는'의 쓰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틀 표지 '은/는'이 결합한 연결어미 절은 대체로 종속접속절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대조 표

지 ‘은/는’이 결합한 연결어미 절은 대체로 부사절로 처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은/는’의 기능 차이가 그것이 결합해 있는 절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의 논의에서 차차 살펴볼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연결어미에 결합한 ‘은/는’의 기능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사실만을 짚어두기로 한다. ‘은/는’의 두 기능, 즉 ‘틀 표지’와 ‘대조 표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절을 달리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2.2. 보조사 ‘은/는’의 기능

이 절에서는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은/는’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기존의 ‘은/는’에 관한 논의에서는 ‘은/는’이 명사구에 결합한 경우를 주로 다루었는데, 이때의 ‘은/는’은 대체로 ‘화제’와 ‘대조’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연결어미에 결합한 ‘은/는’을 검토해 보면 특히 ‘화제’의 개념이 보다 넓게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본고에서는 절에 결합한 ‘은/는’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틀 화제’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2.2.1절에서는 ‘은/는’의 기능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본 다음, 이를 기반으로 2.2.2절에서 절 단위에 결합하는 ‘은/는’이 특히 틀 화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찰할 것이다. 그런 다음 2.2.3절에서는 ‘은/는’이 절 단위에 결합하여 대조 표지로 기능하는 경우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2.1. 화제와 대조를 나타내는 ‘은/는’

‘은/는’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정보구조적인 관점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은/는’의 기능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아래 (7)의 간단한 예문만을 통해서도 ‘은/는’의 두 기능에 대한 직관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7) ㄱ. 대조 표지로서의 '은/는'　예 영민이가 승연이는 좋아한다.
ㄴ. 화제 표지로서의 '은/는'　예 영민이는 밥을 먹었다.

이하에서는 '대조'와 '화제'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논의를 간략하게나마 검토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은/는'을 설명하려면 어떤 논의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대조'의 개념을 살펴보면, 전영철(2019:103)은 대조가 '어떤 관심 대상들을 관찰하여 그들 사이의 차이를 포착하는 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대조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며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는 담화에서의 관심 대상 집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관심 대상 집합에서 일부는 특정 속성을 갖는 반면 나머지는 그러한 속성을 갖지 못했거나 속성 유무에 대해 알 수 없음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7ㄱ)의 예문을 보면, 이 발화를 들은 청자는 먼저 담화에서의 관심 대상 집합(예. {승연이, 민지, 지영이, …})을 파악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자는 '승연이' 외에 다른 구성원은 '영민이가 좋아하는' 속성을 지니지 않거나 또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파악함으로써 대조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화제(topic)' 개념에 대해 검토해 보자. 이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때로는 매우 논쟁적이지만, 주로 '대하여성(aboutness)'과 '구정보(given information)'가 이를 정의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화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핵심 요소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하여성'이라는 핵심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요소는 여러 논의에서 화제가 '문장의 언급 대상(what the sentence is about)'으로 정의되어 온 것과 관련이 왔다.[10] 즉 어떤 요소에 '대하여'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그것을 수식하고 있다면 그 요소가 바로 화제라는 것이다. Lambrecht(1994)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명제가 어떤 지시체에 대하여 청자의 지식을 증가시킨다면 그 지시체가 바로 화제라고 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화제가 대하여성을 지닌다는 관점은 국내 여러

10) 'aboutness'는 '대하여성' 혹은 '언급대상성'으로 번역된다. 본고는 '대하여성'이라는 번역어를 채택하였다.

논의에서도 채택된 바 있다(박진호 2015, 전영철 2006/2019, 함병호 2021 등). 최윤지(2016)는 화제를 '정언판단(categorical judgement)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또한 대하여성의 개념을 포함하는 정의라는 점에서 유사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11]

다음으로 '구정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구정보란 담화 맥락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정보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화제는 구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Lambrecht(1994:165)에 따르면, 어떤 요소가 화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당 요소의 지시체가 맥락상 이미 활성화된 상태(active)이거나 적어도 맥락상 접근 가능한 상태(accessible)여야 한다. 반대로 맥락에서 활성화된 적이 없는 지시체이거나 완전히 새로운 지시체라면 화제로 실현되기 어려운데, 이들을 화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언어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한다.[12] 이처럼 화제로의 접근이 용이한 순서대로 지시체의 활성화 상태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은 위계가 형성된다.

(8) **The topic accessibility scale** (Lambrecht 1994:165에서 인용)

active	most acceptable
accessible	|
unused	|
brand-new anchored	↓
brand-new unanchored	least acceptable

11) 정언판단의 대상은 대하여성을 지니되, 그러한 대상에 대하여 실체를 확립하는 인식 행위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한다. 한국어에서는 문두에서 '은/는'이 결합한 요소가 정언판단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개는 고양이를 쫓고 있다'라는 문장에서는 '개'가 정언판단의 대상이 되며, 'x가 달리고 있고 x가 개다'라는 판단에 더해 실체 x를 확립하는 인식 행위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최윤지 2016:150-151).

12) Lambrecht(1994:4.4.4절)에 따르면, 위계에서 아래에 위치한 요소들을 화제로 인상시키는 데에는 다음의 두 전략이 사용된다.
① 제시 구문 (presentational construction)
② 좌분리/우분리 구문 (left- and right-detachment)
한국어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의 지시체를 화제로 끌어들이는 경우, 'X 말이야/있잖아' 등의 특수한 구성이 사용된다. '그런데 철수 있잖아, 걔 내년에 유학 간대.'와 같은 문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전영철(2005, 2019)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제는 구정보의 일부이되 대하여성을 지니는 정보로 설명된다.[13] 이에 따르면 문장은 발화 전에 청자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와 이미 알고 있던 정보로 양분되는데, 이때 청자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를 관계적 구정보(relationally old information)라고 한다.[14] 한국어에서는 '은/는'이 관계적 구정보 중에서도 대하여성을 지니는 요소에 결합하므로, 담화에 새로이 도입되는 지시체에는 '은/는'이 결합하기 어렵다.[15] 이를 (9)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9) ㄱ. A : 승연이 어디 갔어?
B : 승연이는 집에 갔어.
ㄴ. A : 내 머리에 뭐가 묻어 있어?
B : 너 머리에 {껌, 껌이, *껌은} 묻어 있어.

위 (9ㄱ)에서 B의 대답 중 '승연이는 ... 갔어'는 A의 입장에서 볼 때 관계적 구정보에 해당한다. 이는 A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때 '승연이는 ... 갔어' 중 '승연이는'은 문장 나머지 부분의 언급 대상이자 대하여성을 지니기 때문에 화제로 볼 수 있다. 반대로 (9ㄴ)에서 '껌'은 담화에서 새로이 도입되는 정보이므로

---

13) 최윤지(2019)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보인다. 이에 따르면 문장은 전제와 초점으로 나뉘며 전제에 화제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장에서 '나는'은 구정보인 전제에 포함된 요소이자 대하여성을 지니므로 화제로 해석된다.
예 Q : 너는 방에서 뭐했어?
A : [[나는]$_{화제}$ 방에서]$_{전제}$ [자고 있었어]$_{초점}$. (최윤지 2019ㄱ:317)

14) 전영철(2005)에 따르면 관계적 구정보는 관계적 신정보와 대립을 이루는데, 이러한 개념은 지시적 신정보-지시적 구정보의 대립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15) 그러나 박진호(2015)에 따르면, 고대국어에서는 담화에 새로운 화제를 도입할 때도 '은/는'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고대국어에서는 '은/는'이 새로이 도입된 화제에도 결합하다가, 14세기 무렵 주격조사 '이'가 그러한 기능을 대신하게 되면서 '은/는'이 화제 도입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 a. 고대 한국어 : 生死路隱 / 此矣 有阿米 次肹伊遣 <祭亡妹歌>
b. 현대 한국어 :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은} 여기 있음에 (박진호 2015:386)

'生死路'는 담화상 새로이 도입되는 요소이므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은/는'을 쓸 수 없지만, 고대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요소에도 '은'이 결합한 모습을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구정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화제로도 볼 수 없을 것인데, 이에 화제 표지 '은/는'이 결합하면 전체 문장이 어색해져 버린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은/는'은 주로 정보구조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대조 혹은 화제 표지로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때 어떤 요소가 화제인지를 판단할 때는 대하여성과 구정보라는 자질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한국어에서의 화제 연구가 '은/는'이 명사구에 결합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도 화제가 특히 '대하여성'이라는 자질을 중심으로 하여 정의된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태인(2019:479)에 따르면 대하여성은 '고정된 실체 혹은 윤곽이 있는 대상에 부여될 수 있는 성질'이며, 명사구는 '고정된 실체'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명사구와 '은/는'의 결합은 화제 연구의 대상으로 적절했고, 이에 따라 여러 화제 관련 논의에서 특히 주목받아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에 비해 '은/는'이 연결어미, 혹은 절 단위에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은/는'은 명사구에 결합할 때와 달리 연결어미에 결합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은/는'이 결합할 수 있는 연결어미 수 자체가 많지 않다.[16] 둘째, 연결어미와 함께 쓰이는 '은/는'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언제든 생략 가능한 경우가 많다. 셋째, '은/는'이 절 단위에 결합할 때는 정보구조적 관점에서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음 (10)의 예문을 보자.

(10) ㄱ. 영감은 어느 틈에 성냥을 꺼내 불을 그어서(는) 대령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ㄴ. 그는 마치 못 볼 것을 보고 만 사람처럼 이를 악물었다가(는)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다.
ㄷ. 나는 그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혹시라도 너한테 나쁜 일 생기면 나 못 산다.

16)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200여 개의 연결어미 중, '은/는'이 결합 가능한 어미는 대략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위 예문들에서 ‘은/는’은 모두 생략이 가능하며, ‘은/는’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문장 전체에 어떤 의미가 더해지는 것인지도 알기 어렵다. 또한 ‘은/는’이 결합해 있는 선행절을 대조의 대상이라거나, 구정보이고 대하여성을 지닌 대상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10ㄱ)을 보면, ‘영감이 어느 틈에 성냥을 꺼내 불을 그은’ 것은 전체 맥락을 확인하였을 때 구정보가 아니라 새롭게 제시되는 정보에 해당했다. 또한 문장의 나머지 부분, 즉 ‘대령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선행절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인지도 확언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그간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은/는’은 매우 잉여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던 듯하다. 그러나 ‘은/는’이 절 단위에 결합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하며, 절 단위에 결합한 모든 사례를 모아 보면 ‘은/는’은 꽤 일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은 ‘은/는’의 기능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데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고는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은/는’을 [영역 한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로 파악하고자 한다. [영역 한정]의 기능은 Chafe(1976)에서 제시한 ‘틀 화제’ 개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틀 화제’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틀 화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개념이 왜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은/는’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것인지는 절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2.2.2. 틀 화제 표지로서의 ‘은/는’

Chafe(1976)에 따르면,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정보이고 대하여성을 지닌 요소가 topic(화제$_1$)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중국어 같은 언어에서는 이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으로 topic(화제$_2$)을 이해하지는 않는다. 즉 영어에서의 ‘화제$_1$’와 중국어에서의 ‘화제$_2$’가 서로 다른 개념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17] Chafe는 아래

17) Chafe(1976)에서는 영어에서의 ‘화제’와 중국어에서의 ‘화제’가 별도의 개념임을 지적하지만, 이 둘을 가리키는 데에 동일한 술어, 즉 ‘topic’을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Chafe가 사용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아래첨자를 사용하여 구별하도록 하겠다.

(11)의 중국어 예문을 통해 이에 대해 설명한다.

(11) nèi-zie shùmu shù-shēn dà.
those tree tree-trunk big (Chafe 1976:50에서 인용)

위 예문에서 문두에 위치한 *nèi-zie shùmu* 'that tree'는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하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Chafe에 따르면 *nèi-zie shùmu*는 문장 나머지 부분의 해석 영역을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다. 즉 '나무 기둥이 크다(*shù-shēn dà* 'tree-trunk big')라는 서술이 '저 나무들'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어에서는 문두의 화제$_2$ 요소가 해석 영역 한정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대하여성을 지닌 명사구뿐 아니라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요소까지도 문두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따라 Chafe는 화제$_2$를 문장 전체의 해석 틀(frame)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틀 화제'로 부르고 있다.

Li&Thompson(1976)에서는 Chafe(1976)의 논의를 받아들여, 세계 여러 언어 중 화제$_2$를 문법적으로 부호화하는 언어들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한 언어는 '화제$_2$ 부각형(topic-prominent) 언어'로 불리는데, 이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2) 화제$_2$를 문법적으로 나타내는 언어들의 특징(일부)
① 화제$_2$를 표면에서 부호화하는 장치가 존재한다. 그러한 장치는 어순이 될 수도 있고, 형태 표지가 될 수도 있다.
② 피동 구성이 활발히 사용되지 않는다.
③ 가주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소위 '이중 주어' 구성이라 할 수 있는 예들이 흔히 발견된다.
⑤ 동일 지시되는 요소가 생략될 때는 주어가 아닌 화제$_2$ 요소가 생략된다.
⑥ 동사 문말 언어인 경우가 많다.

ㄱ. 영어에서의 'topic' (English style topic) : 화제$_1$
ㄴ. 중국어에서의 'topic' (Chinese style topic) : 화제$_2$

⑦ 화제$_2$로 실현될 수 있는 요소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Li&Thompson에서는 한국어 또한 화제$_2$가 부각되는 언어 중 하나로 분류한다.[18] 이러한 견해를 따라 김민국(2019:153) 또한 한국어를 화제$_2$ 부각형 언어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언어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어는 Li&Thompson이 제시한 화제$_2$ 부각형 언어들의 특징을 대체로 충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어에는 화제$_2$를 표면에서 부호화하는 장치로서 형태 표지 '은/는'이 존재하고, 가주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위 '이중 주어 구성'이라 할 만한 문장들이 흔히 사용되기 때문이다. "영민이는 손가락이 길다."와 같은 문장이 그러한 예이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문장의 끝에 위치하며, '은/는'이 결합하여 화제$_2$로 실현될 수 있는 요소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즉 동사의 행위주나 피동주 등 특정한 역할을 지니는 요소만이 화제$_2$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19]

이처럼 한국어가 화제$_2$ 부각형 언어로서의 특징을 상당 부분 지니고 있다면, '은/는'은 바로 화제$_2$를 나타내는 표지라 할 수 있다. Li&Thompson에서는 화제$_2$(혹은 틀 화제)의 여러 문법적 특징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어에서 '은/는'이 결합한 요소 또한 아래의 기준들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13) 주어와 대비되는 화제$_2$의 특징(일부)
① 동사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다.
② 문두에 위치한다.
③ 만약 명사구가 화제$_2$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명사구는 한정적(definite)이어야 한다.
④ 서술 영역을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18) 정확히는 화제$_2$ 부각형 언어로서의 특징과 주어 부각형 언어로서의 특징을 모두 지닌 언어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어에는 화제 표지 '은/는'이 존재함과 동시에 주어 표지 '이/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19)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위주가 화제로 실현될 수도 있고, 행위의 대상이 화제로 실현될 수도 있으며, 혹은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요소가 화제로 실현될 수도 있다.
예 (행위주) 철수는 아까 식탁 위에 있던 빵을 먹었다.
(대상) 아까 식탁 위에 있던 빵은 철수가 먹었다.
(장소) 식탁 위에는 빵이 놓여 있다.

위에 제시된 특징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은/는’이 결합하는 요소는 동사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은/는’은 동사의 직접 논항으로 볼 수 없는 요소와도 결합한다. 이는 예를 들어 ‘영민이는 손가락이 길다.’와 같은 문장에서 ‘영민이’가 ‘길다’의 직접적인 논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장에서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은/는’은 문두에서 가장 흔히 실현되며, ‘은/는’이 결합한 명사구는 대체로 한정적(definite)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명사구가 한정적이라는 것은 곧 해당 명사구가 가리키는 지시체를 화·청자 모두 확인할(identify)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누군가가/*누군가는} 내 책상에 쪽지를 두고 갔어.’와 같은 문장에서 발견되는 문법성의 차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누군가’는 화·청자가 확인할 수 없는 대상을 지시하므로 한정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은/는’이 결합하여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20]

마지막으로 ‘은/는’은 문장 나머지 부분의 서술 영역을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어 논의에서 ‘은/는’의 [영역 한정] 기능은 특히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즉 시공간을 나타내는 명사구에 부사격조사가 결합해 부사어가 형성되고 이에 다시 ‘은/는’이 결합하였을 때, 이러한 ‘은/는’을 틀 화제 표지로 처리해 왔던 것이다(김태인 2019, 함병호 2018/2021). 특히 함병호(2021:147−148)에서는 [명사구+부사격조사] 구성에 ‘은/는’이 결합하는 경우에 한해 ‘은/는’을 틀 화제 표지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아래 (14)의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그러한 틀 화제 개념에 전형적으로 부합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14) ㄱ. [시간] 화요일에는 치과에 갔다 왔다.
→ 화요일 : ‘치과에 갔다 온’ 사태의 시간적 영역

20) 다만 전영철(2013)에서도 지적하였듯, 한국어에서는 ‘은/는’이 반드시 한정적(definite)인 명사구에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서는 특정적(specific)인 명사구, 즉 청자는 모르고 화자만 알고 있는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구에도 ‘은/는’이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내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은 90이 넘었는데도 정정하시다.
위의 예문에서 ‘내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은 청자의 입장에서 확인(identify)할 수 없는 지시체이므로 한정적이지 않지만, 화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지시체이므로 특정적이다. 따라서 화제$_2$로 실현되는 명사구의 지시적 특성은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ㄴ. [공간]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붐빈다.
→ 백화점 : '사람들이 붐비는' 사태의 공간적 영역

그러나 틀 화제로서의 '은/는'이 반드시 [명사구+부사격조사] 단위에 결합해야만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은/는'은 시공간 부사어뿐 아니라 절 단위에 결합할 때도 동일하게 영역 한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은/는'이 연결어미 절에 결합하는 사례는 앞의 (10) 예문에서도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아래 예문에서는 모두 '-어서/아서', '-다가', '-(으)면' 등의 연결어미에 '은/는'이 결합하여 후행절의 성립 영역을 한정하고 있다.

(10) ㄱ. 영감은 어느 틈에 성냥을 꺼내 불을 그어서는 대령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ㄴ. 그는 마치 못 볼 것을 보고 만 사람처럼 이를 악물었다가는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다.
ㄷ. 나는 그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혹시라도 너한테 나쁜 일 생기면 나 못 산다.

이때 연결어미에 결합한 '은/는'이 후행절의 성립 영역을 한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백인영(2019)의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이에서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서'에 '은/는'이 결합한 사례를 들며 '은/는'을 틀 화제 표지로 처리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제시된 구체적인 예를 가져오면 아래와 같다.

(15) ㄱ. 뭍에 대어 있는 배 앞에 가서는 우뚝 서더니, 기침을 한 번 하고는 뒤를 휙 돌아보고, (...) (백인영 2019:279에서 인용)

이에 따르면, 위의 문장은 어떤 이가 '뭍에 대어 있는 배 앞에 간' 이후의 시간으로 해석 영역이 한정되고, 그러한 시간 영역 내에서 '우뚝 선'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은/는'은 후행절의 해석 영역이 한정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해석은 '은/는'과 연결어미가 결합한 대부분의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ㄱ) '영감은 어느 틈에 성냥을 꺼내 불을 그어서는 대령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와 같은 문장은 마찬가지로 '성냥을 꺼내 불을 그은' 이후의 시간으로 영역이 한정된 후, 그러한 시간 영역에서 '대령 앞으로 내민'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21]

종합해보면, '은/는'이 명사구에 결합하여 화제 표지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명사구는 구정보와 대하여성이라는 두 가지 자질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절 단위에 결합하는 '은/는'은 반드시 구정보여야 한다거나 대하여성을 지닌 선행절에만 결합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신 '은/는'이 절 단위에 결합하였을 때는 후행절의 해석 영역을 한정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Li&Thompson(1976)에서 제시하였듯이 후행절의 해석 영역을 한정하는 요소를 문법적으로 부호화하는 언어들이 여럿 존재하며, 한국어도 그러한 언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위의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이상의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은/는'을 틀 화제 표지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은/는'의 이러한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리 말하자면 추가로 검토할 세 가지 사항은 모두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은/는'과 정보구조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다. '은/는'이 정보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인 만큼, [영역 한정]의 기능과 정보구조 간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항은 '은/는'이 구정보이고 대하여성을 지닌 명사구에 결합하는 경우와, 절 단위에 결합하여 [영역 한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점이다. 즉 '은/는'이라는 하나의 형태가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기능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유보하고자 한다. 이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은/는'의 전반적인 기능뿐 아니라 정보구조에 대해서도 더욱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데, 이는 본고에서 논하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따라서

21) 더 자세한 예는 3.1절에 제시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차선책으로 ‘은/는’이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경우만 집중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은/는’이 [영역 한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정보구조적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겠으나, ‘은/는’이 절에 결합하는 현상과 정보구조에 대한 통합적인 해석은 추후의 논의를 기약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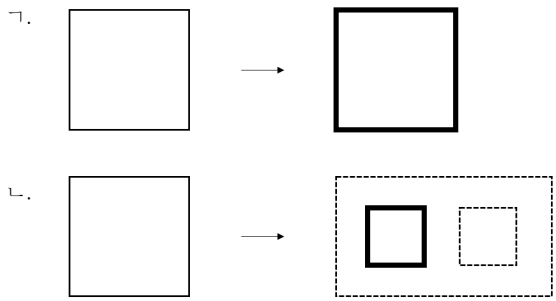
두 번째 사항은 ‘은/는’이 결합한 선행절이 맥락에 따라 구정보이고 대하여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본고가 ‘은/는’을 [영역 한정]의 요소로 파악한다고 해서, ‘은/는’이 구정보이고 대하여성을 지닌 선행절과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를 아래의 (16)에서 확인해 보기로 한다.

(16) ㄱ. A : 어제 <u>차 타고 가면서</u> 둘이 뭐 했어?
B : <u>차 타고 가면서는</u> 서로의 직장생활 얘기를 했지.
ㄴ. A : 승연이는 뭐 하고 지내?
B : 걔 <u>주식으로 돈 잔뜩 벌고는</u> 얼마 전에 해외로 떴어.

위 (16ㄱ)에서 ‘차 타고 가면서’라는 선행절은 화자와 청자 간에 이미 공유된 정보를 나타내므로 관계적 구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관점에 따라서는 B의 대답이 차를 타고 가는 시간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를 더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선행절이 관계적 구정보임과 동시에 대하여성을 지닌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6ㄱ)와 같은 경우에도 ‘은/는’이 [영역 한정]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즉 담화 맥락상 ‘은/는’이 결합한 선행절이 구정보이고 대하여성이라는 자질을 갖는다고 해서 (16ㄱ)과 (16ㄴ)의 ‘은/는’을 서로 다른 표지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두 문장에서 ‘은/는’은 모두 후행절 사태가 일어난 시간적 영역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절 단위에 결합하는 ‘은/는’은 맥락상 구정보인 절에 결합할 수도 있고 신정보인 절에 결합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일관되게 [영역 한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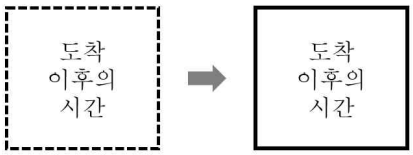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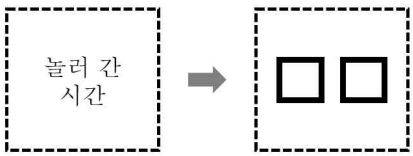
세 번째 사항은 ‘은/는’이 영역을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대조의 의미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는 박철우(2015)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은/는’의 [영역 한정] 기능으로 인해 대조의 의미가 드러날 수도, 드러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점을 다음의 <그림1>로 설명한다.



<그림1> ‘은/는’이 한정하는 영역 (박철우 2015:288)

위 그림에 따르면 (ㄱ)에서와 같이 ‘은/는’이 주어진 영역 전체를 한정하면 대조의 해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ㄴ)에서처럼 대조의 대상이 상정될 수 있는 맥락에서 ‘은/는’이 특정한 영역을 한정하면 대조의 해석이 발생한다. 이는 아래의 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ㄱ. A : 우리 숙소 도착해서 뭐 할까? B : 도착해서는 밥부터 먹으러 가자.	
ㄴ. A : 우리 놀러 가서 뭐 할까? B : 점심 먹고는 수영이나 하고, 저녁 먹고는 바다 보러 가자.	

위의 예에서 (ㄱ)의 대화는 도착 이후의 시간대를 주된 관심 영역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는’을 사용하여 관심 영역 전체를 아우르면 대조의 의미가 발생

하지 않는다. 반면 (ㄴ)의 대화에서는 주된 관심 영역이 놀러 간 시간대에 해당하는데, ‘은/는’이 ‘점심 먹은 후’ 혹은 ‘저녁 먹은 후’ 등 부분적인 영역을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조의 의미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수영이나 하는 것’이 ‘점심 먹은 이후’라는 부분적인 시간 영역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외의 시간 영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결국 ‘은/는’이 연결어미에 결합할 때 [영역 한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은/는’이 어떤 영역을 한정하느냐에 따라 대조의 해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은 담화 맥락이나 영역 한정의 대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은/는’의 쓰임을 파악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2.2.3. 대조 표지로서의 ‘은/는’

임동훈(2012:252)에 따르면, 문장에서 실현된 모든 요소는 같은 자리에 올 수 있는 여러 후보 중 하나가 선택되어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선택 관계를 중요하게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를 사용하는데, ‘은/는’도 그러한 관계를 표시하는 보조사 중 하나이다. 아래의 (17)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17) 영민이가 <u>승연이는</u> 좋아한다.

```
          ┌          ┐
          |   민수   |
영민이가  |   승연이 | 는  좋아한다.
          |   지수   |
          └   …      ┘
```

위의 발화를 들은 청자는 ‘은/는’으로 인해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여러 후보의 집합({민수, 지수, …})을 상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후보 중 단 하나의 요소만이 선택되었음을 파악하여, 후보 집합에서의 다른 요소들은 선택 관계에서 배제되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처럼 청자는 ‘승연이’ 외에 다른 요소들이 선택 관계에

서 배제되었음을 파악함으로써 ‘승연이’와 다른 요소들이 대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는’이 대조 표지로 사용될 때는 대안 집합(alternative set)이 도입된다. 대안 집합이란 실현된 요소에 대해 잠재적 대립항의 역할을 하는 요소들의 집합을 의미한다(임동훈 2015:339). 대안 집합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문장 표면에 실현된 성분과 비교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의미 유형을 지닌다. 한국어에서는 보조사에 의해 대안 집합이 도입되는데,[22] (17)의 경우에는 보조사 ‘은/는’이 대안 집합 {민수, 지수, …}를 도입하고 있다. 해당 집합도 마찬가지로 표면에 실현된 성분인 ‘승연이’와 동일한 유형의 후보 집합, 즉 명사구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후보들의 의미 유형은 항상 명사구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은/는’이 어떤 요소에 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18)의 문장에서 도입되는 대안 집합은 ‘선량하게’와 동일하게 부사절로 이루어져 있다.

(18) 철수는 선량하게는 보인다. (그러나 믿음직스럽게는 보이지 않는다.)

	⌜ 믿음직스럽게 ⌝		
철수는	⎪ 선량하게 ⎪	는	보인다.
	⌞ … ⌟		

Vallduví&Vilkuna(1998:83)에 따르면, 대안 집합은 일종의 양화 영역(quantification domain)으로서 의미론적 연산의 대상이 된다. ‘은/는’의 경우에는 문장에서 실현된 요소 외에 다른 요소들을 소극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적 연산을 수행하는데,[23] 이때의 배제 대상이 바로 앞서 살펴본 {민수, 지수, …} 혹은 {믿음직스럽게, …}와 같은 대안 집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는’과 같은 초점사가 어떤 요소를

22) 임동훈(2015:344)에 따르면, 대안 집합이 반드시 맥락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요소들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에서는 “채점도 공부가 되네.”라는 문장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때 맥락에서 공부가 되는 다른 행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조사 ‘도’를 통해 화자는 공부가 되는 다른 행위들이 존재함을 암시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보조사는 대안 집합을 생성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한다.

23) 이와 관련하여 임동훈(2012/2015)를 참조할 수 있다.

초점화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4] 초점화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따라 대안 집합이 다르게 설정되고, 그로 인해 배제의 대상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17)의 예문을 다시 보면, '영민이가 승연이는 좋아한다.'에서의 '은/는'은 바로 앞에 놓인 '승연이'를 초점화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유형으로 구성된 {민수, 지수, …} 집합이 배제된다. 그러나 초점사가 언제나 선행하는 요소만을 초점화하는 것은 아니다. 초점화 성분을 명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보이기 위해 잠시 보조사 '도'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9) 하늘이는 공부도 잘한다.
ㄱ. '도'가 초점화하는 대상이 '공부'인 경우
→ 대안 집합 : {운동, 노래, 게임, …}
ㄴ. '도'가 초점화하는 대상이 '공부를 잘한다'인 경우
→ 대안 집합 : {성격이 좋다, 친구가 많다, …}
(정우헌 2019:24에서 수정 인용)

정우헌(2019)에서는 보조사 '도'가 초점화하는 대상이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면서 위의 예를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에서 보조사 '도'는 맥락에 따라 목적어인 '공부'를 초점화할 수도, 동사구인 '공부를 잘한다'를 초점화할 수도 있다. 만약 초점화의 대상이 '공부'라면 대안 집합은 {운동, 노래, 게임, …} 등 '공부'와 동일한 의미 유형을 지닌 요소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19ㄱ) 문장의 의미는 '하늘이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한다.'와 같이 파악될 수 있다. 반대로 '공부를 잘한다'가 초점화되는 경우라면 대안 집합은 {성격이 좋다, 친구가 많다, …}처럼 동사구 단위의 요소로 구성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19ㄴ)은 '하늘이는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성격이 좋기도 하다.' 등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초점화 대상이 무엇이냐에

24) 여기서 '은/는'이 어떤 성분을 초점화한다고 할 때의 '초점'이 관계적 신정보를 의미하는 '초점'과는 다른 개념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적 신정보로서의 '초점'은 문장을 새로운 정보로 만들어주는 성분으로 정의되나(최윤지 2016:46), '은/는'이 초점화하는 성분이 언제나 관계적 신정보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영철(2019)에 따르면 대조를 나타내는 '은/는'은 관계적 구정보인 화제에 결합할 수도 있고, 관계적 신정보인 초점에 결합할 수도 있다.

따라 문장 전체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보조사를 분석할 때에는 초점 성분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도'와 사정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은/는'이 대조 표지로 쓰일 때도 이것이 어떤 단위에 결합해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임동훈(2012)에 따르면 '은/는'은 자신이 초점화하는 대상의 내부 요소에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초점화하는 대상 내부에 있는 요소라고 하더라도, 그 요소의 정보적 가치가 크다면 '은/는'이 위치를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이 깨끗은 하다.'와 같은 문장에서 '은/는'은 본래 [깨끗하다] 전체를 초점화하기 위해 쓰였지만 가장 정보적 가치가 큰 '깨끗'으로 자리를 옮겨 실현되어 있다. 또한 '나는 비싼 스테이크를 먹어 보기는 했다.'와 같은 문장이 '나는 비싼 스테이크를 먹어는 보았다.'로 실현될 수 있는 것도 '은/는'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한 결과이다. '은/는'의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가 어떤 성분에는 결합이 가능하고 어떤 성분에는 결합이 불가능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3.2.1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종합해보면 '은/는'은 대조 표지로 쓰일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초점화되는 성분과 동일한 의미 유형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대안 집합이 도입된다. '은/는'이 어떤 성분을 초점화하느냐에 따라 도입되는 대안 집합이 달라지므로 초점화 성분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은/는'이 대조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은 [영역 한정]의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의 2.2.2절에서 '은/는'은 틀 표지로 사용될 경우 후행하는 절의 해석 영역을 한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은/는'의 대조 의미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영역 한정]의 기능이 화용적 원리에 의해 배제 함축을 발생시키기 쉽다는 데에서 비롯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Horn(1984)을 참조하고자 한다. Horn은 다음 두 가지의 '대화의 원리'를 제시하며, 대화 참여자들이 원리를 지킴에 따라 언어 사용에서 여러 함축이 발생함을 설명한다.[25]

---

25) 대화의 원리를 처음 제시한 것은 Grice(1975)였다. 이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원리를 대화에서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인 격률로 보았다.

(20) 1. **Q-원리** (청자 중심)

대화에 기여하는 바가 충분하도록 하라. 즉 당신이 말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말하라. (단, R이 주어져 있어야 한다.)

2. **R-원리** (화자 중심)

대화에 기여하는 바가 필수적이도록 하라. 즉 말해야 하는 것 이상을 말하지 말라. (단, Q가 주어져 있어야 한다.)

(Horn 1984:13에서 인용)

먼저 Q-원리는 대화에서의 충분조건을 가리킨다. Q-원리에 따르면 p임을 말하는 것은 곧 p가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의 최대임을 말하는 것과 같다. 반대로 R-원리는 필요조건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르면 p임을 말하는 것은 p 이상의 것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상대방이 소금을 건네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소금 좀 건네줄 수 있어?'라고 묻는 것은, 능력의 유무를 묻는 것 이상의 함축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능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질문하는 것은 R-원리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대화 참여자들이 원리를 지킨다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질문은 발화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자는 '소금 좀 건네줄 수 있어?'에서 말해진 것 이상의 함축이 있음을 추론해내게 된다.

Horn의 두 원리는 아래 (21)의 언어 사용에서 발생하는 함축을 처음으로 설명할 수 있게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Clark 2013:189).

(21) A : Some of the students enjoyed the lecture.

위의 문장에서 'some'은 언제나 'not all'이라는 함축을 동반한다. 그 이유에 대해 Horn은 대화 참여자들이 대화의 원리를 지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A의 발화

ㄱ. 질의 격률	ㄴ. 양의 격률
ㄷ. 관계의 격률	ㄹ. 태도의 격률

Grice 이후의 화용론은 위의 네 가지 격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Horn(1984)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Grice의 네 가지 격률을 Q-원리, R-원리 두 가지로 축소한 것이다.

를 들은 청자는 A가 Q-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A가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을 말한 것이라 추론한다. 따라서 청자는 'some'을 넘어서는 해석, 즉 '모두가 강의를 즐겼다'는 해석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26]

이러한 함축은 '은/는'과 관련하여서도 유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문장에서 실현된 모든 요소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같은 자리에 올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선택된 것이다. 그런데 '은/는'을 사용하여 해당 요소로 해석이 한정된다는 것을 유표적으로 드러낸다면, 청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은/는'의 쓰임을 Q-원리에 입각하여 해석하게 된다. 즉 청자는 화자가 '은/는'을 사용한 것이 Q-원리를 지키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은/는'이 결합한 요소가 바로 화자가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요소라고 추론하게 되는 것이다.[27] 그리하여 결국 같은 자리에 올 수 있을 만한 다른 요소들은 Q-원리에 의해 해석에서 배제된다는 대조 함축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은/는'이 대조의 해석을 지니는 것은 [영역 한정]의 기능으로부터 대조 함축이 자주 발생하면서, 그러한 함축이 굳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은/는'은 해석 영역을 한정한다는 본연의 기능으로 인해 대조의 함축을 쉽게 발생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대안 집합 내 다른 요소들을 배제한다는 '은/는'의 대조 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26) 다만 Noveck&Sperber(2007)에서는 Horn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Horn처럼 일반적인 대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화용 이론들에서는, 그러한 함축이 모든 맥락에서 '기본적으로(default)' 발생한다고 본다. 반대로 Noveck&Sperber 등이 주창하는 관련성 이론에서는 함축이 맥락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파악하므로 '기본적으로' 함축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서는 또한 일반적인 대화의 원리를 설정하는 것이 항상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Noveck&Sperber 2007:209-210).

27) 이러한 사실은 '은/는'이 운율적 돋들림을 동반할 때 특히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화자가 '은/는'에 강세를 둠으로써 '은/는'이 중요한 정보임을 나타낸다면, 청자는 Q-원리에 입각하여 '은/는'의 [영역 한정] 기능이 문장의 해석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상황에서 '은/는'이 억양을 동반하느냐 동반하지 않느냐에 따라 B의 대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A : 근데 철수 어디 갔어?
B : 철수**는** 집에 갔어.
→ '은/는'이 운율적 돋들림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조의 의미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운율적 돋들림이 동반되면 '은/는'의 쓰임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되어, 철수 외에 다른 친구들은 배제된다는 대조의 의미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은/는’이 틀 표지로 쓰일 때나, 대조 표지로 쓰일 때나 해석 영역을 한정한다는 기능이 유지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은/는’이 결합할 수 있는 연결어미의 부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은/는’의 [영역 한정] 기능이 연결어미 부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3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연결어미와 ‘은/는’의 공시적 결합

이 장에서는 연결어미에 ‘은/는’이 공시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를 가능한 상세하게 유형화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미리 말하자면, 틀 표지로서의 ‘은/는’이 결합할 수 있는 연결어미와 대조 표지로서의 ‘은/는’이 결합할 수 있는 연결어미는 서로 다른 성질을 보인다. 이에 따라 3.1절에서는 틀 표지가 결합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루고, 3.2절에서는 대조 표지가 결합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룰 것이다.

3.1. 틀 표지 ‘은/는’이 결합 가능한 경우

앞의 2.1절에서는 틀 표지 ‘은/는’이 대체로 종속접속절에 결합하며, 특히 시간 및 조건의 연결어미와 어울린다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이때 ‘은/는’이 틀 표지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주절의 해석 영역을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틀 표지로서의 ‘은/는’이 어째서 시간이나 조건의 연결어미와만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하에서는 틀 표지 ‘은/는’이 결합 가능한 구체적인 연결어미들을 제시하고 어떤 이유로 그러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3.1.1. 틀 표지가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의 특징

2.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숙영(2019ㄴ)에서는 연결어미가 (ㄱ) 담화의 수사적 구조에 따라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기능과 (ㄴ) 동사·절·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절을 이끄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특히 연결어미가 (ㄱ)의 기능을 하는 경우, 즉 접속절을 이끄는 경우에 대해서이다. 틀 표지 ‘은/는’이 결합해 있는 절은 대개 종속접속절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틀 표지 ‘은/는’이 결합할 수 있는 연결어미 목록을 앞에서 제시한 바 있지만, 다시 제

시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 7> 틀 표지 '은/는'이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

'은/는'의 기능	의미 분류	연결어미
틀 표지	시간적 관계 Temporal	-고[25], -고서[3], -다가[3], -면서/-으면서, -아서[2]/-어서[3], -자마자
	조건적 관계 Conditional	-다면[2], -ㄴ다면/-는다면, -라면[2], -려면/-으려면, -면[10]/-으면

담화의 수사적 구조에 따른 절 간의 관계가 문법적 수단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점은 Longacre(200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절과 절은 여러 의미 관계로 연결되면서 담화를 형성한다. 이때 절과 절이 상대적으로 응축되어 뭉치게 되면 하나의 문장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보다 느슨하게 연결되면 개별 문장으로 실현되어 문단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절과 절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의미가 얼마나 응집되어서 혹은 느슨하게 표현되는가는 언어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Longacre(2007:377-386)는 절과 절 사이의 여러 관계를 아래의 (1)과 같이 크게 아홉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1) ㄱ. **결합(Conjoining)**
- 연결(Coupling) : 심층의 and 관계
- 대조(Contrast) : 심층의 but 관계
- 비교(Comparison)

ㄴ. **대안(Alternation)** : 심층의 or 관계

ㄷ. **시간(Temporality)**
- 연쇄(Sequence) : 심층의 and then 관계

- 겹침(Overlap) : 심층의 at the same time, meanwhile 관계

ㄹ. **함의(Implication)**

- 조건(Conditionality)
- 반사실(Counterfactuality)
- 원인(Causation)

ㅁ. **양보(Frustration)**[28]

ㅂ. 반복(Paraphrase)

ㅅ. 수식(Illustration)

- 비유(Simile)
- 예시(Exemplification)

ㅇ. 직시(Deixis)

ㅈ. 인용(Attribution)

이 중 한국어에서 연결어미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관계는 위의 ㄱ~ㅁ에 해당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ㄱ)의 하위 유형인 '연결'은 한국어에서 연결어미 '-고'를 통해 표현될 것이다. 또한 연결어미 '-거나'는 (1ㄴ) 대안 관계를, '-고서, -다가, -아서/어서' 등은 (1ㄷ) 시간적 연쇄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으)면'은 (1ㄹ) 조건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미이며, (1ㅁ) 양보 관계는 연결어미 '-어도/아도, -지만'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틀 표지 '은/는'과 관련된 논의로 다시 돌아오면, 2.2.1절에서 틀 표지는 주절의 해석 영역을 한정한다는 점을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영역 한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은/는'은, 연결어미를 통해 표시되는 관계들 중 특히 선행절이 후행절의 성립 영역을 한정해주는 관계에만 결합이 가능하다. 즉 틀 표지 '은/는'의 결합을 설명할 때는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해 [영역 한정]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1ㄱ)부터 (1ㅁ)까지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그중 어떤 관계가 [영역 한정]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28) Longacre(2007)에서는 'Frustration'이라는 술어를 사용하였지만, 이가 기대의 부정을 나타내는 용어라는 점에서 '양보(concession)'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먼저 (1ㄱ) ‘결합 관계(conjoining)’와 (1ㄴ) ‘대안 관계(alternation)’부터 살펴보자면, 이것들은 복수의 절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관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해석 영역을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틀 표지 ‘은/는’ 또한 결합이 불가능하다. 이는 아래 (2ㄱ)에서와 같이 두 절을 연결(coupling)하는 경우나, (2ㄴ)처럼 대안을 나타내는 경우에서도 잘 드러난다.[29] 두 예문은 모두 선행절에 ‘은/는’을 결합하면 비문이 되는데, ‘-고’나 ‘-거나’ 외에 결합이나 대안을 나타내는 어떤 연결어미가 사용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2) ㄱ. [연결] 영희는 기계를 잘 {다루고/*다루고는}, 지영이는 사람을 잘 다룬다.
ㄴ. [대안] 밥을 {먹거나/*먹거나는} TV를 보거나 둘 중 하나만 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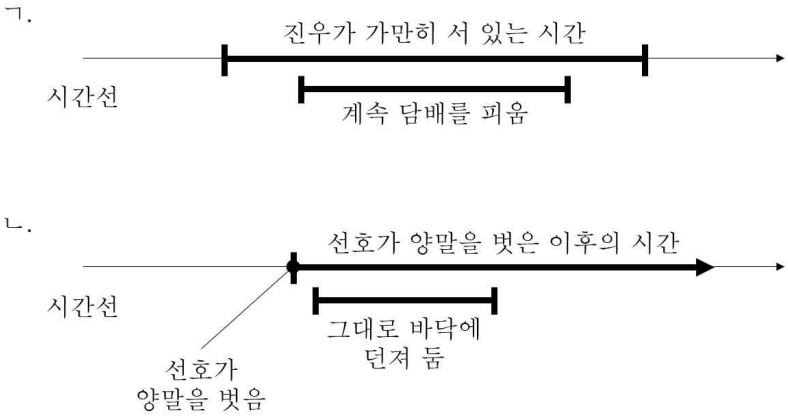
다음으로 복수의 절이 (1ㄷ) 시간적 관계를 보이면서 연결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 경우에는 대체로 틀 표지 ‘은/는’이 결합 가능하다. 그 이유는 ‘-고, -다가, -아서’ 등의 시간 관계 연결어미가 사용된 경우, 선행절이 후행절의 시간적 영역을 한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30] 이에 대해 간략한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3) ㄱ. 진우는 가만히 {서서/서서는} 계속 담배를 피우기만 했다.
ㄴ. 선호는 양말을 {벗어서/벗어서는} 그대로 바닥에 던져두었다.

위의 예문들에서는 모두 선행절 사태가 지속되거나 완료된 시간적 배경 내에서 후행절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3ㄱ)에서는 ‘진우가 가만히 서’ 있는 시간적 영역 내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 사태가 성립한다. (3ㄴ) 또한 마찬가지로 ‘선호가 양말을 벗은’ 이후의 시간 영역 내에서 ‘그대로 바닥에 던져두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아래 <그림2>의 간단한

29) (2)의 예문과 같은 사례들은 대체로 ‘대등접속절’로 처리되어 왔다.
30) 문장의 해석 틀로서 시간적 배경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은 틀 표지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들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다. 2.2.1절에서 보았듯이 애초에 틀 화제 개념을 제안한 Chafe (1976)에서부터 이미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요소가 틀로 실현될 수 있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은/는’을 틀 표지로 다루어 온 기존의 논의들에서도 이가 시공간 부사어에 결합하는 경우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기도 하다.

도식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2> 예문(3)에 나타난 시간선

위 도식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서'와 같은 시간 관계 연결어미가 사용되었을 때 후행절 사태가 발생하는 시간 영역의 경계를 비교적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후행절 사태는 '진우가 가만히 서 있는' 시간 영역 혹은 '선호가 양말을 벗은 이후의' 시간 영역 내에서 성립하며, 그 외의 시간 영역에서는 성립하지 않거나 적어도 성립 유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간 관계의 연결어미가 사용될 때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성립 영역을 한정해주는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립 영역을 한정해주는 틀 표지 '은/는'의 결합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점은 (1ㄹ)의 함의 관계 중 특히 조건이나 반사실적 조건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건절이 주절의 성립 영역을 한정한다는 점은 이미 여러 논의에서 언급되어 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Haiman(1978)은 조건절로 인해 주절의 성립 영역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조건절을 아예 틀 화제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조건절은 주절이 성립하는 영역의 경계를 제공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틀 표지 '은/는'이 쉽게 결합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3.1.3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므로, 여기서는 조건절에도 '은/는'이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짚어두기로 한다.

그런데 (1ㄹ)의 관계 중 원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에는 '은/는'이 결합할 수 없다.[31][32] 이는 원인절이 주절의 성립 영역을 명확히 경계 지어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순차적 시간 관계와 원인 관계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연결어미 '-어서'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어서'는 시간 관계를 나타낼 때와 달리, 원인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은/는'이 결합 불가능하다. 이는 아래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승연이가 입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팝콘을 먹은 상황)
ㄱ. *승연이는 배가 고파서는 팝콘을 먹지 않았다.
ㄴ. *승연이는 입이 심심해서는 팝콘을 먹었다.

만약 원인절에도 틀 표지 '은/는' 결합이 가능하려면 주절의 성립 영역이 원인절로 인해 명확히 한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입이 심심한' 세계에서만 팝콘을 먹는 사태가 성립하고, 그 외의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거나 적어도 알 수 없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인절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4)에서 볼 수 있듯이 주절 사태의 성립은 원인절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배가 고파서'였든 '입이 심심해서'였든 간에, 행위자가 '팝콘을 먹은' 주절의 사태는 실제 세계에서 변함없이 성립한다. 결국 원인절은 주절이 성립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명확히 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33] 성

31) 여기서는 '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연구에 따라서는 '원인'과 '이유'를 구별되는 개념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일례로 강규영(2017:49)에서는 행위자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유'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으로 파악한다. 다만 본 글에서는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은/는'이 결합 가능한 경우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은/는'은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에 모두 결합이 불가능하므로, 별도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2) 다만 연결어미 '-(으)니까'의 경우에 한하여서는 'ㄴ' 혹은 '는'이 덧붙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으)니까'에 결합하는 '는'이 보조사 '은/는'과 동일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방언형에서는 '-(으)니까네'와 같은 형식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 '-네'를 보조사 '은/는'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3) 이러한 상황은 김태인(2019)에서 제시한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술어가 항구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경우 문두에서 '은/는'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예 ㄱ. *동물원에서는 사자들이 늠름해요.

립 영역을 한정하는 '은/는'이 원인절에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ㅁ) 양보 관계를 살펴보면, 양보의 연결어미에도 '은/는'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양보의 연결어미에 활발히 관여하는 '도'가 '은/는'과 어울리기 어려운 요소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한국어 양보 연결어미에는 '-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 등과 같이 보조사 '도'가 결합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34] '도'는 '은/는'과 함께 나타날 수 없는 관계의 보조사라는 것이다.[35] 이는 "{*철수는도/*철수도는} 밥을 먹었다."에서와 같은 조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양보의 연결어미에 '은/는'이 결합하지 못하는 것은 '은/는'과 '도'의 배타적 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둘째, 양보의 의미 자체가 '은/는'의 '영역 한정' 기능과는 어울리기 어려운 의미이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재연(2011)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서는 보조사 '도'가 결합하여 양보 어미가 발달한 원인으로 '도'의 의미 확장을 들고 있다. '도'는 본래 첨가의 의미를 지니지만, 극단적인 항목과 결합하면 '조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용법이 확장된다.

(5) ㄱ. 영희는 (밥, 반찬 외에) 국도 먹는다.
ㄴ. 영희는 돌도 먹는다.
ㄷ. 영수가 와도 영희가 간다.

(박재연 2011:184에서 수정 인용)

ㄴ. *점심에는 선생님들이 인자해요. (김태인 2019:491에서 인용)

위와 같은 예문들이 모두 비문이 되는 것도 본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된다. 틀 표지 '은/는'이 쓰일 수 있으려면, 이를 통해 주절의 성립 영역을 한정할 수 있어야 하기에, 주절 사태가 해당 시공간 영역에서 성립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 예문들에서는 주절 사태가 '동물원, 점심'과 같은 시공간적 영역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성립한다. 즉 '동물원, 점심'이 주절의 성립 영역을 명확히 경계 지어 주지 못하므로 이들을 틀 요소로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34) König(2006:821-822)에 따르면 양보 표현에는 부가적 초점(additive focus) 표지가 결합해 있는 사례가 흔히 발견되는데, 한국어 또한 부가적 초점 표지 '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5) 목정수(1998)에서는 '은/는'과 '도', '이/가', '을/를'이 함께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을 한정사로 파악하기도 한다.

위의 (5ㄱ)에서처럼 '도'는 단지 첨가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5ㄴ)에서와 같이 극단적 항목에 결합하면 '조차'의 의미를 띠게 된다. 마찬가지로 (5ㄷ)에서 '영수가 오는 것'이 영희를 붙잡을 수 있는 최강의 수단이라 할 때, 이 문장은 '영수가 오는 것조차 영희가 가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양보 관계에서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점에서 박재연(2011)은 양보를 '비관여적 조건'으로 파악한다. 이때 선행절이 후행절의 성립에 '비관여적'이라 함은 곧 선행절이 후행절의 성립 영역을 설정하는 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후행절의 성립이 선행절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선행절은 해석 영역을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양보 관계가 보이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양보절에는 틀 표지 '은/는'이 결합할 수 없다.

정리해 보면, 틀 표지 '은/는'은 절과 절이 시간적 관계 혹은 조건적 관계를 보이는 경우에만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렬, 이유, 양보 등의 관계와 달리, 시간·조건절은 주절의 성립 영역을 한정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은 틀 표지 '은/는'의 기능과도 일치하는 것이므로, 결국 '은/는'은 자신의 기능과 잘 맞물리는 연결어미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은/는'이 시간·조건의 연결어미에 결합할 때의 문법적 특징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은/는'의 결합이 수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시간·조건절의 의미 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간·조건절은 모두 선행절이 후행절의 성립 영역을 한정해줄 수 있는 관계를 나타낸다. 즉 선행절이 후행절의 시간적 영역을 한정한다거나, 후행절이 참이 되는 영역을 한정한다는 의미는 애초에 시간이나 조건의 연결어미를 통해서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영역 한정이라는 관계는 '은/는'이 추가됨으로써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간·조건의 연결어미를 통해 보장되는 의미이다. 이로 인해 틀 표지 '은/는'은 시간·조건의 연결어미에 결합하여도 문장에 어떠한 새로운 의미를 더하지 못하며, 따라서 '은/는'이 삭제되었을 때 문장의 전체 의미에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아래 (6)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6) ㄱ. 나는 비가 막 내리면은 맨발로 뛰어다니고 싶다는 충동이 들더라.
ㄱ′. 나는 비가 막 내리면 맨발로 뛰어다니고 싶다는 충동이 들더라.
ㄴ.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ㄴ′.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틀 표지 '은/는'이 결합한 시간·조건절이 종속접속절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종속접속절과 틀 화제 간의 통사적 유사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종속접속절은 주절과는 별개의 사태·명제를 표상하므로 부사절처럼 주절 동사를 수식하거나 동사의 성분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즉 종속접속절은 주절 동사의 직접 지배를 받는 성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종속접속절은 대개 주절보다 앞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은 틀 화제 성분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앞의 2.2.1절에서 Li& Thompson(1976)을 인용하여 틀 화제 성분의 통사적인 특징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가져와 보면 아래와 같다.

(7) 주어와 대비되는 틀 화제의 특징(일부)
① 동사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다.
② 서술 영역을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만약 명사구가 틀 화제로 실현된다면, 명사구는 한정적(definite)이어야 한다.
④ 문두에 위치한다.

종속접속절이 동사의 직접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점은 위의 특징 중 ①과 관련이 있고, 주절보다 앞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④와 관련이 있다. 더불어 ②의 특징과 관련하여서는 시간·조건절이 서술 영역을 한정한다는 점을 앞서 자세히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시간 및 조건의 종속접속절에 틀 표지 '은/는'이 결합하는 것은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즉 시간·조건의 종속접속절은 틀 화제로 실현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만족하기 때문에, 아래 (8)과 같이 틀 화제 성분의 자

리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8) ㄱ. (틀 화제 성분) 은/는 집에 갔다.
ㄴ. (주절의 시간 영역 한정) 밥을 먹고 은/는 집에 갔다.
ㄷ. (주절이 참이 되는 영역 한정) 배가 고프면 은/는 집에 갔다.

3.1.2. 시간절을 이끄는 연결어미

Dixon(2009:9-10)에 따르면 절과 절 사이에 나타나는 시간적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순차적 시간 관계인데, 영어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and, and then, then' 등의 접속사를 통해 표지된다. 따라서 A와 B가 각각 절을 나타낸다고 할 때, 'A and (then) B' 구성은 A가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으로 B가 일어나는 사태의 순서를 드러낸다. 두 번째는 상대적 시간 관계를 보이는 유형으로, 전후 혹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태를 연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영어에서는 'after, before, when, while' 등의 표지를 통해 이러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는 절과 절 간의 시간적 관계를 어떤 연결어미를 통해 표현하는가? Sohn(2009:294)에서는 Dixon(2009)의 절 연결 분류를 따라 한국어에서의 절 연결 표지를 분류한 바 있다. 아래의 (9)는 Sohn의 분류에서 특히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들을 가져온 것이다.[36]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 연결어미는 두 가지 유형, 즉 순차적 관계와 상대적 관계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 중 틀 표지 '은/는'이 결합할 수 있는 연결어미는 아래 <표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 6가지이다.

(9) ㄱ. **순차적 시간 관계**

36) 다만 Sohn(2009)에서는 연결어미뿐 아니라 우언적 구성, '관형절+명사' 구성도 적극적으로 분류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관심사는 연결어미에만 놓여 있으므로, 이에서 제시된 분류 중 연결어미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은 인용하지 않았다. 또한 시간적 관계를 드러내는 연결어미임에도 불구하고 Sohn의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결어미도 있는데,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몇 가지 연결어미를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 −고, −고서, −다, −다가, −더니, −더니마는, −아/−어, −어서/아서

ㄴ. **상대적 시간 관계**

: −(으)며, −(으)면서, −자, −자마자

<표 8> 틀 표지 '은/는'이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

	의미 분류	**연결어미**
시간적 관계 Temporal	순차적 시간 관계	−고, −고서, −다가, −아서/−어서
	상대적 시간 관계	−으면서/−면서, −자마자

해당 연결어미들이 '은/는'과 결합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10)의 예들은 모두 말뭉치에 실재하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10) ㄱ. 그리고 펴진 쇠를 <u>접어서는</u> 다시 두들겨 합칩니다.

ㄴ. 아빠는 기둥 옆에 짐수레를 <u>놓고는</u> 줄 사이를 마구 돌아다니며 짐을 찾았다.

ㄷ. 그러나 내 눈에 담긴 결연한 의지를 읽은 듯 뱁새눈을 <u>하고서는</u> 조심스럽게 물었다.

ㄹ. 그녀는 그를 서늘하게 <u>노려보다가는</u> 무슨 말인가 하려는 것을 꾹 참고는 예의바른 말을 하더니, 차가운 바람처럼 쌩 소리를 일으키며 나가 버렸다.

ㅁ. 그래서 해가 <u>지면서는</u>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ㅂ. 숲을 <u>보자마자는</u> 그런 얘기도 했어.

앞의 3.1.1절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와 같은 문장은 백인영(2019)의 설명을 빌려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따르면 (10ㄱ) '펴진 쇠를 <u>접어서는</u> 다시 두들겨 합칩니다.'와 같은 문장은 '펴진 쇠를 접'은 이후의 시간대로 해석 영역이 한정되고,

그러한 영역 내에서 '다시 두들겨 합치'는 사태의 발생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은/는'이 위와 같이 시간 관계 어미에 결합하는 것은 매우 흔히 일어난다. 이러한 용법이 매우 자연스럽고 또 자주 쓰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개별 어미마다 '은/는'과 함께 쓰인 예들을 아래의 (11)~(15)로 제시한다.[37]

(11) **-고**

ㄱ. 점심시간 후 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빼고는 늘 기계에 붙어 일해야 했어.
ㄴ. 나는 잠이 든 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어떤 무서운 것을 본 사람처럼 다시 달아나기 시작한다.
ㄷ. 회사의 동료들은 내 모습을 보고는 고개들을 돌렸다.
ㄹ. 그 사내는 주머니 속에서 지갑을 꺼내어 펼치고는 지갑 속에 들어 있던 사진 한 장을 내게 보여줬다.

(12) **-고서**

ㄱ. 날 쳐다보더니 "후.."하고 웃고서는 다른 초밥을 잡아서 안에 있는 겨자를 다 빼서 주더라구. 그래서 난 맵지 않게 먹을 수 있었어.
ㄴ. 머리털 나고서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가 제 손으로 산 보석이었다.
ㄷ. 어린애같이 순수한 얼굴을 하고서는 아주 못하는 말이 없구나.
ㄹ. 요즘 것들은 어디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잔뜩 들어 가지고서는, 와서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면 '맞춰봐!'라고 해대지 않나.

(13) **-다가**

ㄱ. 한참을 그렇게 미친 듯이 소리치고 설치다가는 화가 좀 풀리는지 의자에 도로 앉아 숨을 가다듬었다.
ㄴ. 그는 일어나 차를 들여왔고 한참 있다가는 꿀을 묻힌 떡을 가져왔다.

---

37) 다만 '-자마자'가 '은/는'과 함께 쓰인 예는 말뭉치에서 1건 정도밖에 발견되지 않아 따로 예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마자+은/는'이 말뭉치에서는 소수 발견되지만, 일상에서의 용법을 살펴보았을 때 이가 자연스럽게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자마자'를 '은/는'이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 목록에 포함하였다.

ㄷ. 원래 산이 가파른 데다, 아침 나절에 쏟아진 비로 길이 끊어져 있었다. 조금 오르다가는 쉬고, 조금 오르다가는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맸다.
ㄹ. 응이를 그릇째 들고 훌훌 마시다가는 질질 흘리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14) **-(으)면서**

ㄱ. 이 가을에 접어들면서는 벌써 그의 내부에서도 책에 대한 갈망이 고개를 들고 그와 비례해 새로 택한 삶의 방식에도 회의가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ㄴ. 같이 다닐 때 건물에 들고 나가면서 문을 잡아주고,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는 내가 짐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지 눈여겨보곤 했다.
ㄷ. 쓸 때는 굉장히 속도감이 있어서 즐거웠었는데, 퇴고하면서는 1년 이상을 끌어버렸다.
ㄹ. 예측불허인 아이들을 기르면서는 얕은 나의 인내심을 극복하지 못해 포기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15) **-아서/-어서**

ㄱ. 그 노루도 어지간히 놀랐는지 널 깔고 앉아서는 두리번대고만 있고, 눈밭에 누운 네 얼굴이 노루엉덩이 사이에 꽉 끼어서는……
ㄴ. 기혁이 녀석하고는 졸업하고 나서도 몇 번인가 만났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만나지 않았었다.
ㄷ. 작년에 노인 몰래 참나리를 화분에 심어서는 읍내에 내다 팔아 그걸로 군것질을 하고 놀다가 돌아오면서 신작로 곁 산 밑에서 캐온 것입니다.
ㄹ. 전기 다리미만은 하도 신기했던지 두 번째 월급을 받아서는 그것부터 하나 사다 가졌다.

시간 관계 연결어미에 '은/는'이 결합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은/는'이 틀 표지로 기능하는 동시에 대조의 의미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15ㄷ) '기혁이 녀석하고는 졸업하고 나서도 몇 번인가 만났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만나지 않았었다.'와 같은 예문을 보자. 이에서는 '졸

업하고 나서'와 '최근 들어서' 두 시간 영역에서의 상황 차이가 드러나는데, 이때 '은/는'이 사용됨으로써 시간대 사이의 대조가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때의 '은/는' 또한 [영역 한정]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앞의 2.2.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틀 표지 '은/는'은 일관되게 해석 영역을 한정하며, 대조의 의미는 '은/는'이 어떤 영역을 한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5ㄷ)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대조의 의미 또한 '은/는'이 '졸업하고 나서'와 맥락상 대비되는 '최근 들어서'의 시간대를 한정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은/는'이 대조의 해석을 유독 강하게 유발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앞서 시간 관계 어미가 '순차적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상대적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뉜다고 했던 점을 다시금 상기해 보자. 이때 순차적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고, -고서, -다가, -아서/어서'와 달리, 상대적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으)면서, -자마자'에 '은/는'이 결합하였을 때 대조의 의미가 더욱 두드러진다. 즉 순차적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들에는 '은/는'이 결합하여도 대조의 의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으)면서'와 '-자마자'에는 '은/는'이 결합해 있을 때 대조의 의미로 읽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으)면서'와 '-자마자'가 나타내는 시간의 폭이 비교적 짧다는 데에서 비롯한 것일 수 있다. '-(으)면서'는 선행절에서의 행위·상태가 지속되는 시간 동안만을 나타내고, '-자마자'는 선행절의 행위가 완료되는 찰나의 순간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으)면서'와 '-자마자'는 '-고, -고서, -다가, -아서/어서'에 비해 한정할 수 있는 시간의 폭이 매우 짧은 것이다. 이로 인해 '-(으)면서, -자마자'에 '은/는'이 결합하여 시간 영역이 한정되면, 후행절의 사태가 비교적 짧은 시간 영역 내에서만 일어나고 그 외의 시간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므로 대조의 의미가 더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 관계 연결어미에 '은/는'이 결합하는 경우와 관련된 두 번째 특징은, 연결어미 '-고, -아서/어서'가 '은/는'과 결합할 때 높은 빈도로 어울리는 서술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먼저 연결어미 '-고'부터 살펴보면, 이에 '은/는'이 결합할 때는 '제외하다, 빼다, 말다'와 같은 술어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말뭉치를 확

인해 보면 '제외하다'는 '은/는'이 함께 쓰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배에 달했다.[38] 아래의 (16)~(18)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외하고는, 빼고는, 말고는'은 모두 후행절의 서술이 성립하지 않는 유일한 대상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된다.[39]

(16) **'제외하고는'**

ㄱ. 광장 저편의 시청을 제외하고는 그 건물은 광장 주위에서 가장 높고 큰 빌딩이다.

ㄴ. 대신 어디 한 군데가 부러지거나 탈난 것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멀쩡한 환자들이 많아 간호사들로선 나름대로 피곤한 구석이 많은 장소였다.

ㄷ. 문 안에는 신발들이 놓인 좁은 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온돌방처럼 꾸며져 있다.

(17) **'빼고는'**

ㄱ. 다리와 팔에 몇 군데 찰과상을 입은 것을 빼고는 내 몸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짱했다.

ㄴ. 중요한 임원회의 빼고는 잘 안 나오세요. 필요한 결재는 자택에서 받으시거든요.

ㄷ. 한 가지 점만 빼고는 그들의 결혼생활이 전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 상태는 한층 더 괴로웠다.

(18) **'말고는'**

ㄱ. 막내놈 말고는 모두 학교에 다니는데 말로는 그까짓 학교성적 같은 거야 나쁘면 어떠냐고 심상한 체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따금 아이들 몰래 아내에게 학교 성적을 묻고 어느 놈이 제일 재주 있느냐고 묻는다.

ㄴ. 금방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나머지 두 친구 말고는 다들 마지못해 물건의 쓰임새보다는 그 물건들의 적당한 금액을 찾아 하나씩 선택해 나갔다.

ㄷ. 강력계 형사들과 형사들의 가족, 지인들 말고는 강력계의 직통 전화를 아는

---

38) 문어 말뭉치에서 '제외하고'는 1,245건, '제외하고는'은 2,567건이 발견된다.

39) 이와 유사한 용법은 17세기 <老乞大諺解>에서도 발견된다.

예 이 ᄆᆞᆯ을 덜고ᄂᆞᆫ 다ᄅᆞ니ᄂᆞᆫ 다 됴티 아니타 <老乞上11a>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한편 '-아서/어서'와 '은/는'의 결합형은 일부 형용사와 함께 굳어진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마음 같아서는, 생각 같아서는'과 같이 '같아서는' 구성이 말뭉치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어려서는, 젊어서는, 늙어서는'이나 '비해서는, 대해서는, 따라서는'과 같은 구성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구성은 연결어미 '-아서/어서' 자체의 쓰임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아서/어서'는 기본적으로 순차적인 사태를 연결하는 데에 사용되는 어미이지만, 일부 서술어와 함께 [배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박민신 2016).[40] 그리고 이때의 [배경]이란 (19ㄱ)과 같이 시간적 배경뿐 아니라, (19ㄴ~ㅁ)에서처럼 판단의 배경을 가리키기도 한다.[41] 이처럼 시간 혹은 판단의 [배경]을 나타내는 '-아서/어서'에 '은/는'이 결합하는 것은, 주절의 해석 배경을 제공한다는 틀 표지의 기능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 ㄱ. 어려서는 씨름도 같이 해주고, 축구도 같이 해주었지만 다른 아버지와 다른 그 무엇 때문에 늘 한 걸음 정도 떨어져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ㄴ. 생각 같아서는 병원 출입도 그만하고 싶었지만, 혹시 무슨 일이 다시 생겨 자식들 못할 짓을 또 시키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 먼저 병원을 찾았던 것이다.
ㄷ. 일에 대해서는 그녀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 외에도 자기가 나서서 여기저기 돌아 다니는 모습이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ㄹ. 최종 결과에 관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사전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것이

40) 박민신(2016)은 '-아서/어서'는 본래 선행절과 후행절 간에 시간적 선후 관계가 존재함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선후관계가 약화되면서 선행절이 후행절의 배경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41) 시간적 배경을 제공하는 '-아서/-어서'의 이러한 용법은 최진(2014)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젊-'이나 '(나이) 먹-'과 같이 인생의 특정 시기를 나타내는 술어와 함께 '-아서'가 통합되어 후행절의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사례가 15~16세기에도 발견된다. 아래는 최진(2014:80)에서 제시한 예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예 徐積이 세 설 머거셔 아비 죽거늘(徐積 楚州人 三歲父死) <三綱成孝28>
ᄒᆞᆫ 사ᄅᆞ미 나히 져머셔 아비 ᄇᆞ리고 逃亡ᄒᆞ야(譬若有人 年既幼稚 捨父逃逝) <月釋13:6b>

될 것이다.

ㅁ. 적어도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에 비해서는 훨씬 편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 연결어미에 '은/는'이 결합하는 경우와 관련된 세 번째 특징은,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라고 해서 모든 어미에 '은/는'이 결합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더니, -더니마는, -다, -아/어, -(으)며'에는 틀 표지로서의 '은/는'이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그 이유를 모두 알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아/어'에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갑(1998)에 따르면 연결어미 '-아/어'는 '-아셔'의 등장 이래로 이와 지속적인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 경쟁 결과 현대국어에서는 '-아/어'와 '-아서/어서'가 서로 다른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아서/어서'는 통사적으로 개방적인 환경일수록 더 쉽게 쓰이는 반면, 전통적인 형식인 '-아/어'는 통사적으로 폐쇄적인 환경에 주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아/어'는 '-아서/어서'에 비해 절 단위 접속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다소 제한적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틀 표지 '은/는'은 대체로 절 단위 접속이 이루어질 때, 즉 종속접속절이 쓰일 때 주로 사용된다. 이처럼 두 어미의 사용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은/는'은 '-아서/어서'와 달리 '-아/어'에는 결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종합해보면, 틀 표지로서의 '은/는'은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에 결합할 수 있다. 그러한 연결어미에 '은/는'이 결합한 사례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은/는'이 결합하여 대조의 의미가 읽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때 대조의 의미는 연결어미가 나타내는 시간의 폭이 제한적일수록 더 잘 드러난다. 둘째, '제외하다, 빼다, 말다'나 '같다, 비하다, 대하다' 등 [연결어미+은/는] 구성이 특히 잘 어울리는 서술어가 존재한다. 셋째,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라고 해서 모두 '은/는'이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틀 표지 '은/는'은 종속접속절에 결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절 접속에 사용되지 않는 연결어미에는 틀 표지로서의 '은/는'이 함께 쓰이기 어렵다. 이상의 세 가지 특징들은 모두 주절의 해석 영역을 한정한다는 틀 표지 '은/는'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1.3. 조건절을 이끄는 연결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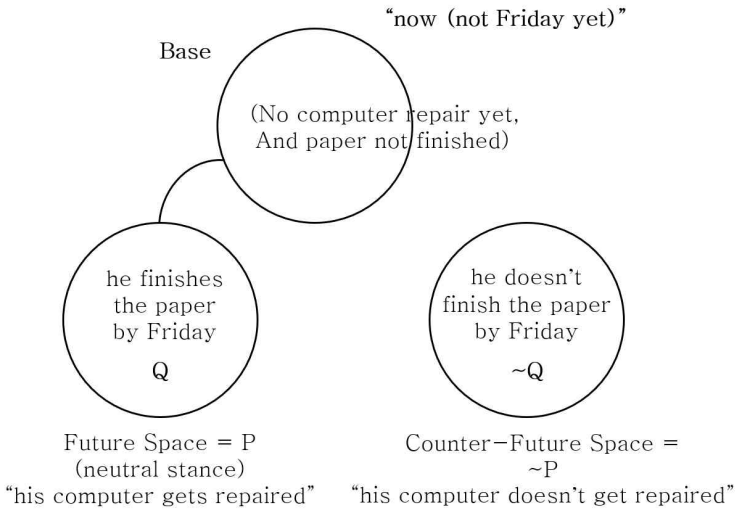
틀 표지 '은/는'은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에도 결합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조건절을 이끄는 대표적인 연결어미는 '-(으)면'인데, '은/는'은 '-(으)면'이나 '-면' 계열 연결어미 뒤에 별다른 제약 없이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20)은 모두 말뭉치에서 추출한 것으로, 조건의 연결어미와 함께 '은/는'이 사용된 사례들은 대부분이 구어 말뭉치에서 발견된다.

(20) ㄱ.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그냥 내가 사랑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ㄴ. 아마 내가 젊은 나이에 책을 출간했었더라면은 약간은 다른 양상을 띄지 않았을까 싶다.
ㄷ. 우리가 제재하지 못한다면은 저 영상에서 비난해야 될 사람들과 다를 거 없습니다.
ㄹ. 참기름 장에 톡 찍어서 구운 마늘이랑 한입 먹으면은 잠이 쏙 달아날 것 같은데….
ㅁ.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판단할 수 있으면은 맞춰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은/는'과 조건의 연결어미 '-(으)면'이 함께 쓰이는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첫째, 틀 표지 '은/는'과 조건절이 의미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일 수 있다. 틀 표지가 주절의 해석 영역을 한정한다는 것은 2.2절과 3절 전반부에 걸쳐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화제의 이러한 기능은 조건절의 기능과도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조건절의 정의나 이를 설명하는 방식은 연구별로 매우 다양하지만, 많은 논의들을 관통하는 기본적 인식은 바로 조건절이 후행절의 성립 영역을 한정하기 위해 도입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련된 논의를 모두 살펴보기는 어려우므로 조건절의 기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도식 하나를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한다. Dancygier&Sweetser(1990)은 아래 (21)의 조건문

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3>과 같은 도식을 제시하고 있다.

(21) If his computer gets repaired, he'll finish the paper by Friday.
(그의 컴퓨터가 수리되면 그는 금요일까지 과제를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림3> Dancygier & Sweetser(2009:114)

(21)의 예문에서는 조건절에 '그의 컴퓨터가 수리되는 것'이 표현되어 있고, 주절에는 '그가 금요일까지 과제를 끝내는 것'이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그림3>에서 알 수 있듯이 조건절은 '그의 컴퓨터가 수리된' 미래 영역 P를 상정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그가 금요일까지 과제를 끝내는 것(Q)'은 P라는 영역 내에서 가능해지거나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42] 반대로 P 외부의 영역, 즉 그의 컴퓨터가

42) 엄밀히 말하면 Dancygier&Sweetser(2009)에서는 Fauconnier(1985, 1997)의 정신공간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if'가 공간구축자(space builder)로 기능한다고 본다. 즉 if-절이 주절(Q)의 배경이 되는 정신공간(P)을 구축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가능 세계 의미론에서 if-절이 후행절이 적절하기 위한 가능 세계를 제공한다고 보았던 견해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다만 이 이론에서는 조건절을 설명하기 위해 '가능 세계'보다 '정신공간'의 개념을 채택하는 이유로서, 정신공간은 '세계'나 '상황'뿐 아니라 더욱 불완전하고 다양한 인지적 구조를 나타내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처럼 각 조건절에 관한 논의들에서는 설명을 위해 채택하는 도구나 개념이 다양할 수 있지만, 조건절이 '영역 한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논의에서 공유된다.

수리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주절이 성립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P 외부 영역에서는 그가 과제를 금요일까지 끝내지 못한다거나, 적어도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조건절은 주절 사태 Q가 적절히 성립하는 영역을 한정해주기 위해 도입된다고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if-절이 양화사가 적용되는 영역을 한정하기 위해 도입된다고 보는 Lewis(1975), Kratzer (1979), Partee(1991) 등의 논의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조건절이 틀 성분과 유사하게 해석 영역을 한정한다는 점으로 인해, 조건절과 틀 성분 간 기능적 유사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논의도 적지 않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Haiman(1978)을 들 수 있다. Haiman은 조건절과 틀 화제 성분이 모두 "후행 담화를 위한 해석 틀(framework)을 구성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조건절이 곧 틀 화제임을 주장하고 있다.[43]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여러 언어를 검토하였을 때 조건 표지가 일반적인 화제 표지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형태적 증거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Haiman(1978)의 주장은 한국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풍현(2000)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조건의 연결어미 '-(으)면'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다양한 형식들이 조건을 나타내기 위해 활용되었는데, 보조사 '은/는' 또한 조건법에 관여한 형식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으)ㄴ'이 포함된 조건법 형식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22) **보조사 '(으)ㄴ'이 쓰인 예**

---

43) 이에 더해 Haiman(1978)은 조건절과 틀 성분이 모두 '화·청자에게 주어져 있다(given)'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주장한 점에서 이후의 여러 논의에서 비판받았다. 조건절이 화·청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정보, 즉 구정보(old information)가 아닌 새로운 정보 또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여러 논의에 걸쳐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Dancygier(1999:136-137)에서는 이러한 비판들이 Haiman(1978)의 주장을 잘못 받아들여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Haiman이 모든 조건절이 이전 맥락에서 언급된 내용, 즉 구정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Dancygier는 Haiman의 주장이, 조건절이 (틀 성분과 마찬가지로) "후행절에 앞서" 상대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Haiman은 조건절이 후행절보다 먼저 제시되기 때문에 후행절이 참조하는 해석 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지, 조건절이 언제나 구정보를 나타낸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ㄱ. 爲者/ᄒᆞᆫᄋᆞᆫ(이두) → ᄋᆞㄱㄱ/ᄒᆞᆫᄋᆞᆫ(석독구결)
ㄴ. -ᄆᆞㅅㄱ/읋 ᄃᆞᆫ(석독구결)
ㄷ. -ㄱㅣㅏㄱ/-은 다긴(석독구결) → ㄱㅊㄱ/은딘(순독구결)
ㄹ. -ㅁㅅㄱ/고긴(석독구결) (남풍현 2000:38에서 인용)

이에 더하여 연결어미 '-(으)면' 또한 기원적으로는 화제를 나타내는 보조사 '은/는'이 포함된 형식으로 분석되기도 한다(구현정 1999, 남풍현 2000, 안주호 2006). 이상의 여러 연구들을 볼 때, 적어도 한국어에서는 조건절과 틀 표지 '은/는'이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리하자면 '은/는'은 해석 영역 한정이라는 기능을 지니는 요소이다. 이러한 기능은 조건절이 수행하는 기능과도 매우 유사하므로, 한국어에서는 오랫동안 '은/는'이 조건을 나타내는 형식에 관여해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틀 표지 '은/는'이 조건의 연결어미 '-(으)면'에 결합하여 "못한다면은, 먹으면은"처럼 쓰일 수 있는 것도 조건절과 틀 성분 간의 기능적 유사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앞서 3.1.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틀 표지 '은/는'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해석 영역을 한정해주는 관계일 때 수의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데, '-(으)면'이 바로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미이기 때문이다.

'은/는'과 조건절의 기능적 유사성 외에도 '-(으)면'과 '은/는'이 함께 쓰이게 된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44] 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면, 앞에서 '-(으)면'의 'ㄴ'이 기원적으로 보조사 '은/는'에 해당했을 것이라는 논의를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으)면'이 '-(으)면은'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은 단순히 'ㄴ'의 형태가 복사된 결과일 수도 있다. 즉 '-(으)면'에 포함된 '은/는'이 수의적으로 반복되어 '-(으)면은'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으)면'과 '-(으)면은' 사이에 어떠한 의미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으)면'과 '-(으)면은'이 모든 상황에서 서로 교체되어 쓰일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44) 이러한 가능성은 심사 위원이신 박진호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셨다.

3.2. 대조 표지 '은/는'이 결합 가능한 경우

이 절에서는 대조를 나타내는 '은/는'이 연결어미에 결합할 수 있는 경우들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대조의 '은/는'은 문장 내 명사구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결합 가능하다고 논의되어왔으므로, 연결어미와의 결합 또한 자유로울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조 표지 '은/는'이 연결어미에 결합할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오히려 매우 제한적이다. 이 절에서는 먼저 대조 표지 '은/는'이 결합 가능한 경우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 연결어미에 '은/는'이 결합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3.2.1. 대조 표지가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의 특징

대조 표지가 결합하는 연결어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2.1절에서 언급했던 문숙영(2019ㄴ)의 논의를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숙영(2019ㄴ)은 연결어미가 이끄는 모든 절을 '부사절'로 통칭할 수 없으며 종속접속절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를 논증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은/는'의 실현 양상과도 관련이 깊으므로, 이 연구의 일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한다. 앞에서 연결어미가 (ㄱ) 담화의 수사적 구조를 표현할 수도, (ㄴ) 동사·절·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음은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3.1절에서는 (ㄱ), 즉 접속절에 '은/는'이 결합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이 절에서는 (ㄴ)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문숙영(2019ㄴ)에 따르면, 모든 연결어미 절을 동사·절·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절'로 처리하는 데에는 여러 문제가 따른다. 그중 하나의 문제는 기존에 '부사절'로 불리어 온 것과 '부사' 사이에는 서로 겹치는 의미 영역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논저에서 제시되어 온 '부사'와 '부사절'의 의미 유형을 정리 및 대조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를 가져오면 아래의 (23)과 같다.

(23) ㄱ. '부사'의 기능

: **방법**, 정도, 빈도, **시간, 공간**, 상, 영역(domain) 양태, 평가

– Payne et al.(2010)

ㄴ. '부사절'의 기능

: **시간**, 결과, 가능 결과, 추가, 선택, 제안, **방법** – Dixon(2009)[45]

(문숙영 2019ㄴ:508에서 인용)

위 (2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연결어미 절이 부사와 동일하게 동사·절·문장을 수식한다고 볼 만한 경우는 '시간, 방법'절 정도밖에 없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시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절 또한 '시간 부사'와 동일한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빈도나 기간 등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류와 달리, 시간 관계를 표지하는 연결어미는 동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기보다 복수의 사태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3.1절에서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다가, -아서/어서, -(으)면서' 등을 종속접속의 표지로 다루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 관계도 연결어미 절이 부사와 동일하게 동사·절·문장을 수식한다고 볼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수식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연결어미 절은 '방법'절 정도만 남는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절은 '시간, 결과, 추가, 선택' 등의 여타 의미 유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그것은 바로 방법절이 주절과 별개의 사태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2.1절에서 언급한 Hengeveld(1998:345)의 논의를 다시 보면, 방법절은 0차 실체를 표상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때 0차 실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실체 유형의 속성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 즉 방법절은 언제나 다른 실체 유형의 존재를 전제하고서 그에 의존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46] 예를 들어 '승연이는 밥을 맛있게 먹었다.'에서 '맛있게'는 주절 동사의 속성을 나타내어 주므로 동사에 의존하여 실현되며, 주절과 별개의 사태나 명제를 표상하지 않는다.

그런데 방법절과 유사하게, 주절과 별개의 사태를 나타내지 않고 주절 동사에 의존적으로 실현되는 연결어미 절이 존재한다. 바로 일부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45) Dixon(2009)의 이러한 분류는 본고의 2.1절에서도 인용한 바 있다.

46) 방법절 외에도 0차 실체에 속하는 것들로는 '색깔, 크기, 무게' 등이 있는데, 이 또한 1차 실체인 개체(명사구)에 기대어야만 실현될 수 있는 속성들에 해당한다.

절이 그에 해당하는데, 목적·결과절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절 동사에 의존하여 동사의 내용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24)가 그 예이다.

(24) ㄱ. [목적] 영민이는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했다.
ㄴ. [목적] 스님은 아이들을 올바르고 곧게 자라도록 가르쳤다.
ㄷ. [결과] 그는 상대를 설득하지 못해서 일이 늦어지게 만들었다.

위의 예문들에서 목적절과 결과절은 모두 동사 '노력하다, 가르치다, 만들다'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에 목적·결과절을 삭제하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그 이유는 '노력하다, 가르치다, 만들다'와 같은 동사가 행위의 내용을 반드시 나타내 주어야 하는 동사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24)의 예문들에서는 동사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이 목적·결과절로 실현된 것인데, 이들은 문장에서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간 '필수적 부사절'로 불리어 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에서의 목적·결과절이 주절과 별개의 사태를 나타내지 않고 주절 동사를 수식하며, 동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어 준다는 점이다.

이처럼 방법절이나 일부 목적·결과절이 주절 동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대조 표지 '은/는'의 실현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방법절과 일부 목적·결과절처럼 동사의 방법이나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대조의 '은/는'이 결합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어미 절은 모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로 처리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대조 표지 '은/는'이 결합할 수 있는 연결어미들의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면 <표9>와 같다.

<표 9> 대조 표지 '은/는'이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

'은/는'의 기능	의미 분류		연결어미
대조 표지	결과적 관계 Consequence	목적 Purpose	-고자[11], -도록[5], -으러/-러, -으려/-려, -려고/-으려고

		결과 Result	-도록[5], -게[8], -게끔
	방식 Manner	실제 방식 Real manner	-게[8]

그렇다면 왜 연결어미 절이 주절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만 '은/는'이 결합 가능한 것일까? 앞의 2.2절에서 '은/는'은 해석 영역을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대조 표지로 쓰이는 경우 동일한 의미 유형으로 이루어진 대안 집합이 도입된다고 정리한 바 있다. 따라서 대조 표지 '은/는'이 사용되려면 동일한 의미 유형의 여러 후보들, 예를 들어 가능한 여러 방식들 중 단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25) 영민이는 <u>일찍 일어나려고는</u> 노력했다. (그러나 야식을 먹지 않으려고는 노력하지 않았다.)

영민이는 ┌ 야식을 먹지 않으려고 ┐
│ <u>일찍 일어나려고</u> │는 노력했다.
└ … ┘

위의 예문에서처럼 동사의 방식을 '은/는'을 통해 한정하면, '노력하다'가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식 또한 달라지게 된다. 즉 '노력하다'가 성립하는 모습이 '일찍 일어나려' 행동하는 모습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려는 것 외의 노력은 대조 표지 '은/는'을 통해 선택 관계에서 배제된다.

그런데 아래 (26)과 같이 '은/는'을 결합시키더라도 주절 동사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정해주지 못한다면, 대조의 '은/는'을 결합시킬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

(26) (영민이가 일찍 일어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일찍 잔 상황)
ㄱ. *영민이는 <u>일찍 일어나려고는</u> 일찍 잤다.

ㄴ. *영민이는 야식을 먹지 않으려고는 일찍 자지 않았다.

위의 예문에서 ‘일찍 잤다’라는 것은, 행위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했든지 간에 실제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다. 즉 행위주가 머릿속에서 ‘일찍 일어날’ 목적을 가지고 있었든 ‘야식을 먹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일찍 잔’ 모습은 변함없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6)에서와 같은 목적절은 후행 동사가 성립하는 모습과 그 외의 모습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그어 주지 못하므로 대조 표지 ‘은/는’이 결합할 수 없게 된다.

종합해보면, 대조 표지 ‘은/는’은 연결어미 절이 주절 서술어의 방법이나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한 때에만 연결어미 절이 동사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절과 별개의 사태를 나타내지 않고 주절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절에는 방법절이나 일부 목적, 결과절이 있다. 그리고 대조 표지 ‘은/는’은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절에 주로 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은/는’이 방법, 목적, 결과절에 결합하는 사례들을 모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연결어미 절과 ‘은/는’의 조합이 주절 서술어 바로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는 틀 표지 ‘은/는’이 대체로 선행절과 주절의 경계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분포적 차이는 아래 (27)에서 ㄱ과 ㄴ의 대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7) ㄱ. [대조 표지] 지영이는 밥을 맛있게는 먹었다.
ㄴ. [틀 표지] 밥을 먹고는 차를 타고 집에 갔다.

이러한 특징은 방법절, 혹은 필수적 부사절로 쓰이는 목적·결과절이 대개 서술어와 가까운 위치에서 실현된다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부사절들은 주절 서술어에 의존하여 실현되므로, 방법·목적·결과절이 서술어와 인접한 위치에서 실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전영철(2019:118-119)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은/는’은 문장 가운데에서 쓰일 때 대조의 의미만을 나타낼 수 있다. 즉 방법·목적·결과절은 서술어와 인접한다는 분포적 특징을 보이는데, ‘은/는’

은 문장 가운데에서는 대조의 의미만을 나타내므로, 이들 절에 결합한 '은/는' 또한 언제나 대조의 의미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조 표지 '은/는'이 어떤 연결어미 절에 결합 가능하고, 어떤 분포적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대조 표지 '은/는'이 대조가 이루어지는 영역과 언제나 일치하여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추가로 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2.2.2절에서도 간략히 다룬 바 있지만, 대조 표지 '은/는'의 실현을 설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므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임동훈(2007, 2012)에 따르면, 대조를 나타내는 '은/는'은 대조가 이루어지는 영역 전체와 결합할 수도 있고, 대조 영역 내부에 있는 '정보 가치가 큰' 성분에도 결합할 수 있다. 아래 (28)의 예문을 참고해 보자.

(28) ㄱ. 이 집은 [깨끗하기]는 하다. (↔ [교통이 좋지 않다.])
ㄴ. 이 집은 깨끗은 하다.

위의 (28ㄱ)에서 대조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깨끗하다' 전체이다. 그리고 '깨끗하다' 전체에 '은/는'이 결합하여 '교통이 좋지 않다' 등의 여타 사정과 대비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대조를 나타내는 '은/는'은 (28ㄴ)에서와 같이 '깨끗하다' 내부로 이동하여, 정보적 가치가 큰 요소인 '깨끗'과도 결합할 수 있다.

이처럼 대조 표지 '은/는'의 쓰임을 파악할 때는 '은/는'이 초점화하는 성분이 무엇인지, 즉 '은/는'의 양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장의 어떤 성분에 '은/는'이 결합해 있다고 해서 그 성분을 대조의 대상으로 파악해 버리면, 실제로 대조 표지 '은/는'이 결합할 수 있는 단위와 그렇지 않은 단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 (29)의 예문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29) ㄱ. ??나는 영민이가 어디 갔었는지 확실하게는 들었다.
ㄴ. 나는 영민이가 어디 갔었는지 확실하게는 듣지 못했다.
ㄴ′. 나는 영민이가 어디 갔었는지 [확실하게 듣지]는 못했다.

(29ㄱ)에서 알 수 있듯 '확실하게' 자체에는 '은/는'이 자연스럽게 결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뒤에 부정적인 서술어가 사용되면 '은/는'의 자연스러운 결합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차이는 후행하는 '-지 못하다'에 의해서 발생한다. 즉 (29ㄴ′)에서와 같이 '은/는'은 '[확실하게 듣지]' 전체를 양화 영역으로 삼고 있으나, '은/는'이 정보적 가치가 큰 '-게' 절로 위치를 옮겨 감으로써 (29ㄴ)과 같은 문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로 말뭉치를 살펴보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등의 부사절에 '은/는'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정 표현이 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은/는'이 부사절에 직접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양화 영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은/는'의 분포를 파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3.2.3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필요성만을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대조 표지 '은/는'이 결합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3.2.2. 목적절을 이끄는 연결어미

Cristofaro(2003)는 특정한 사태(State of Affairs, SoA)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 다른 사태(SoA)를 수행할 때, 두 사태는 목적의 관계에 있다고 정의한다. 이에서는 목적절의 범언어적 특징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시된 내용을 네 가지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절의 행위자는 주절의 행위자와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목적절은 언제나 주절 사태에 후행하는 사태를 나타내므로 시위치가 항상 정해져 있다. 셋째, 목적절의 실현은 주절 사태의 실현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는 주절 사태가 실현되었다고 해서 목적절의 사태도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민이는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했다."와 같은 문장에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 '노력한' 결과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임채훈(2014)에서는 목적절이 '비실현 함의를 지닌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 목적절이 주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점이

다. 앞서 언급하였듯 목적절과 주절은 별개의 사태(SoA)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목적절이 특이하게도 보절(complement clause)과 유사한 수준으로 주절에 통합되어 있다고 한다. 이때 보절이란 동사가 요구하는 논항의 자리를 채워 넣는 절의 유형을 의미하며, 아래의 that-절과 같이 명사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Dixon 2010:370).

(30) ㄱ. I_A heard [the result]$_{NP:O}$.
ㄴ. I_A heard [(that) Brazil beat Argentina]$_{CoCl:O}$. (Dixon 2010:371)

위 예문에서 that-절은 주절 서술어 'hear'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항이라는 점에서 'hear'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hear'와 that-절은 의미적으로 통합된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목적절은 보절이 보이는 의미적 통합도와 유사한 정도의 통합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목적절이 주절에 통합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보절 관계 및 목적절의 의미적 통합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1) **(주절에의) 의미적 통합도 위계** (Cristofaro 2003:166)
Phasals > Modals > Manipulative('make') > Purpose, Manipulative('order'), Desideratives, Perception

(31)의 위계로부터 알 수 있듯, 목적절은 '명령하다'류 조종동사(manipulative)나 기원동사(desiderative), 지각동사(perception)의 보절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도를 보인다. 이는 조종동사, 기원동사, 지각동사 모두 주절 사태의 실현이 보절 사태의 실현을 보장하지 않는 서술어 부류이기 때문이다. 목적절도 마찬가지로 주절 사태의 실현이 목적의 실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부류와 동일한 수준의 통합도를 지니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목적절이 여타 보절 유형과 유사한 성질을 보인다는 점은 목적절의 실현을 설명할 때 중요하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목적절은 동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항, 즉 보절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목적절과 보절의 관계는 이

미 여러 논의에서 지적된 바 있기도 하다. 일례로 문숙영(2019ㄱ)에서는 Schmidke-Bode(2009)를 인용하면서 범언어적으로 목적절이 보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다. 목적절은 의무적으로 사용되며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바로 목적절이 동사가 요구하는 논항으로 실현된 경우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한국어 논의에서는 대체로 그러한 목적절이 '필수적 부사절'로 다루어져 왔다. 다음의 예문들에서 밑줄 친 부분이 보절로 실현된 목적절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노력하다, 가르치다' 등의 동사가 요구하는 성분이며 생략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32) ㄱ. 친절하게 대해 드리고 <u>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u> 노력해야지.
ㄴ. 어머니는 <u>내가 훌륭한 인물로 자라도록</u>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 늘 신경을 썼다.
ㄷ.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모두 그의 말에 공감하며, <u>그가 말한 대로 실천에 옮기도록</u> 부추겼다.

이러한 목적절은 대표적으로 '-게, -도록, -(으)려고, -고자' 등의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구체적인 어미 목록은 논의마다 다소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중 박진희(2011)에서의 목록을 가져오면 아래와 같다.

(33) 목적절을 이끄는 연결어미 (박진희 2011)
: -고자, -게, -도록, -(으)라고, -(으)러, -(으)려, -(으)려고

박진희(2011)에 따르면 (33)에 제시된 연결어미들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은 (ㄱ) 목적절이 '의도'의 양태 의미를 포함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능력 부정 '못'과의 공기 유무, 목적절 내 심리 동사의 사용 가능 여부, 그리고 주어 일치 제약 유무라는 세 가지 사항을 통해 판단된다. 두 번째 기준은 (ㄴ) 주절에 명령, 약속, 청유, 경계 등을 나타내는 종결어미가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통해 목적의 연결어미들을 분류하면 총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된다.

<표 10> 국어 목적절의 유형(박진희 2011:205)

		(ㄱ) '의도'의 양태 의미	(ㄴ) 수행적 종결어미와의 공기 관계
유형1	-(으)려 -(으)려고 -고자 -자고	O	X
유형2	-(으)러	O	O
유형3	-게 -게끔 -도록	X	O
유형4	-(으)라고	X	X

<표10>에 제시된 두 가지 기준은 목적절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각각의 기준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첫 번째 기준, 즉 '의도'의 양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기준을 통해서는 목적절 어미가 어떤 서술어와 잘 어울리는지를 알 수 있다. 유형1에 해당하는 어미들부터 검토해 보면, '-려/려고/고자/자고'는 주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직접 행동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주절과 주어 일치 제약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능력을 부정하는 '못'과 어울릴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어미들은 '노력하다' 혹은 '애쓰다'류의 동사와 함께 어울려 이들 동사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으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34ㄴ)에서는 '-려고' 절을 삭제할 경우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려고'절이 '노력하다'가 요구하는 성분절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ㄱ. 승연이는 졸지 않으려고 박하사탕을 먹었다.
ㄴ. 승연이는 졸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노력하다'의 보절]

한편 유형3에 해당하는 '-게/게끔/도록'은 '의도'의 양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즉 주절의 주어가 의지를 가지고 직접 행동한다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이 부류에 속하는 어미들은 주절의 주어가, 다른 개체들이 어떤 목표 상태에 도달하도록 행동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문숙영(2019ㄱ:186)에서 설명하였듯이, 유형3의 어미들은 목적절을 이끌 때 '유도하다, 지시하다, 요구하다, 강요하다, 권하다, 명령하다, 당부하다' 등의 조종동사, 혹은 '교육하다, 가르치다'와 같은 동사와 함께 자주 사용된다.[47] 이들 동사가 사용되면 목적절은 동사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35) ㄱ. 영민이는 승연이가 속마음을 털어놓도록 조용한 곳으로 갔다.
ㄴ. 영민이는 승연이가 속마음을 털어놓도록 부추겼다. ['부추기다'의 보절]

이처럼 목적절은 특정 부류의 동사와 어울릴 때 동사의 필수 성분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목적절이 동사가 요구하는 성분인가 아닌가에 따라 대조 표지 '은/는'의 결합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목적절이 동사의 성분절로 사용되었을 때는 대조 표지 '은/는'이 결합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은/는'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 (36)~(37)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6) ㄱ. 승연이는 졸지 않으려고 박하사탕을 먹었다.
→ *승연이는 졸지 않으려고는 박하사탕을 먹었다.

47) 다만 이들 어미도, 목적절에 '않다'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유형1 어미('-려/려고/고자/자고')들과 동일하게 '노력하다, 애쓰다'류 동사의 보절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않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문장이 매우 어색해진다. 아래의 예문을 보라.
ㄱ. 영민이는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않게/않게끔} 노력했다.
ㄴ. 영민이는 성적이 {?올라가도록/??올라가게/??올라가게끔} 노력했다.

ㄴ. 승연이는 졸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 승연이는 졸지 않으려고는 노력했다. 그러나 필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37) ㄱ. 나는 네가 착하게 행동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나는 네가 착하게 행동하도록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ㄴ. 나는 네가 착하게 행동하도록 가르쳤다.
→ 나는 네가 착하게 행동하도록은 가르쳤다. 그러나 물건을 훔치라고 가르친 적은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목적절이 보절로 쓰일 때 주절 동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어 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위의 (36ㄴ)에서 '노력하다'의 경우에는 '-려고' 절이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어 주며, (37ㄴ)에서 '가르치다' 또한 마찬가지로 '-도록' 절이 가르침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목적절이 주절 동사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을 한정해주는 경우에만 대조 표지 '은/는'이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절이 주절 동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즉 목적절이 주절 동사가 요구하는 성분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절과는 별개의 사태를 나타낸다면 대조의 '은/는'을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3.2.1절에서 (26)번 예문을 통해 설명한 바 있는데, 논의를 위해 해당 예문을 다시 가져와 보면 아래와 같다.

(26) (영민이가 일찍 일어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일찍 잔 상황)
ㄱ. *영민이는 일찍 일어나려고는 일찍 잤다.
ㄴ. *영민이는 야식을 먹지 않으려고는 일찍 자지 않았다.

위 (26)에서의 목적절은 주절 동사를 수식하고 있지 않으며, 주절과는 별개의 사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목적절에 '은/는'이 결합하여도 주절 서술어가 성립

하는 모습을 제대로 한정해주지 못한다. ‘일찍 일어나려고’였든 ‘야식을 먹지 않으려고’였든 간에 실제 세계에서 ‘일찍 잔’ 모습은 변함없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조의 ‘은/는’은 주절 서술어가 성립하는 모습을 한정해줄 수 있는 목적절에만, 즉 동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목적절에만 결합이 가능한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준, 즉 주절에 수행적 종결어미가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목적절이 주절에 의미적으로 통합된 정도와 관련이 있는 기준이라 생각된다. 앞에서 Cristofaro(2003)가 제시한 의미적 통합도 위계를 다시 확인해 보자.

(38) **(주절에의) 의미적 통합도 위계** (Cristofaro 2003:166)

Phasals > Modals > Manipulative(‘make’) > Purpose, Manipulative(‘order’), Desideratives, Perception

목적절은 주절 사태의 실현과는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명령하다’류 조종동사, 기원동사, 지각동사 등의 보절과 유사한 통합도를 보인다. 이들에 비해 ‘만들다’류 조종동사의 보절은 좀 더 높은 정도의 통합도를 보인다. 왜냐하면 ‘만들다’류 서술어는 결과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절의 실현은 주절 사태의 실현을 통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엄마는 내가 진실을 말하게 만들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만드는 것’이 실현되면 ‘내가 진실을 말한 것’ 또한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결과절의 사태와 주절 사태는 함께 실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따라서 결과절은 주절에 통합된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절에 수행적 종결어미가 사용될 수 있는 유형3의 어미들은 목적뿐 아니라 결과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게, -게끔, -도록’은 목적절을 이끌기도 하지만, 그보다 주절에의 통합도가 높은 결과절을 이끄는 데에도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형3의 연결어미들이 수행적 종결어미와 공기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주절과의 통합 정도가 다른 연결어미에 비해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게, -게끔, -도록’ 절이 나타내는 사태는 주절 사태와 하나로 응집된 정도가 높

기 때문에 '-자', '-아라/어라' 등의 수행적 종결어미가 문장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고자, -자고'와 같이 목적절만을 이끌 수 있는 연결어미들은 주절로부터 다소 분리된 사태만을 표상하므로 주절과 응집된 정도가 비교적 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행적 연결어미가 목적절까지 아울러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자, -자고' 등의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48)]

다만 유형3의 연결어미, 즉 '-게, -게끔, -도록' 중에서 '-도록'은 '만들다, 하다' 동사와 어울리거나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면 결과절을 이끄는 데에 활발히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 결과절을 이끄는 '-도록' 또한 마찬가지로 동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절을 이끄는 경우에만 대조의 '은/는' 결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아래 (39)는 그 예이다.

(39) ㄱ. ['만들다'의 보절로 사용되는 경우]
그의 서투름이 <u>그를 신뢰하도록</u> 만들었다.
→ 그의 서투름이 그를 신뢰하도록은 만들었다. (그러나 그를 좋아하도록은 만들지 못했다.)
ㄴ.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
철수는 모든 종이를 <u>길이가 5cm가 되도록</u> 잘랐다.
→ *철수는 모든 종이를 길이가 5cm가 되도록은 잘랐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긴 길이로는 자르지 않았다.)

이에 반해 '-게'는 목적절 및 결과절을 이끄는 데에 활발히 사용될 뿐 아니라 동사의 방식을 나타내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즉 목적절을 이끄는 '-도록, -려고' 등의 여타 어미들보다 사용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게'에도 대조의 '은/는'이 결합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은/는'이 주로 결합하는가? '-게'는 용법이 여러 가지인 만큼 '은/는'이 결합할 수 있는 상황도 다양하므로, 이

48) 다만 유형2에 해당하는 '-(으)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으)러'는 수행적 연결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어미이지만, 결과절을 이끄는 데에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으)러'가 수행적 연결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2.3. 연결어미 '-게'

가장 먼저는 '-게' 절이 목적절을 이끄는 것 외에도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박소영(2001)에 따르면, 연결어미 '-게'는 동작 동사의 어떤 하위 사태를 수식하느냐에 따라 쓰임이 두 부류로 나뉜다.

(40) ㄱ. [방식] 순희가 서투르게 테이블을 닦았다.
ㄴ. [결과] 순희가 깨끗하게 테이블을 닦았다.

(40ㄱ)에서 '-게' 절은 '닦다' 동사가 행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반면, (40ㄴ)에서 '-게' 절은 '닦다' 동사의 결과를 나타낸다. 즉 '-게' 절은 동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나타낼 수도, 결과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게'는 어떠한 방향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자·타동사나, 창조동사와 함께 어울릴 때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만들다, 하다'와 함께 쓰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게' 절이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40)에서의 두 가지 쓰임 외에도 '-게' 절은 여러 용법을 지닌다. 이는 지각동사와 함께 쓰여 지각의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살다, 지내다, 존재하다' 등의 동사와 함께 쓰여 이들 동사의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부류의 동사들과 함께 '-게' 절이 쓰이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동사 자체보다 '-게'절이 나타내는 내용의 정보적 가치가 더 큰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 (41)을 보면, 지각동사나 '살다, 지내다, 존재하다' 등의 동사가 사용되었을 때 '-게' 절이 생략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는 것이 드러난다.

(41) ㄱ. 금성은 이렇게 해가 뜨기 전에 혹은 해가 진 직후 이때만 굉장히 밝게 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행성 별처럼 생각이 됐겠죠.
ㄴ. 저런 얘기가 지금 다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ㄷ. 그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고독한 사내였다. 어린 내가 보기에도 우리 마을 사람들은 고독하게 지낼 틈이 없었다.
ㄹ. 서울로 이사 가서 어머니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넉넉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거야말로 남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는 일이었다.

이처럼 '-게'는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게'의 모든 용법에 대조 표지 '은/는'이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대조 표지 '은/는'이 사용될 수 있으려면 어떤 동사가 요구하는 방식 혹은 결과가 여러 가지이고 '은/는'을 사용해 그 중 하나만 선택한다는 의미가 발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의미를 발생시키는 동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주절 동사의 의미에 이미 상태 변화의 목표 지점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사의 결과 상태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은/는'을 통해 결과끼리 비교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아래의 (42)는 박소영(2001:46)에서 제시된 결과 상태 구문의 예를 일부 수정하여 가져온 것이다.

(42) ㄱ. 영민이는 옷을 깨끗하게는 빨았다.
ㄴ. 영민이는 철사를 둥글게는 휘었다.

(42)에서 '빨다'와 '휘다'는 동사의 의미 자체에 결과 상태, 즉 '깨끗하다'와 '둥글다'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깨끗한' 혹은 '둥근' 결과 외에 다른 결과를 상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위 (42)에서 '은/는'이 '빨다/휘다'의 결과 자체를 비교하기 위해 쓰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위 예문들은 오히려 '옷을 [깨끗하게 빨기]는 했다, 그러나 [제대로 말리지를 않았다]'거나 '철사를 [둥글게 휘기]는 했다, 그러나 [자르지는 못했다]'에서처럼 대조의 '은/는'이 동사구 전체에 결합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훨씬 더 자연스럽다.

결과-결과 간의 비교뿐 아니라 방식과 방식 간의 비교 또한 마찬가지이다. 어떤 동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 자체가 많지 않다면, 일상에서 '은/는'을 통해 대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한 적을 것이다. 가령 (43ㄱ)의 예문에서는 방식을 나타내는 '-게' 절에 '은/는'이 결합하여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쓰임이 일상

언어에서 과연 자주 쓰인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일상 언어에서는 '은/는' 이 방식 자체의 대조를 위해 쓰이기보다, (43ㄴ)에서처럼 '-게' 절보다 큰 단위에 결합하여 대조를 나타내는 경우가 더욱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43) ㄱ. 영민이는 밥을 맛있게는 먹었다. (그러나 빠르게 먹지는 못했다.)
ㄴ. 영민이는 [밥을 맛있게 먹기]는 했으나 이내 체를 했다.
→ 영민이는 밥을 맛있게는 먹었으나 이내 체를 했다.

'-게' 절에 '은/는'이 결합하여 대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결국 동사 자체가 여러 가지 방식이나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에서 '보이다, 들리다'류의 지각동사는 '-게' 절을 사용하여 지각의 내용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여러 가지 지각의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은/는'을 사용할 수 있다.[49] 혹은 '살다, 지내다'류 동사처럼 여러 방식을 요구하는 동사 또한 '-게' 절에 '은/는'이 결합하여 상태 간 대조를 나타낼 수 있다.

(44) ㄱ. 그가 좀 깐깐하게는 보여도 비겁하게는 보이지 않았다.
ㄴ. 그의 말이 고맙게는 들렸지만, 서글프게 들린 것도 사실이었다.
ㄷ. 나는 가난하게는 살아도 구차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ㄹ. 남들처럼 호강하면서는 살지 못해도 사람답게는 살아야 하는데.
ㅁ. 저는 요즘 건강하게는 지내는데 행복하게 지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에 더해, '-게' 절이 정도를 표현할 때도 대조의 '은/는'이 결합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은/는'이 정도 표현에 결합하여 척도 함축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49) 이 절에서는 연결어미 '-게'만 다루고 있지만, '-게' 외에도 동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존재한다. '-어서'가 그러한 어미의 대표적인 예이다. '-어서'는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 쓰이기도 하지만, 방식을 나타내는 절을 이끌 수도 있다. '-어서'가 방식절을 이끄는 경우에는 '-게' 절과 동일하게 대조의 '은/는'이 결합할 수 있다.
예 여기서 걸어서는 나갈 수 있어.

여러 논의에서 지적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김태인(2019)에서는 빈도 부사어에 '은/는'이 결합하면 일정한 척도가 형성되고, 그 척도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놓인 요소가 부정된다는 의미가 발생한다고 하였다.[50]

(45) ㄱ. 단우는 삼겹살을 자주는 먹는다.
ㄴ. *단우는 삼겹살을 늘은 먹는다. (김태인 2019:486에서 인용)

위의 예문에서는 '자주'라는 빈도 부사가 사용되었는데, 이에 '은/는'이 결합함으로써 {Ø, 가끔, 자주, 늘} 등의 척도가 상정된다. 그리고 '은/는'으로 인해 척도상 가장 높은 요소인 '늘'이 부정되므로, (45ㄱ)의 예문은 '자주 먹지만 늘 먹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척도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늘'에는 '은/는'이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은/는'을 통해 척도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요소를 부정해야 하는데, '늘'은 척도의 가장 위에 있으므로 더 이상 부정할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김태인(2019)에서 지적한 이러한 현상은 '-게' 절과 '은/는'의 결합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말뭉치를 확인해 보면 특히 '알다, 기억나다'류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 '-게' 절이 앎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아래 (46)의 예문들은 말뭉치에서 추출한 것으로, '은/는'이 결합함으로써 앎의 척도가 도입되고 척도의 가장 상위 요소인 '정확하게 앎, 정확하게 기억이 남'이 부정된다는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46) ㄱ.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가 없었어.
ㄴ. 완전히 밝혀낸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는 알아낸 것 같아.
ㄷ. 네, 저도 어렴풋하게는 기억이 나요.

50) '은/는'이 척도 함축을 발생시키는 것은, 2.2.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역 한정]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정도 표현에 '은/는'이 결합하여 해석을 한정하게 되면 그것이 화자가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요소라는 함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척도의 상위 요소는 부정된다는 해석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앞의 2.2.3절에서는 대조의 '은/는'이 결합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의 최대'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Horn(1984)의 Q-원리를 사용하여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정도를 나타내는 '-게' 절에 '은/는'이 직접 결합할 수 있으려면 '-게' 절이 척도 상에서 가장 높은 정도를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만 주절에 '-지 않다/못하다'와 같은 부정 표현이 사용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부정 표현이 사용되면 '은/는'이 척도상의 가장 상위 요소에도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쓰임을 살펴보면 (46)에서처럼 척도에서의 하위 요소에 '은/는'이 결합한 경우보다, (47)에서처럼 척도에서의 최상위 요소에 '은/는'이 결합하고 부정 표현이 함께 사용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7) ㄱ. 나는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소. 하지만 뭔가 상서롭지 못한 일이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오.
ㄷ.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부터 콧바람이 센 누군가가 머리맡에 앉아서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꿈을 꾸는 것 같다.
ㄹ. 한국엔 석유가 나온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몇 미터라고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다.
ㅁ. 물론 나도 확실하게는 모른다.[51]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들은 '은/는'이 '-게' 절에 직접 결합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때의 '은/는'은 '-게' 절이 아닌 동사구 전체에 결합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임동훈(2020:35)에 따르면 <V-지 않다/못하다> 구성은 'V-지'를 양화 초점으로 하여 부정의 대상으로 기술하는 형식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정 구성에 사용되는 연결어미 '-지'는 여러 근거를 검토하였을 때 명사형 어미로 처리함이 합당하며, 이러한 '-지' 뒤에 강조를 위해 조사를 결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본다. 즉 '철수가 [밥을 먹지]를 않는다.'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 뒤에 격조사 '을/를'이 결합할 수 있는 것처럼 '은/는'도 얼마든지 결합

51) 임동훈(2020)에서는 '모르다'를 '못 알다'의 보충법 형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또한 <V-지 못하다> 구성과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다.

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수가 [밥을 먹지]는 않는다.'와 같은 문장도 자연스럽게 성립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47)의 예문에서 '-게' 절에 '은/는'이 결합하는 것은 부정 표현이 사용됨으로써 가능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본래 'V-지는 않다/못하다' 구성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지만, '은/는'이 대조 영역 내부에 있는 요소로 이동함으로써 (47)과 같은 문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은/는'이 대조 영역 내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임동훈(2012)를 인용하여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은/는'이 도입되는 부정의 환경이 아니라면, '은/는'은 척도에서 최상위 요소를 나타내는 '-게' 절에 결합할 수 없다. 이는 아래 (48)처럼 부정 표현이 사라지면 문장이 비문이 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52]

(48) ㄱ. 나는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 나는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ㄱ′.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는 생각한다.
ㄴ. 나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
ㄴ′. *나는 정확하게는 안다.

마지막으로 '-게'는 '은/는'과 함께 쓰여 부사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49)와 같이 형용사에 '-게는'이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가 말뭉치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데, 이때의 '-게는'은 특히 척도를 상정할 수 있는 형용사에 결합한다. 더불어 '-게는' 형은 한 문장에서 한 번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척도의 양 극단에 위치한 형용사 두 개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52) 임홍빈(2007:345)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 모두 성립 가능한데, 그럼에도 부정의 표현이 사용된 (ㄴ)이 더욱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예 (ㄱ) 철수가 아주는 부지런하다.
(ㄴ) 철수가 아주는 부지런하지 않다.

(ㄱ)과 같이 척도 상 최상위 요소에 '은/는'이 결합 가능한가의 여부는 화자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겠으나, 부정 표현이 사용됨으로 인해 '은/는' 결합이 더욱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49) ㄱ. 자세 하나를 익히는 데 짧게는 닷새 길게는 보름이 걸리기도 했죠.
ㄴ. 어르신께서 하시는 일은 크게는 나라를 위하는 일이고, 작게는 백성들한테도 쓰임새가 많은 일이지 않습니까?
ㄷ. 거기에다 너구리 한 마리 값이 적게는 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이삼백만 원대에 이르기까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까지 떠돌았다.
ㄹ. 드물게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는 손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쏘고 부수고 폭파하는 소리와 빛의 파동들로 가게 안이 들들 끓었다.
ㅁ.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좁게는 교육의 문제지만 넓게는 사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게는' 부사형은 후행하는 동사구를 작용역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즉 (49ㄱ)과 같은 문장에서는 '짧게는'이 [닷새 걸리다], '길게는'이 [보름이 걸리다]에 걸쳐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말뭉치를 검토해 보았을 때 '-게는' 형이 대부분 동사구 바로 앞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게는'형은 일반적인 성분부사와 동일하게 동사·동사구를 수식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겠으나, 완전히 성분부사로 파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성분부사와 달리 '짧게는, 길게는' 등이 동사구의 속성이나 내용을 드러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는' 부사형의 분류에 관하여서는 본고에서 더 이상 다루지는 않겠으나, 이러한 형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의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4.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연결어미+은/는'

앞의 3장에서 연결어미와 '은/는'이 공시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를 다루었다면, 이 장에서는 '연결어미+은/는' 구성이 하나의 단위로 굳어져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다룬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는', '-고서는', '-다가는', '-아서는/어서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할 것인데,[53] 해당 구성들은 조건절을 이끌면서도 후행절에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구성들의 의미는 연결어미 '-고/고서/다가/어서'와 '은/는'의 공시적인 의미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4.1절에서는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의 특징을 검토하고, 4.2절에서는 이 구성들이 어떤 경로를 거치며 부정적 조건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는지 탐색해볼 것이다.

4.1.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의 특징

이 절에서는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이 하나의 단위로 굳어지면서 어떤 특징을 보이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의 3.1절에서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에 틀 표지 '은/는'이 결합할 수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이때 '은/는'의 결합이 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은/는'이 사용되어도 대체로 문장 의미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였다. 틀 표지 '은/는'은 주절의 성립 배경을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연결어미 절과 주절 간의 배경적 관계는 '-고, -고서, -다가, -어서'와 같은 연결어미들을 통해 이미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 어미가 애초에 후행절의 성립 영역을 선행절 이후의 시간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은/는'이 사용되어도 어떤 의미가 새로이 추가되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때의 '은/는'이

53) 이 외에도 연결어미와 '은/는'이 함께 쓰이면서 특수한 의미를 획득하게 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가령 습관이나 반복을 나타내는 '-고는 하다' 구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연결어미+은/는'이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사례로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만 다루었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사례들을 아우르지 못한 본고의 한계로 남겨두고자 한다.

대체로 생략되어도 무방하다는 특징을 지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 경우의 예로 3.1절에서 제시한 예들을 일부만 다시 가져와 보면 아래 (1)과 같다.

(1) ㄱ. 회사의 동료들은 내 모습을 보고(는) 고개들을 돌렸다.
ㄴ. 어린애같이 순수한 얼굴을 하고서(는) 아주 못하는 말이 없구나.
ㄷ. 그리고 펴진 쇠를 접어서(는) 다시 두들겨 합칩니다.
ㄹ. 응이를 그릇째 들고 훌훌 마시다가(는) 질질 흘리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에서와 달리, 시간 관계 연결어미에 '은/는'이 결합하여서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존재한다. 아래 (2)의 예문들이 그 예이다.[54]

(2) ㄱ.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어머니의 완고하신 성품을 꺾을 수가 없었소.
ㄴ. 너를 만나지 않고서는 한숨도 잠이 안 오겠네.
ㄷ. 혼자서 수행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ㄹ. 내 잘못의 원인을 남에게 두어서는 그 잘못을 없앨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ㅁ. 시는 시 자체로 의미가 되어야지 목적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2)의 예문들은 대체로 '은/는'을 삭제할 수 없다는 점, 또 '은/는'이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1)의 예문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즉 (2)에서 사용된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은 연결어미와 '은/는'의 공시적 결합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고유한 특징들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이 하나의 단위로 굳어졌거나 혹은 그렇게 굳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

54) 본고에서는 연결어미와 '은/는'이 결합하여 조건절을 이끄는 경우만을 다루지만, 그 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부사 '없이'에 '은/는'이 붙는 경우가 그러하다.

㉠ 네 도움 없이는 헤쳐나갈 수 없었을 거야.

위에서의 '없이는'은 분명 조건을 나타내는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고의 관심 대상은 연결어미에 '은/는'이 결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로 다루지는 않았다.

로 본다. 이하에서는 이들 구성의 여러 특징 중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주목할 것이다.

(3) ① 특징 1. 조건절을 이끌며, 후행절에 [부정적 결과]가 드러난다.
② 특징 2. 선·후행절에 쓰이는 서술어의 부류가 달라진다.
③ 특징 3. '은/는'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다만 세 가지 특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미리 언급해 둘 점이 있다. 위에 제시한 특징들은 말뭉치를 살펴보았을 때 발견되는 경향성일 뿐,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제약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은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특성에 부합하는 정도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서는'은 세 가지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고는/고서는'이나 '-다가는'은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각각의 특징이 어떤 어미에서 잘 드러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특징 1. 조건절을 이끌며, 후행절에 [부정적 결과]가 드러난다.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의 첫 번째 특징은 이들이 특수한 의미의 조건절을 이끄는 데 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들이 사용된 조건문에서는 후행절에 [부정적 결과] 혹은 부정적인 표현이 나타나는데, 화자는 이를 통해 선행절에 나타난 행위·상태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금희(2012), 백인영(2019)에서도 제시된 바 있으며,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이 지닌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생각된다. 아래 (4)의 예문들에서 그러한 점이 잘 나타난다.

(4) ㄱ. 비가 오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비가 오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ㄴ. 여기서 잠을 자다가는 {감기에 걸릴 것이다/*숙면할 수 있을 것이다}.

→ 여기서 잠을 자면 {감기에 걸릴 것이다/숙면할 수 있을 것이다}.

ㄷ. 이 자료만 읽어서는 {핵심을 파악할 수 없다/*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 이 자료만 읽으면 {핵심을 파악할 수 없다/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위 예문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이 쓰인 조건문에서는 후행절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타나면 대체로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비문이 된다. 즉 이들 형식은 단순히 '조건'의 의미만을 나타내지 않으며 보다 특수한 영역의 조건문에 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어서는'에 가장 잘 적용된다. 말뭉치를 검토해 보면, '-어서는'이 조건 표지로 쓰였을 때는 예외 없이 후행절에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가는'의 경우 간혹 특수한 맥락이 주어지면 후행절에 [긍정적 결과]가 표현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55] '-어서는'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결과]가 연결되는 것이 대다수이다. 반면에 '-고는/고서는'은 '-다가는'이나 '-어서는'에 비해 이러한 특성을 약하게 보인다. 즉 '-고는/고서는'은 아래 예문과 같이 [긍정적 결과]가 후행하더라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5) 엄청난 악인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비슷하게 착할 거야.

종합해보면 '-어서는'은 후행절에 항상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다가는' 또한 특수한 맥락이 아닌 이상 [부정적 결과]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고는/고서는'은 후행절에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도 드물지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어서는', '-다가는'과는 차이가 있다.

2 특징 2. 선·후행절에 쓰이는 서술어의 부류가 달라진다.

55) 가령 어떤 사람 A가 야구 경기를 보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때 A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경기가 진행될수록 자신의 팀이 득점하는 모습을 보며, A는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팀이 우승하겠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제한적인 맥락에서 '-다가는'은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는 데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은 시간 관계를 나타낼 때와 조건을 나타낼 때 각기 다른 부류의 서술어와 어울린다. 이러한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시간 관계를 연결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고서/다가/어서’는 순차적 시간 관계 외에도 이유·원인이나 방법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틀 표지 ‘은/는’은 시간적 관계가 드러날 때만 결합할 수 있음을 3.1절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어미가 순차적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에 사용되는 서술어 부류가 다소 제한적이게 된다. 다음의 표를 보자.[56]

<표 11> ‘-고/고서/다가/어서’가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선행절의 서술어 부류	후행절의 서술어 부류	예문
-고, -고서	동사	동사	그는 밥을 먹고(서)는 약을 먹었다.
-다가	동사	동사	그는 그녀를 노려보다가는 이내 고개를 돌렸다.
-아서/어서	동사[57]	동사	그는 맞은편에 앉아서는 수저를 집어 들었다.

<표11>에 제시되어 있듯이, ‘-고/고서/다가/어서’는 순차적 시간 관계를 나타낼 때 선·후행절에 모두 동사가 쓰여야 한다. 그리고 틀 표지 ‘은/는’은 시간 관계가 드러날 때만 결합이 가능하므로, 마찬가지로 선·후행절에 동사가 나타난 상황에서 쓰일

56) <표11>은 박소영(2003)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에서는 특히 ‘-고’나 ‘-아서/어서’에 집중하여, 이들의 의미에 따라 선·후행절에 어떤 종류의 사태가 올 수 있는지를 정리한 바 있다.

57) 다만 3.1.2절에서 설명하였듯, ‘-아서/어서’는 일부 형용사와 함께 쓰여 시간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아서/어서’에는 틀 표지 ‘은/는’이 결합할 수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같아서는, 어려서는”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아서/어서’가 어울릴 수 있는 형용사의 목록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모든 부류의 형용사에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표11>에서 제외하였다.

수 있다.

그런데 '-고/고서/다가/어서'와 '은/는'이 함께 쓰여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표11>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어서는'에 대해 살펴보면. '-어서는'이 조건절을 이끄는 경우에는 선·후행절에 동사뿐 아니라 형용사 및 '이다'도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아래의 예문들은 말뭉치에서 추출한 것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어서는'이 조건절을 이끌 때 다양한 부류의 서술어와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58]

(6) ㄱ. 여기까지만 읽어서는[동사] 알 수 없다[형용사].
ㄴ. 정직해서는[형용사] 돈을 모으기 어렵다[형용사]는 것을 깨달았어.
ㄷ. 한두 번 봐서는[동사] 금방 잊어버려[동사].
ㄹ. 평화가 단순히 관념적이며 또한 구호적이거나, 아니면 피상적이어서는[명사+'이다']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동사]….
ㅁ. 그러므로 이 몸이 술과 담배에 절어 있어서는[동사] 끝장이다[명사+'이다'].

다음으로 '-고는/고서는'에 대해서 살펴보자. 박소영(2003)에서 제시되었듯이, 연결어미 '-고'는 [병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형용사와 어울릴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동사와만 결합한다. 즉 "그 길은 좁고 험하다."에서와 같이 여러 특성이나 사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경우에만 '형용사+-고'를 쓸 수 있고 나머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고서'를 살펴보면 이는 애초에 형용사와 어울리는 경

58) '-어서는'은 '곤란하다, (안) 되다'와 같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보절을 이끌 때도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서는' 앞에 형용사나 동사, 계사 등 다양한 부류의 서술어가 올 수 있다.
예 ㄱ. 그거는 또 무시해서는[동사]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있어서는[형용사] 안 된다.
ㄷ. 이게 끝이어서는[명사+'이다'] 안 된다.
ㄹ. 그를 가볍게 봐서는[동사] 곤란하다.
ㅁ. 두 사람 다 우리 팀에서는 없어서는[형용사] 곤란하다고.
ㅂ. 오히려 그런 인물이어서는[명사+'이다'] 곤란하지 않을까?
다만 이러한 사례들은 본문에서 함께 다루지 않는다. '안 되다', '곤란하다'가 [부정적 결과]를 나타낸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본문에서는 모두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이 접속절을 이끄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어서는 안 되다/곤란하다'에서의 '-어서는'이 접속절을 이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본고에서는 이러한 용법이 있다는 점을 각주로만 언급해 두고자 한다.

우가 거의 없다. '-고서'가 '-고'와 비슷한 쓰임을 보이기는 하지만, '-고'와 다르게 [병렬]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길은 좁고서 험하다."와 같은 문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는/고서는'이 조건절을 이끌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들이 조건절을 나타낼 때는 형용사 및 '이다'와 함께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건을 나타내는 '-고는/고서는'은 특이하게도 '않다, 아니다, 없다'와 같은 서술어에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가 전체 용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59] 즉 말뭉치를 검토해 보았을 때 아래와 같이 쓰인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7) ㄱ. 정치적 역량이 없고(서)는[형용사] 문제를 풀 수 없다[형용사].
ㄴ. 웬만한 천재가 아니고(서)는[형용사] 자신감을 잃게 된다[동사].
ㄷ. 한잔하지 않고(서)는[동사] 못 견디겠다[동사].
ㄹ. 남을 것을 훔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서)는[동사]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형용사].
ㅁ. 집중력이 없고(서)는[형용사] 불가능한 일이다[명사+'이다'].
ㅂ. 그럴 만한 근거나 개연성이 있지 않고(서)는[형용사] 믿기 힘듭니다[형용사].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조건]이라는 특수한 의미 영역 중에서도, 특히 '-고는/고서는'이 자신만의 의미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가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표11>에서 제시하였듯이, '-다가'는 시간적 관계를 나타낼 때 선·후행절에 모두 동사가 쓰여야 한다. 그런데 '-다가는'이 조건절을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의 (8)과 같이 후행절에 동사뿐

59) 반대로 '-다가는'은 '않다/없다/아니다'에 결합한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어서는' 또한 마찬가지로 '않다/없다/아니다'에 결합한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는/고서는'이 '않다/없다/아니다'에 결합한 건수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었다. 또한 '않아서는/없어서는/아니어서는'으로 쓰인 예 중 대다수가 '안 되다'의 보절을 이끄는 사례였으며, 종속절을 이끄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니라 형용사가 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선행절에 동사가 와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다가는'은 '-고는/고서는/어서는'에 비해 서술어 부류의 확장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8) ㄱ. 이불을 덮지 않고 잠을 자다가는[동사] 감기에 걸릴[동사] 것이다.
ㄴ. 저토록 오랫동안 버텨온 것을 무너뜨렸다가는[동사]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동사] 것만 같았다.
ㄷ. 자칫 잘못하다가는[동사] 그대로 떨어지겠어[동사].
ㄹ. 내가 그런 거라고 말했다가는[동사] 분위기 장난 아니겠는데[형용사]?

종합해보면,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고/고서/다가/어서'는 본래 선·후행절에 나타날 수 있는 서술어 부류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들 어미에 '은/는'이 결합하여 조건을 나타낼 때는 출현하는 서술어 부류가 보다 확장된다. 이는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이 특수한 의미를 획득하게 되면서 본래의 쓰임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쓰임으로부터 멀어진 정도는 어미마다 차이가 나는데, '-고는/고서는/어서는'에 비해 '-다가는'은 비교적 적은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의 변화

순차적 시간 관계

	선행절	후행절
-고(는), -고서(는)	동사	동사

⇒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조건

	선행절	후행절
-고는, -고서는	동사('않다' 등) 형용사('아니다', '않다' 등)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다가(는)	동사	동사	⇒	**-다가는**	동사	동사 형용사
-어서(는)	동사	동사	⇒	**-어서는**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3 특징 3. '은/는'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들 구성의 세 번째 특징은 2번 특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앞에서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이 특수한 조건 의미를 획득하게 되면서 독자적인 발달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때 기존의 쓰임으로부터 확장된 용법을 보일수록 '은/는'의 생략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어미를 하나씩 검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먼저 '-고는/고서는'부터 살펴보면, 이들 어미는 조건의 의미를 획득하면서 선·후행절에 동사뿐 아니라 형용사 및 '이다'도 쓰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는/고서는'이 사용된 조건문에서 선·후행절에 형용사나 '이다'가 등장하면 '은/는'의 생략이 어려워진다. 그런데 반대로 원래의 용법에서처럼 선·후행절에 모두 동사가 쓰이면 '은/는'이 생략되어도 문장이 이상해지지 않는다. '-고/고서'가 본래부터 선·후행절에 동사가 분포해 있기를 요구하던 어미들이기 때문이다. <표13>을 참고하여 예문 (9)를 확인해 보자.

<표 13> '-고는/고서는'의 변화

순차적 시간 관계

	선행절	**후행절**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조건

	선행절	**후행절**

-고(는), **-고서(는)**	동사	동사	⇒	**-고는,** **-고서는**	동사('않다') 형용사('아니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9) ㄱ. 정치적 역량이 없고(서)는[형용사] 문제를 풀 수 없다[형용사].
→ *정치적 역량이 없고(서) 문제를 풀 수 없다.
ㄴ. 웬만한 천재가 아니고(서)는[형용사] 자신감을 잃게 된다[동사].
→ *웬만한 천재가 아니고(서) 자신감을 잃게 된다.
ㄷ. 한잔하지 않고(서)는[동사] 못 견디겠다[동사].
→ 한잔하지 않고(서) 못 견디겠다.

위의 (9ㄱ)과 (9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선·후행절 서술어 중 하나 이상이 형용사라면 '-고는/고서는'에서 '은/는'을 삭제할 수 없다.[60] 반면 (9ㄷ)에서처럼 선·후행절에 동사만 사용된 경우에는 '은/는'이 생략되어도 상대적으로 무방하게 보인다. '-고/고서'는 원래 동사와 어울리던 어미였기 때문에 '은/는'이 사라져도 어색함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가는'을 살펴보면, 이 또한 '-고는/고서는'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용법과 동일한 서술어 부류가 쓰였을 때는 '은/는'이 생략되어도 문장이 크게 이상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되는 통사적 환경이 기존 용법으로부터 달라진 경우에는 '은/는'을 생략하기 어렵다. 다만 여기서 '-다가는'은 '-고는/고서는'이나 '-어서는'에 비해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가는'이 기존 용법으로부터 달라진 점이라고는 후행절에 형용사도 쓰일 수 있다는 점 정도인데, 말뭉치를 확인해보면 후행절에 형용사가 사용된 사례의 수 자체부터 많지 않다. 따라서

60) 다만, 본고에서는 '-고'와 '-고서' 사이의 차이를 크게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은 분명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9ㄱ)~(9ㄷ)에서 '은/는'을 삭제하였을 때, '-고'가 쓰이는 것보다 '-고서'가 쓰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9ㄱ) *정치적 역량이 없고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완전한 비문이지만, "(9ㄱ) 정치적 역량이 없고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듣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고'와 '-고서'의 의미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이겠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더 이상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추후의 논의를 기약하기로 한다.

‘-다가는’은 다른 어미들에 비해 ‘은/는’의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표와 (10)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14> ‘-다가는’의 변화

순차적 시간 관계

	선행절	후행절
-다가(는)	동사	동사

⇒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조건

	선행절	후행절
-다가는	동사	동사 형용사

(10) ㄱ. 내가 그런 거라고 말했다가는[동사] 분위기 장난 아니겠는데[형용사]?
→ *내가 그런 거라고 말했다가 분위기 장난 아니겠는데?
ㄴ. 이불을 덮지 않고 잠을 자다가는[동사] 감기에 걸릴[동사] 것이다.
→ 이불을 덮지 않고 잠을 자다가 감기에 걸릴 것이다.
ㄷ. 저토록 오랫동안 버텨온 것을 무너뜨렸다가는[동사]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동사] 것만 같았다.
→ 저토록 오랫동안 버텨온 것을 무너뜨렸다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마지막으로 ‘-어서는’을 살펴보면, ‘-어서는’은 이러한 특징을 가장 강하게 보인다. 즉 ‘-어서는’이 [조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은/는’이 결합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서는’에서 ‘은/는’을 생략해 버리면 전체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조건]이 아닌 [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르게 해석된다. 이는 ‘-어서는’이 조건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위로서 굳어진 정도가 다른 구성들에 비해 가장 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11) ㄱ. 여기까지만 읽어서는[동사] 알 수 없다[형용사].

→ *여기까지만 읽어서 알 수 없다.[61]

ㄴ. 정직해서는[형용사] 돈을 모으기 어렵다[형용사]는 것을 깨달았어.

→ *정직해서 돈을 모으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

ㄷ. 한두 번 봐서는[동사] 금방 잊어버려[동사].

→ *한두 번 봐서 금방 잊어버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고/고서/다가/어서'는 '은/는'과 결합하여 특수한 조건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들의 결합형은 연결어미와 '은/는'의 의미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특성을 보이므로, 하나의 단위로 굳어졌거나 굳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중 '-어서는'은 굳어진 정도가 가장 강하다. 즉 '-어서는'은 후행절에 언제나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며, 선·후행절에 등장하는 서술어 부류도 다르고, '은/는'의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런데 '-고는/고서는'은 선·후행절에 쓰이는 서술어 부류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통사적 특징을 획득하긴 했으나, 후행절에 반드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다가는'은 후행절에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특징을 보이지만 선·후행절에 나타나는 서술어의 부류는 본래적 쓰임으로부터 크게 멀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특히 '-다가는'은 '은/는'의 생략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는/고서는'과 '-다가는'은 '-어서는'에 비해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4.2.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의 형성

4.2.1. 함축의 관습화와 시간 관계 표지들

61) 해당 문장은 [이유]의 의미로 해석되며, '은/는'을 삭제하는 경우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기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를 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이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Traugott&König(1991)의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문법화의 중요한 기제 중 하나는 화용론적 함축의 관습화이다. 함축의 관습화란, 어떤 언어 표현이 사용될 때 화용론적 함축이 빈번하게 반복되면서 그러한 함축이 언어 표현 자체의 의미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Traugott&König(1991)에서는 함축이 굳어지는 과정에 대해 정보성(informativeness)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 화자는 자신이 말해야 하는 것 이상을 말하지 않으며, 청자는 화자가 협조적이라는 전제하에 화자의 발화를 가장 정보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려 한다(Atlas&Levinson 1981). 이러한 정보성의 원리는 발화가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되게끔 만든다. 즉 어떤 언어 표현의 함축이 '최대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빈번히 발생하다 보면, 그러한 함축이 표현의 의미 자체로 굳어지게 되면서 문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62]

함축이 관습화된 사례로 시간 관계 표지들의 변화 과정을 들 수 있다. 동시에 일어나거나(co-occurrent) 병존하는(concomitance) 사태들을 연결하는 것은 두 사태 사이에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함축을 발생시키기 쉽다. 화자가 별개의 사태를 함께 엮어 제시하면, 청자는 정보성의 원리에 의해 두 사태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제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추론하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태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는 함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결과 시간적 표지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함축이 관습화되면서 시간적 표지의 의미로 발달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시간 관계 표지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를 확인해 보자. Atlas&Levinson(1981:38)에 따르면, 발화가 말해진 것 이상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일은 흔히 발생한다. 그러한 해석은 논리적으로 볼 때 오류일 수 있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발화를 상황에 맞게 해석하도록 돕기도 한다. 아래 (12)는 Atlas&Levinson이 제시한 논리적 오류의 대표적인 예이다.

---

62) Traugott&König(1991)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주관화(subjectification)'라 일컫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법화는 담화 참여자들의 주관이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Bybee(2017:270) 역시 주관화를 '화자의 믿음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의미적·화용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12) p preceded q → p caused q
p보다 q가 먼저 발생했다. p로 인해 q가 발생했다.

(12)의 도식은 'p가 q보다 먼저 발생했음'으로부터 'p로 인해 q가 발생했다'라는 해석이 도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해석이 일상에서 흔히 발생한다는 사실은 아래 (13)의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3) ㄱ. After we heard the lecture we felt greatly inspired.
(우리는 강의를 들은 후 매우 영감을 받았다.)
ㄴ. The minute John joined our team, things started to go wrong.
(존이 우리 팀에 들어오자마자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다.)
(Traugott&König 1991:194에서 인용)

위 예문들에서는 두 개의 사태가 'after' 등의 시간적 표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13)의 발화는 대부분의 경우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사태가 후행 사태의 원인이 된다고 해석될 것이다. 왜냐하면 담화 참여자들은 발화가 '최대한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담화 참여자들이 정보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할 때, 두 사태 A·B가 함께 제시되면 A와 B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론이 발생한다. 만약 두 사태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두 사태를 단순히 시간적으로 엮어 제시하는 발화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발화될 가능성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즉 화자는 서로 연관성이 높은 사태를 선택하여 제시하고자 하고 청자는 발화를 가장 정보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려 하므로, 두 사태 사이에는 단순한 시간 관계 이상의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전체 발화는 두 사태 사이에 인과적 관계가 있다는 함축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함축이 빈번하게 반복되다 보면, 인과관계는 시간 관계 표지 자체의 의미로 굳어지게 된다. 영어에서는 'since, consequently'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

들은 본래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던 표지들이었으나 인과관계 함축이 자주 발생하면서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표지로 발달하였다. 한국어의 예로는 '-어서'를 들 수 있다. '-어서' 또한 본래 순차적 시간 관계를 나타내던 연결어미였지만, 현재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시간 관계 표지가 문법화되어 양보적 관계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아래 (14)의 예문들에서는 동시적인 복수의 사태가 'and'를 통해 나열되어 있지만, 이로부터 '일반적인 기대가 부정된다'는 양보의 함축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14) ㄱ. He can play the Beethoven sonatas and he is only seven years old.
(그는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할 수 있고, 고작 7살밖에 되지 않았다.)
ㄴ. It is midnight and Mary is still working.
(지금은 자정이고, 메리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Traugott&König 1991:200에서 인용)

앞에서 보았듯이, 두 개의 사태를 동시적 관계로 엮어 전달하는 것은 청자로 하여금 두 사태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추론을 수행하도록 만든다. 화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함께 일어나는 두 사태를 연결하여 발화하는 것은 그다지 유용한 행위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동시적인 두 사태를 함께 언급하는 것이 매우 큰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바로 두 사태가 일반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그러하다(Traugott&König 1991:200). 일례로 (14ㄱ)의 예문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일곱 살짜리 아이는 통상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양립하기 어려운 두 사태를 함께 연결하여 제시하면 화자는 청자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즉 발화의 정보적 가치가 매우 커지는 것이다. 반대로 '그는 일곱 살이고,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면 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그쳤을 것이다. 어떤 아이가 현재 일곱 살이고,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할 수 없다는 것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보 표지는 동시 발생적, 혹은 병렬적 사태를 연결하는 시간 표지로부터 문법화되는 경우가 많다. 동시 발생적인 두 개의 사태 p, q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p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q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q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큰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사태가 시간 표지를 통해 함께 제시될 때 반복적으로 '기대 부정'의 함축이 발생하고, 이러한 함축이 의미로 굳어지면서 양보 표현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영어에서는 시간 표지가 양보 표지로 문법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while, still, yet' 등이 있다. 한국어에서는 '-어도, -고도'가 양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연결어미로 사용된다. 이들은 연결어미 '-어, -고'에 보조사 '도'가 결합한 형식인데, 이때의 '-어'와 '-고'는 [동시성] 정도의 느슨한 의미를 지니는 연결사로 사용되던 것이다(이홍구 2021:49). 이처럼 별개의 두 사태를 시간적으로 연결하는 표지가 함축의 관습화를 거치며 특수한 의미를 획득하는 경우는 흔히 일어난다.

4.2.2. 행위·상태와 결과를 연결하는 조건문의 유형

지금까지 우리는 문법화의 한 기제로서 함축의 관습화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시간적으로 연결된 두 개의 사태는 정보성을 강화하려는 화용적 원리에 의해 여러 함축을 발생시키고, 그러한 함축이 굳어지면 시간 표지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문법화의 과정은 발화 전체의 정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본고는 이러한 함축의 관습화 개념을 바탕으로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을 함축의 관습화를 겪은 사례로 보고자 한다. 즉 원래 복수의 사태를 시간적으로 나열하는 데에 사용되던 표지들이, 정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함축이 굳어지면서 특수한 의미를 획득하였다고 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이하에서는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이 [부정적 결과]의 조건 표지로 발달하게 된 과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은 (ㄱ) 청자의 행위·상태와

(ㄴ) 그에 따른 결과를 언급할 때 사용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어미가 단순한 결과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부정적 결과]를 언급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이는 연결어미 '-고/고서/다가/어서'나 보조사 '은/는'의 기능만 가지고는 규명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발화는 최대한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ㄱ) 청자의 행위·상태와 (ㄴ) 그에 따른 행위의 결과를 언급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정보적인 것으로 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달리 말해 행위·상태에 대한 부정적 결과나 긍정적 결과를 언급하는 조건문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 가능한 발화는 행위·상태의 지위와 그 결과에 따라 총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표 15> 청자의 행위와 결과에 따른 발화의 정보성

(ㄱ) 청자의 행위	(ㄴ) 행위의 결과	정보적인 정도
(1) 청자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행위·상태 - 화자가 청자에게 새로이 제안한 행위나 상태 - 청자가 수행할 것으로 마음먹은 적이 없는 행위·상태	부정적 결과 초래	① 언급 시 낮은 정보성
	긍정적 결과 초래	② 언급 시 높은 정보성
(2) 청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행위·상태 - 청자가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나 이미 처해 있는 상태 - 청자가 곧바로 수행할 것으로 마음먹은 행위·상태	부정적 결과 초래	③ 언급 시 높은 정보성
	긍정적 결과 초래	④ 언급 시 낮은 정보성

위의 표를 보면, 행위·상태와 그에 따른 결과를 언급하는 조건문은 ②와 ③ 유형에서 가장 높은 정보성을 지닌다. 반대로 ①과 ④ 유형에서는 화자의 발화가 높은 정보성을 지니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각각의 유형들을 검토하면서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② 화자가 청자에게 새롭게 제안하는 행위·상태이거나, 청자가 수행할 것으로 마음먹은 적이 없는 행위에 대해 긍정적 결과를 언급하는 것은 청자의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발화를 들은 청자는 높은 확률로 자신에게 새롭게 주어진 행위를 수행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③ 청자가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나 이미 처해 있는 상태, 혹은 곧바로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발화로 인해 청자는 높은 확률로 자신의 행위를 멈추거나 수정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15) **② 유형의 발화**

ㄱ. (TV를 보며 놀고 있는 청자에게) 너 지금 숙제하러 가면 저녁에 돈가스 튀겨 줄게.

→ 청자는 자신이 하려고 마음먹은 적 없는 행위가 긍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을 듣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ㄴ. (강도가 가게에 있던 주인에게) 돈을 넘기면 바로 놓아주겠다.

→ 청자는 자신에게 새롭게 주어진 행위가 긍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을 듣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16) **③ 유형의 발화**

ㄱ. (청자가 과자를 사 달라고 떼를 쓰는 상황) 너 그렇게 떼쓰면 혼자 두고 가버린다.

→ 청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행위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을 듣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ㄴ. (강도가 가게에 있던 주인에게) 움직이면 쏜다.

→ 청자는 자신이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행위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을 듣게 되었으므로, 습관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화자는 ②와 ③ 유형의 조건문을 발화함으로써 높은 확률로 청자의 행위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곧 화자가 발화를 통해 청자의

행위·상태를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화자는 발화의 정보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선·후행절을 조합하려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발화는 일상에서 비교적 자주 사용될 것이다.

반대로 ①과 ④의 조건문 유형에서는 화자의 발화가 청자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작다. 즉 화자의 발화가 청자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먼저 ① 유형을 살펴보면, 청자가 수행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청자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애초에 청자는 그러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④ 청자가 곧 수행하려고 마음먹은 행위나 이미 수행하고 있는 행위, 혹은 이미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발화는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최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자의 현재 상황을 격려하는 정도의 효과만 있을 것이다.

(17) **① 유형의 발화**

ㄱ. (청자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상황)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갚을 거야.

→ 청자는 원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의 발화는 청자의 상태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

ㄴ. (청자가 담배를 끊으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는 상황) 담배 끊으면 금단증상 생겨.

→ 청자는 애초에 담배를 끊으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으므로, 위의 발화는 청자의 상태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

(18) **④ 유형의 발화**

ㄱ. (청자가 이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상황)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거야.

→ 청자가 이미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한다고 해서 청자의 행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ㄴ. (청자가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 상황) 매일 운동하면 건강해질 거야.

→ 청자가 이미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한다고 해서 청자의 행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결국 정보성이 낮은 발화일수록 화자의 발화는 청자의 상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유형의 발화는 일상에서 수행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진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②와 ③ 유형의 조건문들은 높은 정보성을 지니므로 일상에서 사용되는 빈도 또한 높을 것이다. 반대로 ①과 ④ 유형의 조건문들은 낮은 정보성을 지니기 때문에 사용되는 빈도가 낮을 것이라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대화의 원칙, 즉 자신의 발화가 정보적이도록 한다는 원칙을 지킨다고 가정한다면, ②와 ③ 유형의 조건문이 ①과 ④ 유형에 비해 더 높은 빈도로 사용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63]

그런데 Bybee(2010, 2017)에 따르면 문법화는 사용 빈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언어 표현이 특정한 맥락에서 고빈도로 쓰이는 경우 맥락에서의 함축이 표현 자체의 의미로 굳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②, ③ 유형의 조건문은 자신만의 특화된 표현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 ②와 ③ 유형의 조건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던 표현들이라면, 그와 함께 자주 발생하던 함축이 표현 자체의 의미로 자리 잡을 가능성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①과 ④ 유형만을 나타내도록 문법화된 형식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일상에서 사용되더라도 그 빈도가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어를 살펴보면 ②와 ③ 유형의 조건문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언어 표현들이 존재한다. 이때 ② 유형 조건문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어야'가 있으며, 이에 보조사 '만'이 추가되어 쓰이기도 한다. 한편 ③ 유형의

63) Akatsuka(1995)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인과관계에 따른 조건문(causally contingent conditionals)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함으로써 경고, 위협, 금지 등에 사용된다. 반면 시간 관계에 따른 조건문(temporally contingent conditionals)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바람직한 상황'을 나타내는 데에 주로 사용된다고 한다. 본고에서의 관점에 맞게 이를 재구성한다면 시간 관계에 따른 조건문은 ② 유형 조건문에, 인과관계에 따른 조건문은 ③ 유형 조건문에 해당할 것이다. Akatsuka의 이러한 주장은 문숙영(2016:345)에서도 인용되어 정리된 바 있다.

조건문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다음의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왜 조건문의 유형마다 사용되는 표현이 달라지는가? 사용되는 표현들이 조건문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절을 달리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4.2.3. 각 유형의 조건문에서 쓰이는 표현

이 절에서는 특히 ②와 ③ 유형의 조건문에 주목하여 이들이 어떤 의미적 특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각 유형이 어떤 언어 표현과 주로 어울리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조건문 자체의 특성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조건문의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표현의 의미 부류를 크게 묶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를 잇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Haiman(1978:583)의 연구를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조건절은 "후행 담화의 해석 틀(framework)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조건절은 후행절이 적절히 성립하기 위한 배경적인 영역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 (19)의 예문을 확인해 보자.

(19) If Max comes, we'll play poker.
(맥스가 오면 우리는 포커를 칠 것이다.)
(Haiman 1978:564에서 인용)

Haiman이 제시한 조건절의 정의를 바탕으로 위 문장을 분석해 보면, 이는 '우리가 포커를 치는 것'이 '맥스가 온' 상황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if p, (then) q' 구성에서 조건절 p는 q를 추론하기 위한 틀이자, q가 적절히 성립하는 영역을 한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역 한정]이라는 조건절의 기능은 [배제]의 기능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후행절의 해석 영역을 한정한다는 것은 곧 그 외의 영역을 해석 영역에서 배제한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위 (19)의 예문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

리가 포커를 치는 것'이 '맥스가 오는' 영역에 한정하여 성립한다는 것은, 그 외부의 영역이 성립 영역에서 배제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맥스가 오는 것' 외부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포커를 치지 않을 것이거나 적어도 그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②와 ③ 유형의 조건문을 나타내는 데에 [배제]의 보조사가 활발히 사용된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임동훈(2015)에서 제시한 [배제] 보조사의 목록을 참고하여, 아래 (20)에서 이를 확인해 보자.

(20) [배제] 보조사의 목록
ㄱ. 소극적 배제 : **'은/는'**, '(이)야/야'
ㄴ. 적극적 배제 : **'야'64), '만'**, '뿐', '밖에'

해당 목록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요소는 '야', '만'과 '은/는'이다. ② 유형의 조건문에서는 적극적 배제의 '야'와 '만'이 활발히 사용되고, ③번 유형의 조건문에는 소극적 배제의 '은/는'이 주로 쓰이기 때문이다.65) 이하에서는 ②와 ③ 조건문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에 쓰이는 보조사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① ②번 유형 조건문에 쓰이는 표현

먼저 청자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행위·상태에 대해 긍정적 결과를 언급하는 발화인 ② 유형의 조건문을 다루기로 한다. Fillenbaum(1986:185)에 따르면 행위의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발화는 흔히 일정한 함축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잔디를 깎아 주면 삼만 원을 줄게'라는 발화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들은 청자는 잔디를 깎

64) 임동훈(2015)에 따르면, [적극적 배제]의 의미를 나타내는 '야'는 일부 격조사나 어미 뒤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야'가 적극적 배제를 나타내는 경우는 바로 [필요조건]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65) 앞서 2.2절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틀 화제로서의 '은/는'은 [영역 한정]이라는 기능으로 인해 배제 혹은 대조의 의미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은/는'을 [영역 한정]을 수행하는 틀 요소로 파악하는 것은 임동훈(2015)에서 '은/는'이 [소극적 배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던 것과 동일한 관점이다.

지 않는 경우 삼만 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추론하게 된다. 이러한 함축은 세상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청자가 잔디를 깎든 그렇지 않든 돈을 받을 것이었다면 화자의 말은 그다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기에 구태여 발화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잔디를 깎아 주면 삼만 원을 줄게'라는 발화에서는 정보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함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잔디를 깎는 것은 삼만 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해석된다.[66]

이처럼 긍정적 결과를 언급하는 조건문에서는 선행절이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미래에 충족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 혹은 필요조건'이라는 함축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문은 필요조건을 나타내는 문법요소와 쉽게 어울릴 수 있을 것인데, 이는 한국어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② 유형의 발화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야'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때의 '-어야'는 '-어'에 강세 보조사 'ㅅ아'가 결합한 형식인데,[67] 'ㅅ아'는 현재 [배제]의 보조사 '야'로 발달해 있기도 하다. 이 '-어야'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필요조건]의 관계로 연결됨을 나타냄과 동시에 [적극적 배제]의 용법을 지닌다(임동훈 2015:356). 즉 '-어야'는 [필요조건]이라는 함축이 쉽게 발생하는 ② 유형 조건문과 의미적으로도 잘 부합하는 형태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야'가 ②번 유형 조건문에서 쓰이는 경우에는 또 다른 [적극적 배제] 보조사인 '만'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쓰임은 ② 유형 조건문에서의 선행절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해석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배제]의 보조사 '만'을 사용함으로써, 선행절이 성립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해석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1) 지금 밥을 {먹어야/먹어야만} 이따 배고프지 않을 수 있어.

---

66) 만약 잔디를 깎는 것과 상관없이 돈을 줄 것이었다면, 화자가 '잔디를 깎으면 삼만 원을 줄게.'라고 발화하는 것은 대화의 격률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Horn(1984)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로서 R-원리("말해야 하는 것 이상을 말하지 말라")를 제시한 바 있다.

67) 이는 박진호(2015:423), 임동훈(2015:355 각주 28) 등에서 제시되어 있다.

위의 예문에서 '밥을 먹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연결어미 '-어야'만 사용하여서도 나타낼 수 있지만, 보조사 '만'을 결합함으로써 선행절이 충족되지 않으면 긍정적 결과도 도출될 수 없음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어야'나 '-어야만'은 ② 유형의 조건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식이다. 이는 새롭게 제안하는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는 것이 최소 조건 내지는 필요조건이라는 함축을 쉽게 발생시키기 때문이다.[68] 즉 필요조건을 나타내는 어미 '-어야'나 [적극적 배제]를 나타내는 보조사 '만'이 ② 유형 조건문에 빈번하게 쓰이는 것은, 이들이 해당 조건문과 쉽게 어울릴 만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68) ② 유형의 발화에 '최소 조건'을 의미하는 표현이 사용되는 사례는 영어에서도 발견된다. 'unless'가 그러한 예에 해당하는데, Traugott(1997)에 따르면 'unless'는 'less then, in/on/of lesse than'이라는 비교 형식으로부터 문법화된 요소이다. 그 기원에서 알 수 있듯이 'unless'는 축자적으로 '더 작은'의 의미를 나타낸다. 현재 'uness p, q'는 기저에서 'q; only if p, not q'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Dancygier 1999:170). 즉 p절은 q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는 풀어쓰자면 'p보다 작으면, q가 일어날 것이다. 최소한 p가 충족되어야 q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로 풀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unless'는 후행절이 언제나 부정적인 내용을 나타내야 한다는 제약을 지닌다. 이러한 제약은 '-어야'와 마찬가지로, 후행절이 부정적 내용을 나타낼 때 발화의 정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unless p, q' 문장을 아래와 같이 기저 의미로 풀어 써 보도록 하겠다.

예 ㄱ. Unless you give me your money I'll kill you(-).
= I'll kill you; Only if you give me your money, I will not kill you.(+)
돈을 넘겨야 당신을 죽이지 않을 거야.

ㄴ. *Unless you smoke I'll give you ten dollars(+).
= I'll give you ten dollars; Only if you smoke, I'll not give you ten dollars.(-)
*담배를 피워야 10달러를 주지 않을 거야.

각 예문의 기저 의미를 살펴보면, (ㄱ)에서는 최소 조건이 충족됨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가, (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제시된다. 그런데 (ㄴ)과 같이 미래에 청자가 수행할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그다지 정보적이지 않다. (ㄴ)은 곧 ① 유형의 발화에 해당하는데, 청자가 미래에 수행하려고 한 적이 없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는 것은 청자의 행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ㄱ)과 같은 발화는 상당히 정보적이다. 청자가 가까운 미래에 수행하여야 할 행위를 새로이 제시하되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를 함께 보이는 것은 청자의 행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unless p, q'절이 특정한 의미적인 제약을 지니게 된 것은 발화가 얼마나 정보적인가 하는 화용적 원리에 따라 문법화가 일어난 결과라 할 수 있다.

2 ③번 유형 조건문에 쓰이는 표현

다음으로 청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행위·상태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는 ③ 유형의 조건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유형의 조건문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형식이 바로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이다. 이들 어미는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함으로써 청자에게 주어져 있는 행위·상태를 고치도록 권고할 때 주로 사용된다. (22)의 예문을 보자.

(22) ㄱ. 혼자서 수행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ㄴ. 내 잘못의 원인을 남에게 두어서는 그 잘못을 없앨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22ㄱ)은 청자가 이미 혼자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을 하려는 상황일 때 청자의 행위를 막으려는 의도로 사용될 것이다. (22ㄴ) 또한 잘못의 원인을 남에게 두려는 청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제안할 때 사용하기 적합한 발화이다. 그리고 두 예문에서는 순차적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다가, -어서'에 공통적으로 '은/는'이 결합해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

그렇다면 왜 ③번 유형 조건문을 나타내는 표지에는 유독 '은/는'이 활발히 관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조건절은 [영역 한정]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배제의 보조사와 어울리기 쉽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② 유형 조건문에서 사용되는 '야', '만'이나, ③ 유형 조건문에서 사용되는 '은/는'이 모두 배제의 보조사로 분류된다는 점은 조건절 자체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은/는'은 배제의 보조사이긴 하지만, '야'나 '만'과는 달리 [적극적 배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즉 '은/는'이 ③ 유형 조건문에 사용되는 것은 이 보조사가 [적극적 배제]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 결과를 언급할 때와는 다르게,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면서 [적극적 배제]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필요 이상의 단언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23)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적극적 배제]를 나타내는 '-어야(만)'을 사용하여 ③ 유형 조건문을 달리 표현해 본 것이다.

(23) ㄱ. 혼자서 수행해야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ㄴ. 내 잘못을 남에게 두어야만 그 잘못을 없앨 길은 영원히 없다.

(23)처럼 '-다가는/어서는' 대신 '-어야(만)'을 쓰게 되면 화자는 청자의 행위를 멈추도록 제안하는 것 이상의 의도를 표현하게 되어 버린다. 즉 '혼자 수행하는 것'이나 '내 잘못을 남에게 두는 것'을 멈추도록 제안하는 것 외에, 행위를 수정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반드시 피할 수 있다는 확신도 함께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행위·상태를 수정하기만 하면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부담스러운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③ 유형의 조건문에 [적극적 배제]가 아닌 [소극적 배제]의 '은/는'이 주로 사용되는 현상은 필요 이상의 단언을 회피하고자 하는 화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임동훈(2015)에서 제시하였듯이, [소극적 배제]의 보조사에는 '은/는'뿐 아니라 '(이)야/야' 또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③ 유형의 조건문에는 '은/는'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야/야'는 사용되지 않는데, 이는 '(이)야/야'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한 결과로 생각된다. 임동훈(2015)에 따르면 '(이)야/야'는 관계적 신정보, 즉 정보 초점에만 결합하는 보조사이기 때문이다. ③ 유형 조건문에서 조건절은 청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신정보에 결합하는 '(이)야/야'는 그러한 조건절을 나타내기에 부적합한 형식인 것이다. 반대로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은/는'은 그와 같은 제약을 지니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③ 유형 조건문에는 [소극적 배제]를 나타내는 보조사 중에서도 '은/는'만 쓰일 수 있고 '(이)야/야'는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고는 한국어의 조사 '은/는'이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사례들을 두루 다루고자 하였다. 연결어미와 '은/는'의 결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연결어미와 '은/는'의 결합이 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연결어미와 '은/는'이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경우이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연결어미와 '은/는'의 결합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고찰하였다.

'은/는'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은/는'이 명사구에 결합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므로, 어떤 종류의 연결어미에 '은/는'이 결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 그러나 말뭉치만 살펴보아도 '은/는'이 연결어미와 함께 사용된 용례가 몇만 건을 넘어가므로, 이러한 용법을 연구에서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다. 본고는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연결어미와 '은/는'의 결합을 논의함으로써 '은/는'의 기능에 관한 관점을 보다 넓혀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장에서는 연결어미와 '은/는'의 기능을 각각 정리하였다. 먼저 2.1절에서는 연결어미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연결어미는 시간, 조건, 원인, 양보, 추가, 대조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되며 그 기능도 단일하지 않다. 특히 본고에서는 문숙영(2019ㄴ)을 통해 연결어미가 이끄는 절이 접속절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부사절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은/는'이 결합할 수 있는 연결어미를 의미와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16> '은/는'이 결합 가능한 연결어미의 분류

'은/는'의 기능	의미 분류	연결어미
(1) 틀 표지	시간적 관계	-고[25], -고서[3], -다가[3],

	Temporal		−으면서/−면서, −아서[2]/−어서[3], −자마자
	조건적 관계 Conditional		−다면[2], −ㄴ다면/−는다면, −라면[2], −려면/−으려면, −으면/−면[10]
(2) 대조 표지	결과적 관계 Consequence	목적 Purpose	−고자[11], −도록[5], −으러/−러, −으려/−려, −려고/−으려고
		결과 Result	−도록[5], −게[8], −게끔
	방식 Manner	실제 방식 Real manner	−게[8]

위 표로부터 알 수 있듯이,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은/는'은 크게 틀 화제 기능과 대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뉜다. '은/는'의 이러한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2.2절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연결어미와 결합하는 '은/는'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틀 화제를 표시하는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은/는'이 연결어미에 결합할 때는 명사구에 결합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우들을 설명하기 위해 Chafe(1976)에서 제안한 틀 화제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때 틀 화제란 주절의 해석 영역을 한정하는 성분을 의미하며, 연결어미에 결합하는 '은/는' 또한 틀 화제 표지로서 영역 한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장에서는 연결어미와 '은/는'의 결합이 공시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례들을 다루었다. 먼저 틀 표지로서의 '은/는'은 종속접속절 중에서도 특히 시간이나 조건절에 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연결, 시간, 조건, 원인, 양보 등 접속절의 여러 의미 유형 중에서 시간절과 조건절만이 후행절의 성립 영역을 한정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시간절은 후행절이 성립하는 시간적 영역을 제공하고,

조건절은 후행절이 적절히 성립하는 영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틀 표지 '은/는'과 쉽게 어울릴 만한 성질을 지닌다. 즉 영역 한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은/는'은 자신의 기능과 잘 맞물리는 성격의 선행절에 주로 결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조 표지로서의 '은/는'은 대체로 부사절에 결합하며, 그중에서도 방법이나 일부 목적·결과절에 결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목적절이나 결과절의 경우, '은/는'은 해당 절들이 주절 동사의 논항으로 실현되었을 때만 결합이 가능하다. 이러한 목적·결과절은 동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므로 문장에서 삭제될 수 없는데, 이로 인해 기존 논의에서는 이들을 '필수적 부사절'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은/는'이 결합 가능한 방법절 및 일부 목적·결과절은 모두 주절과 별개의 사태를 나타내지 않고, 주절 서술어에 의존하여 수식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4장에서는 연결어미와 '은/는'의 결합이 공시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이미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경우들을 살펴보았다.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이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 이들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서 하나의 단위로 굳어졌다고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들은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며 후행절에 [부정적 결과]가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고/고서/다가/어서'는 시간 관계를 나타낼 때 선·후행절에 동사만 쓰일 수 있지만, '은/는'과 함께 조건을 나타낼 때는 선·후행절에 동사뿐 아니라 다양한 서술어 부류가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은/는'이 삭제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특히 선·후행절에 동사가 아닌 다른 서술어 부류가 쓰였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본고는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이 특수한 용법을 지니도록 문법화된 원인을 '함축의 관습화'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화용론적 함축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면 그것이 언어 표현의 의미 자체로 굳어질 수 있게 되는데,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표현이 청자에게 주어져 있는 상태·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는 데에 주로 사용된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이미 주어져 있는 행위나 상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보다 부정적 결과를 언급하는 것이 발화 전체의 정보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즉 발화의 정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함축이 반복되다가, 결과적으로는 '-고는/고서는/다가는/어서는'이 특정한

용법으로만 사용되도록 굳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기존 논의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은/는'과 연결어미의 결합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다루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방식에는 큰 한계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은/는'이 결합하는 연결어미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에 '은/는'과 결합 불가능한 어미들을 제대로 다룰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라 하더라도, 왜 어떤 어미에는 '은/는'이 결합하고 어떤 어미에는 그럴 수 없는 것인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연결어미 '-자'의 경우에는 '은/는'이 결합 불가능한데, 유사한 의미의 '-자마자'에는 '은/는'이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어미들의 통시적 변천을 기반으로 '은/는'의 결합 기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강규영(2017), “연결어미 ‘-다고’류와 조사 ‘이라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구현정(1999), “범언어적으로 본 조건 범주의 문법화”, ≪한국어의미학≫ 4, 한국어의미학회, 161-188.

김민국(2019), “한국어 주어의 격표지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천학(2015), “한국어의 순간성 동사에 관한 고찰”, ≪형태론≫ 17, 형태론, 22-41.

김태인(2019), “‘-은/는’이 결합하는 일부 한국어 부사어의 정보구조에 대하여”, ≪한글≫ 325, 한글학회, 465-500.

남풍현(2000), “조건법 연결어미 ‘-면’의 발달”, ≪구결연구≫ 6, 구결학회, 11-40.

목정수(1998), “한국어 격조사와 특수조사의 지위와 그 의미 - 유형론적 접근”, ≪언어학≫ 23,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47-78.

문숙영(2016), “영어권에서의 한국어 문법 기술 - 단행본 시리즈를 중심으로”, ≪國語學≫ 77, 국어학회, 287-375.

문숙영(2019ㄱ), “한국어의 부사 및 부사절의 언어유형적 특징”, ≪국어국문학≫ 187, 국어국문학회, 5-53.

문숙영(2019ㄴ), “과연 한국어의 종속접속절은 부사절인가”, ≪언어≫ 44(3), 한국언어학회, 489-532.

박민신(2016), “연결어미 ‘-어서’의 다의성 연구”, ≪한국어 의미학≫ 54, 한국어의미학회, 1-31.

박소영(2001), “결과 부사형 ‘-게’에 대한 연구”, ≪한글≫ 252, 한글학회, 45-77.

박소영(2004), “한국어 동사구 수식 부사와 사건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재연(2011),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 연구 - ‘양보, 설명, 발견’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국어학≫ 62, 국어학회, 167-197.

박지용(2020), “원인, 이유의 연결어미 ‘-어서’와 ‘-니까’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진호(2009), “동시성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면서’의 비대칭적 용법”, ≪한국언어문화≫ 38, 한국언어문화학회, 173-187.
박진호(2015),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국어학≫ 73, 국어학회, 375-435.
박진희(2011), “국어 목적절의 네 가지 유형”, ≪국어학≫ 61, 국어학회, 181-206.
박철우(2015), “보조사의 기능과 정보구조”, ≪국어학≫ 73, 국어학회, 269-307.
백인영(2019), “‘-어서는’의 조건 의미와 [부정] 구문의 형성”, ≪언어와 정보 사회≫ 40,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69-299.
신아영(2019), “한국어 ‘-어서’, ‘-니까’ 접속문의 ‘-었-’ 결합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주호(2006), “현대국어 연결어미 ‘-면서’에 관한 고찰”, ≪현대문법연구≫ 45, 현대문법학회, 181-200.
이금희(2012), “조건을 나타내는 ‘-다가는, -고는, -어서는, -고서는’에 대하여”, ≪언어와 문화≫ 8(3), 227-250.
이기갑(1998), “‘-어/어서’의 공시태에 대한 역사적 설명”, ≪담화와 인지≫ 5(2), 담화·인지언어학회, 101-121.
이홍구(2021), “중세 한국어 양보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동훈(2007), “한국어 조사 ‘만’과 ‘도’의 의미론”, ≪朝鮮學報≫ 125, 대한조선학회, 1-20.
임동훈(2012), “‘은/는’과 종횡의 의미 관계”, ≪국어학≫ 64, 국어학회, 217-271.
임동훈(2015), “보조사의 의미론”, ≪국어학≫ 73, 국어학회, 335-373.
임동훈(2020), “장형 부정문의 생성과 ‘못’ 부정문의 변화”, ≪국어학≫ 93, 국어학회, 19-56.
임홍빈(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임채훈(2014), “‘목적’ 종속절의 유형론적 특징과 한국어 학습자의 목적 관련 연결어미 습득 양상”, ≪어문론집≫ 58, 중앙어문학회, 463-486.
전영철(2005), “한국어의 소위 특정성 표지들에 대하여”, ≪언어≫ 30.4, 한국언어학회, 715-743.
전영철(2006), “한국어의 대조 초점”, ≪언어학≫ 0.43,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15-237.
전영철(2013), ≪한국어 명사구의 의미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전영철(2019), "한국어 정보구조표지 '은/는'의 의미", ≪언어학≫ 0.58,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99-137.
전후민(2014), "'-다가'의 변천사", ≪우리말글≫ 63, 우리말글학회, 29-68.
정우헌(2019), "보조사 '도'의 초점 투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윤지(2016),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진(2014), "중세한국어 어미 '-아'와 '-아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함병호(2018), "한국어 정보구조의 화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함병호(2021), "한국어의 주제", ≪한국어학≫ 91, 한국어학회, 127-169.
Akatsuka, Noriko(1995), Negative conditionality, subjectification, and conditional reasoning. in Angeliki Athanasiadou & RenéDirven eds. *On Conditionals Again*, Philadelphia: J.Benjamins, 323-354.
Atlas, J. & Levinson, S.(1981), It-clefts, informativeness, and logical form: Radical pragmatics (revised standard version), in P. Cole ed. *Radic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1-61.
Bisang, W.(1998), Adverbiality: The view from the Far East, in J. Van der Auwera eds. *Adverbial Constructions in the Languages of Europe*, Mouton de Gruyter, 641-812.
Bisang, W.(2007), Categories that make finiteness : discreteness from a functional perspective and some of its repercussions, in I. Nikolaeva eds. *Finiteness : 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15-137.
Bybee, J.(2010), *Language, Usage and Cogn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ybee, J.(2017), *Language Change*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fe, L.(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harles N. Li eds.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27-55.

Clark, B.(2013), *Relevance Theory*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istofaro, S.(2003), *Subordin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ancygier, B.(1999), *Conditionals and Prediction: Time, Knowledge and Causation in Conditional Constructions* (Cambridge Studies in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ncygier, B. & Sweetser. E.(2009), Constructions with if, since and because: Causality, epistemic stance, and clause order, in Couper-Kuhlen, E. & Kortmann, B. eds. *Cause - Condition - Concession - Contrast: Cognitive and Discourse Perspectives*, Berlin, Boston: De Gruyter Mouton, 111-142.

Dixon, R. M. W.(2009), The Semantics of Clause Linking in Typological Perspective, in Dixon & Aikhenvald eds. *The Semantics of Clause Link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55.

Dixon, R. M. W.(2010), *Basic Linguistic Theory*, vol.2 (Grammatical Top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auconnier, G.(1985), *Mental spaces: Aspects of meaning construction in natural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auconnier, G.(1997), *Mappings in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llenbaum, S.(1986), The Use of Conditionals in Inducements and Deterrents, in E. Traugott, A. Meulen, J. Reilly, & C. Ferguson eds. *On Condition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79-196.

Grice, H.P.(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41

-58.

Haiman, J.(1978), Conditionals Are Topics, *Language*, 54(3), 564-589.

Haspelmath, M.(1989), From purposive to infinitive – a universal path of grammaticization, *Folia Linguistica Historica* 23(Historica vol. 10, 1-2), 287-310.

Hengeveld, K.(1998), Adverbial clauses in the languages of Europe, in J. Van der Auwera eds. *Adverbial Constructions in the Languages of Europe*, Mouton de Gruyter, 335-420.

Horn, L.(1984), Toward a new taxonomy for pragmatic inference: Q-based and R-based implicature, in D. Schiffrin eds. *Meaning, Form, and Use in Context: Linguistic Applications*,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1-42.

Jacobs, J.(2001), The Dimensions of Topic-comment, *Linguistics* 39, 641-681.

König, E.(1995), Conditionals, Concessive Conditionals and Concessives: Areas of Contrast, Overlap and Neutralization, in E. Traugott, A. Meulen, J. Reilly, & C. Ferguson eds. *On Condition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29-246.

König, E.(2006), Concessive Clauses, in Brown, K. et al.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Elsevier, 820~824.

Kratzer, A.(1979), Conditional Necessity and Possibility, in Ba¨uerle, R., Egli, U., & Stechow, v. A. eds. *Semantics from DiVerent Points of View*, Berlin, Heidelberg, and New York: Springer, 117-147.

Lambrecht, K.(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wis, David K. (1975). Languages and language, in Keith Gunderson ed. *Minnesota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3-35.

Li, Charles & Thompson, Sandra(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Charles N. Li eds.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457-489.

Longacre, R.(2007). Sentences as combinations of clauses,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72-420.

Lyons, J.(1977),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nn, William C. & Sandra A. Thompson(1986), Relational Proposition in Discourse, *Discourse Processes* 9, 57-90.

Nedjalkov, Vladimir P.(1998), Converbs in the languages of Europe, in J. Van der Auwera eds. *Adverbial Constructions in the Languages of Europe*, Mouton de Gruyter, 422-455.

Noveck, I. A., & Sperber, D.(2007), The why and how of experimental pragmatics: The case of 'scalar inferences', in Noel Burton-Roberts ed. *Advances in Pragmatics*, Basingstoke: Palgrave, 184-212.

Partee, B. (1991), Topic, Focus and Quantification,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1*, 159-187.

Payne John, Rodney Huddleston & Geoffrey K. Pullum(2010), The distribution and category status of adjectives and adverbs, *Word Structure* 3.1, 31-81.

Reihnart, T.(1982), *Pragmatics and Linguistics an Analysis of Sentence Topics*,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Schmidtke-Bode, Karsten(2009), *A Typology of Purpose Clauses*,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Sohn, Ho-Min(2009), The Semantics of Clause Linking in Korean, in Dixon & Aikhenvald eds. *The Semantics of Clause Link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85-317.

Sweetser, E. (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augott, E & König, E.(1991), The semantics-pragmatics of grammaticalization revisited, in Elizabeth C. Traugott & Bernd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Volume1: Focus o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Philadelphia: J.Benjamins, 189-218.

Traugott, E.(1997), UNLESS and BUT conditionals: a historical perspective, in Athanasiadou, A. and Dirven, R. eds. *On Conditionals Again*, Philadelphia: J.Benjamins, 145-168.

Vallduví, E & Vilkuna, M(1998), On Rheme and Kontrast, in Culicover, P & L. McNally eds. *The Limits of Syntax*, Academic Press, 79-108.

<Abstract>

A Study on Combination of Connective Endings and the Particle ‘Eun/neun’

Jang, Yuny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ist the connective endings that can be combined with the particle ‘eun/neun’. Also, this paper will explore why ‘eun/neun’ can only be combined with these particular endings.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cases where ‘eun/neun’ is combined with a noun phrase. However, 'eun/neun' can be combined with various units other than noun phrases. In particular, the combination of ‘eun/neun’ and a connective ending requires a different explanation than in previous studies. In this paper, it is analyzed that ‘eun/neun’ has two functions when it is combined with a connective ending: a ‘frame-topic marker’ and a ‘contrastive marker’. Depending on each function, the functions of the clause led by a connective ending are also divided. ‘Eun/neun’ as a frame-topic marker combines with a linking clause, and ‘eun/neun’ as a contrastive marker combines with an adverbial clause.

‘Eun/neun’, which functions as a frame marker, is usually used at the beginning of a sentence to limit the interpretation area of the main clause. If we look at the usage of the frame marker 'eun/neun', it usually combines

with a connective ending that has a temporal or a conditional relationship. In Korean, among the various relationships between clauses such as 'connection, contrast, comparison, alternative, cause, concession', only temporal or conditional clause can limit the interpretation area of the following clause. For example, connective endings that indicate temporal relationships constitute the temporal framework of the following clause. The conditional clause can also constitute the framework in which the following clause is felicitous. Accordingly, only temporal and conditional clauses can be combined with the frame-topic marker 'eun/neun', which constitute a framework of the following discourse.

'Eun/neun', which functions as a contrastive marker, is usually used immediately before the predicate of the main clause. It usually combines with adverbial clauses which indicates a manner, purpose, or result of the main predicate. In particluar, 'eun/neun' can combine only when the purpose or the result clause is a complement clause. Manner clauses or some purpose·result clauses have in common that they can modify the main clause predicate and affect the way which the predicate is realized. Unlike other types of clauses, manner or some purpose·result clauses do not indicate event or proposition separate from the main clause. Rather, they indicate the way or the content of the main predicate.

There are cases where the connective endings and 'eun/neun' are gram-maticalized as a single unit. '-goneun/goseoneun/takaneun/eoseoneun' is one example. They are usually used to indicate a negative result of the preceding clause, and they have required their own unique syntactic properties. Therefore, '-goneun/goseoneun/takaneun/eoseoneun' has to be regarded as grammaticalized units which went through the conventionalization of implicature. These forms are mainly used to change the addressee's present behavior or status by stating its negative consequences. The special meaning

of these forms were previously only implicature. However, as those implicature were frequently repeated, they became conventionalized and established itself as the meaning of these forms.

keywords : ‘eun/neun’, connective ending, frame-topic marker, contrastive marker, linking clauses, adverbial clauses, conventionalization of implicature

Student Number : 2020-23546